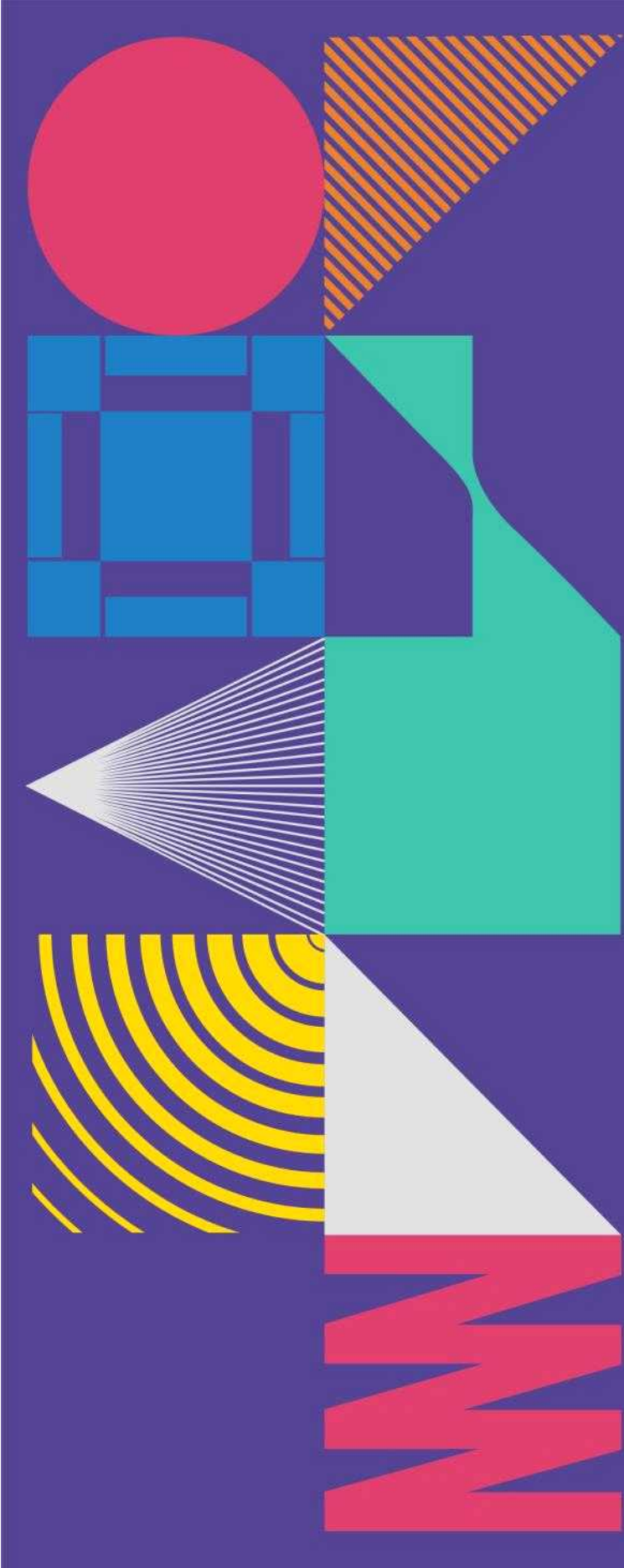




2021

제7회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학술대회

온택트 시대 독서의 열린 활동성

2021.10.02 (토)

시간_ 13:00~18:00

방식_ Zoom 온라인 회의

신청_ 이메일 접수 (acagora@naver.com)

문의_ 031-828-7166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CONTENTS

I 기조 강연	3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가 열린다	홍영일 (서울대학교)
II 발표문 & 토론문	24		
주제 발표 1	25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38	토론문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주제 발표 2	40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에서 본 온 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사토 유키나 (중앙대학교)
	61	토론문	박종진 (연세대학교)
주제 발표 3	63	온라인에서 '오늘아' 읽기	김윤경 (말글살림연구소)
	94	토론문	박현숙 (건국대학교)
주제 발표 4	99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	김연옥 (독서습관연구소)
	137	토론문	권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제 발표 5	141	코스모스(칼 세이건) 과학고전 읽기	문영하 (경북영광여자중학교)
	162	토론문	서희경 (송실대학교)



기 조 강 연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가 열린다

홍영일¹⁾

[목 차]

I. 여는 말

II. 실시간 화상수업의 매력

III.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1. 비대면 요가 수업
2. 비대면 등산 수업
3. 비대면 토론 수업
4. 비대면 독서 수업

IV. 맺는말

1) 서울대학교

I. 여는 말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교육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인가? 아니면 학습 내용을 매개로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인가?” 이 질문을 받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후자가 맞다고 하겠지만, 실제 학교에서 행해지는 비대면 교육의 모습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서 내용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이들에게는 암묵적인 핑계꺼리가 있었다. 비대면 교육 환경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대면 교육 환경에 비해서 실재감이 떨어지고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비대면 환경과 대면 환경에서의 학습효과를 비교해왔지만, 그 결과들을 메타분석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no significant difference)으로 밝혀졌다(이혜정, 2008). 이 말은 비대면 수업도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학습 효과가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 못지않다는 뜻이다.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수업 설계이다. 대면 수업도 설계를 잘못하면 학생들은 최악의 수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도 설계를 잘하면 학생들은 최고의 수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매체의 특성이다. 온라인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매체의 역할은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강의할 때 전달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면대면 교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상상할 수도 있다.

비대면 수업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실시간 화상수업, 녹화된 동영상 강의, 그리고 토론 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비실시간 상호작용 수업이다. 실시간 화상수업은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어서 면대면 수업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을 혼자 1대1 대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몰입감을 느끼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행복 교육을 주된 강의 분야이다보니 감동적인 강의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감동적인 강의를 교실에서 할 때는 수강생들의 반응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였다면, 화상수업에서는 아예 울어 버리는 경우가 필자의 경험상 많이 목격된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몰입한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동영상 강의는 수강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고, 원하는 구간을 <다시 보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세 번째로 비실시간 토론식 수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시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 게시판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게시판에 의견을 작성할 때 충분히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토론의 댓글을 작성할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한 다음에 댓글을 작성하게 되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관점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비동시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자로, 즉시가 아닌 시간을 두고 성찰할 수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대면 강의 교육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비대면 수업은 그 유형에 따라서 대면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은 기존 대면 수업과는 전혀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해준다.

II. 실시간 화상수업의 매력

실시간 화상수업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비해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고 편견을 갖기가 쉽다.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백파더’라는 방송이다.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와 개그맨 양세형 씨가 출연하여 49명의 요리 초보자들과 진행하는 요리 화상수업이다. 그런데 백종원씨는 “재미없으니 채널 돌리세요.”라는 말도 서슴없이 던지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86090>

과연 방송이 어떻길래 그럴까?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 방송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완전히 방송사고 수준이라고 혹평을 쏟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백종원씨가 백파더 방송을 또 한 대.,”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어떤 신종 레시피를 공개할까, 궁금하네 한 번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본다면 레시피 공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니깐 “아이고 답답해 언제 레시피가 나오는 거야.”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뭔가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방송은 답답해서 볼 수가 없다. 체계적인 지식 전달, 군더더기 없는 방송,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 칼럼니스트의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수 연발, 좌충우돌, 현실적인 인간미를 느끼는 이 모습이 어쩌면 화상수업의 진짜 묘미는 아닐까? 이 방송에 참여하는 49명의 요리 초보자들의 표정을 보았는데, 정말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즐겁고, 행복한 표정들이었다.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길 내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하의 백종원 씨와 양세형 씨도 저렇게 찢찢매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머릿속이 맑아졌다. 교육 목적이 체계적인 지식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깔

끔하게 편집된 동영상을 내보내주자! 그러면 진도라도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 화상으로 만날 때는 소통을 하자! 그리고 교감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비대면 수업 유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말끔하게 생각 정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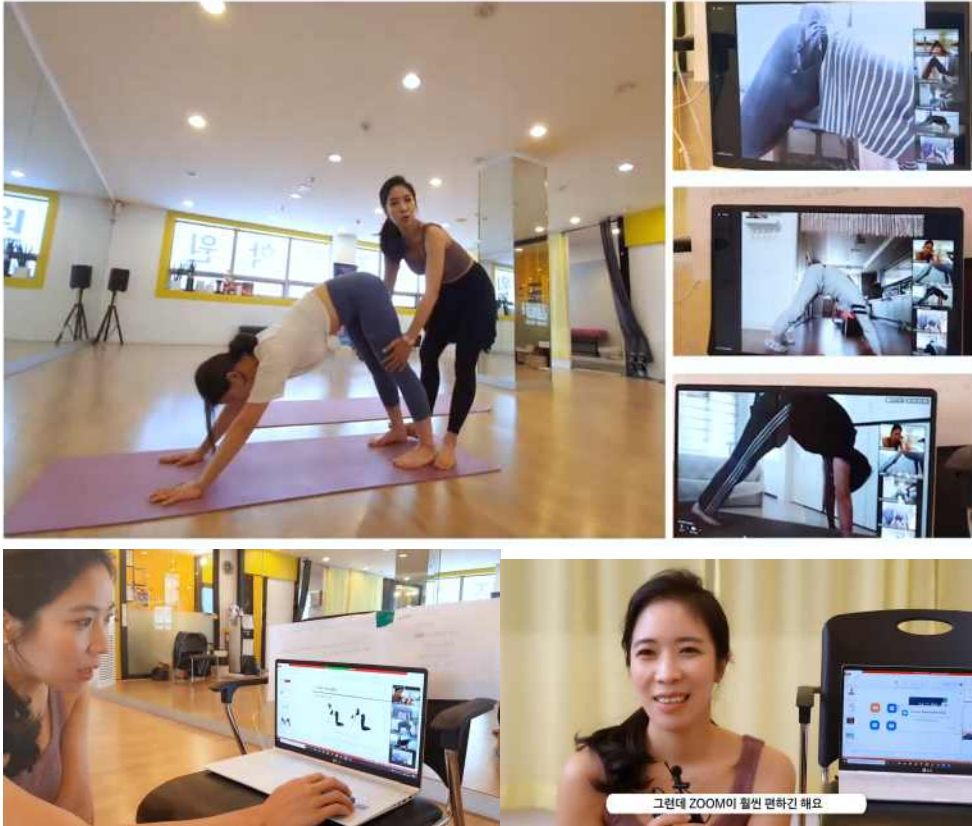
코로나19가 가져온 콘텐츠 향유방식의 변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구조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뇌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 경험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뇌의 구조가 되돌아가지 않는다²⁾.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콘텐츠 향유방식의 변화는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의 콘텐츠 향유방식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후진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직진해야 된다.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 미래의 교육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Ⅲ.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1. 비대면 요가 수업

요가 수업을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은 요가 수업을 하는 K 교수가 필자를 찾아와 묻기를, “화상수업을 해야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자는 “그게 가능할까요? 요가 수업은 강당에서 한 명 한 명 코치를 해주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의 줌(Zoom) 강의를 듣고 나니깐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도전해보시고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2주 후에 K 교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드디어 비대면 요가 수업의 현장을 취재했다.

2) 뇌 조직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한다.



출처: 유튜브 '홍영일어린이왕자' 채널³⁾

예전 같았으면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강의실에 요가 매트 한 개만 놓여있다. 학생들은 어디 있나 둘러보다가 노트북에 눈이 갔다. '아하! 다들 여기 있었구나!' 각자 집에서 요가 매트를 준비한 채 앉아 있는 28명의 수강생들이 모니터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K 교수: 호흡을 하실 때는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K 교수는 실제로 눈앞에 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어간다. 모니터 속의 학생들도 김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라 호흡에 신경 쓰며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 '화상수업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하는 의심도 잠시, 김 교수는 매의 눈으로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학생에게

3) 유튜브 '홍영일어린이왕자' 채널 <http://www.youtube.com/purespirit01>

등을 더 말아보라고 이야기한다. 김 교수가 학생들이 자세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코치해주니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하며 오늘 해봤던 자세에 대한 감상도 듣는다. 너무 몸이 뻣뻣해서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 느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도해보자는 K 교수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비대면 요가 수업을 마치고 K 교수의 생각이 궁금하여 인터뷰를 해보았다.

필자: 오늘이 몇 번째 zoom으로 하는 요가 수업인가요?

K 교수: 두 번째입니다.

필자: 두 번째인데도 매우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K 교수: 처음에는 기능을 잘 다루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었지만, 최대한 오프라인 교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필자: 오프라인 수업과 다른 점은?

K 교수: 디지털 네이티브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새로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잘 따라오고, 일상에서 인터넷을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이런 방식의 수업이 재밌었다고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필자: Zoom 화상수업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K 교수: 첫째는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점.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의식하지 않아서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모여서 진행할 때는 옆자리 친구들 눈치 보아가며 자신의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편안한 장소에서 참여해서 그런지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각자의 동작과 마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날 취재한 K 교수의 체육 수업은 ‘체육 수업만큼은 온라인 수업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을 깨주는 환상적인 비대면 수업이었다.

2. 비대면 등산 수업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등산 수업이다. S대학교 교양 강좌인 ‘산과 인생’은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는 수업 방식에 매력적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다. 그런데 이미 9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강신청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산을 가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만 들어도 막막해진다.

S 교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산과 인생 수업을 담당하는 S 교수가 고민 끝에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 의논한 결과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이 실마리가 되어 주었다. 실제로 수업은 동영상 강의와 화상수업을 적절히 활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S 교수는 산행 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들을 설명한다. 체크리스트에는 필수적인 물품인 산행 지도와 등산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음식, 에너지 보존을 위한 적절한 옷과, 등산을 위한 도구부터 보험까지 산행에 필요한 리스트가 상세히 준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과 페이스 조절을 위한 방법도 소개되어 있어 마음이 놓인다. 학생은 이 동영상을 통해 산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숙지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다.

학생 1: 탄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오리가 보이시나요?

학생들은 산행 장소와 일시, 산행의 전체 일정을 포함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이후 수업 시간이 되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등산을 하게 된다.

개별 산행 계획서			
참가자	김OO		
산행지	백운산(경기도 의왕시)	일 시	2020년 4월 17일
공통 준비물	등산화, 배낭, zoom 실행이 되는 핸드폰(카메라, 데이터 확인)		
개별 준비물	등산화, 배낭, zoom 실행이 되는 핸드폰		
전체 일정	백운산 입구 집합 -> 백운산 정상 -> 백운산 하산		
세부 일정			
팀	예상시간	장소	비고
개 인	13:00	지지도대고개 입구 집합	출석 체크(zoom 이용), 걷기 어플리케이션 시작
	14:00	백운산 등산로	걷기 어플리케이션 작동 확인
	15:00	백운산 정상	2차 출석 체크(zoom 이용)
	15:30	하산	올라왔던 길을 따라 하산
당초 계획된 지도			실제 등산 지도
			실제 일정과 다를 경우 지도에 표시하여 실제 등산 경로 제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 모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zoom에 접속해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면서 출석체크를 한다. 모두가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성 교수님은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 학생들을 10명씩 짝을 지어준다. 이렇게 한 팀이 된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산행을 하면서, 자신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의 풍경을 가리키며 대화도 나눈다. 두 시간 동안의 산행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과 현재 위치 보고를 하면서 수업은 마무리 된다.

학생 2: 오늘 사이버 강의 관련해서도 링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했는데

이 상황을 조원들끼리 공유하고 해결하면서 매우 안심되었습니다. 비 오는 와중에 하이킹하는 서로를 걱정해주면서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구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하이킹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Hiking Log			
Personal Information			
이름	송재운	성명	여
학과(부)	경영학과	학번	2016-14837
Hiking Log			
하이킹 시간	13:00 ~ 15:20	날씨	흐림, 약간 비
코스(course)	한천 이목로 출발 -> 분당재입원로 -> 수내계 능구렁 -> 백운로 -> 빙향로 -> 비추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기		
준비물품	집에서 출발지점까지 20분 가량 걸어가며 몸을 풀었습니다. (마는 축창한 거리에 비포장) 산책부위별로 간단한 배후를 했습니다.		
거리(distance)	6.83 km	총 소요시간(duration)	2시간
속도(pace)	18'00"	칼로리(calories burnt)	368 Kcal
강기속도	2732킬로 (2.52 킬로/m)		
보폭(foot)	40cm		
Self-Review			
사용 어플	Nike Run Club		
코스 및 인증사진			

Reflection Note(하이킹 중 또는 하이킹 후 느낀 점-자신, 타인, 코스, 자연, 환경 등)

1. 비
 아침부터 비가 무슬부슬 내렸다. 모아서 함께 수업을 듣는 못하는 아쉬움 속에서 첫 야외 수업이라 기대가 정말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속상했다. 역시 세상은 내 마음대로만 되는 법이 없다. 그래도 내가 사는 분당 지역은 카운터 쇼나기 정도로 그저 짜릿한 빗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나, 서울대학교 근처 지역에서는 비가 심하게 내리는 모양이었다. 마와 활동에 있어 날씨의 영향은 중요하다. 이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나중에 여행을 떠나 하이킹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초소한 백트리스도 함축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 날씨가 날씨를 재배하는 데 충실해야겠다는 좀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무튼 다음 건강한 상태로 하이킹을 하겠으니 정말 다행이다.

2. 단편의 풍경
 단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몇 번의 개발 끝에 온통 물결이 완장되었고, 그 근처에 거대한 돌과 무성한 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오리 두 마리가 강에서 켄디와 뒤돌아볼 일어가기도 했고, 케나리가 활짝 핀 덩굴도 푸르른 들녘도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내 눈길을 끈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다. 추적추적 강다보니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희갈색 덩어리였다. 검은 물때와 어귀로 영특히 돌출된 모습이었지만, 할 새 없이 여닫기 지른 물소리를 내며 힘차게 물줄기를 쏟아내는 모습이 분득 아름다워 보였다. 두근거리는 듯이 내는 소리에 걸기심을 느끼고 강 가버리에 침을 뱉어버리겠지만, 나는 그런 덩어리 좋아 한창을 그 강에 사립었다. 고향과 후원을 자니고 일기에 덩어리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3. 함께하는 즐거움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자기적 수준으로 참여하면 생활을 하니 다른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던 학교생활이 그리워진다. 그런데 산과 인생 수업에서는 조원들과 배신자를 통해 대화를 많이 나누다보니 간접적으로나마 학교생활을 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늘 그렇듯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료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성취에 해당하는 직책이나 영어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빈틈을 하던 연구실 생활을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직에 훨씬 크게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산과 인생 수업을 준비하는 데도 조원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얼마 전 성취 평가 방법, 변질이나 개별 진행 등 조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단래 배신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덕분에 나도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재배 수명했다. 오늘 사이비 강의 관련해서도 링크가 작동하지 않음을 조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연결할 수 있었고, 비 오는 와중에 하이킹하는 서로를 걱정해주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하이킹하는 1종대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면 비록 더 이상 슬픈은 우리를 버려지 못하리.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산행 인증 사진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Zoom으로 진행되는 등산 수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외롭지 않고, 동시에 혼자 산행을 하기 때문에 여유와 여백을 느낄 수 있다. 여럿이 함께 산행하는 단체 활동의 감각과 혼자 산행하는 개인 활동의 기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실로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S 교수는 이를 두고 등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S 교수: 개념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산출물이 바뀌고. 코로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전환시키네요.

S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수업을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제한이 생기니 그 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미쳐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비대면 토론 수업

교실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열띤 토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가능할까? 이 수업은 필자가 실제로 진행한 수업의 사례로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례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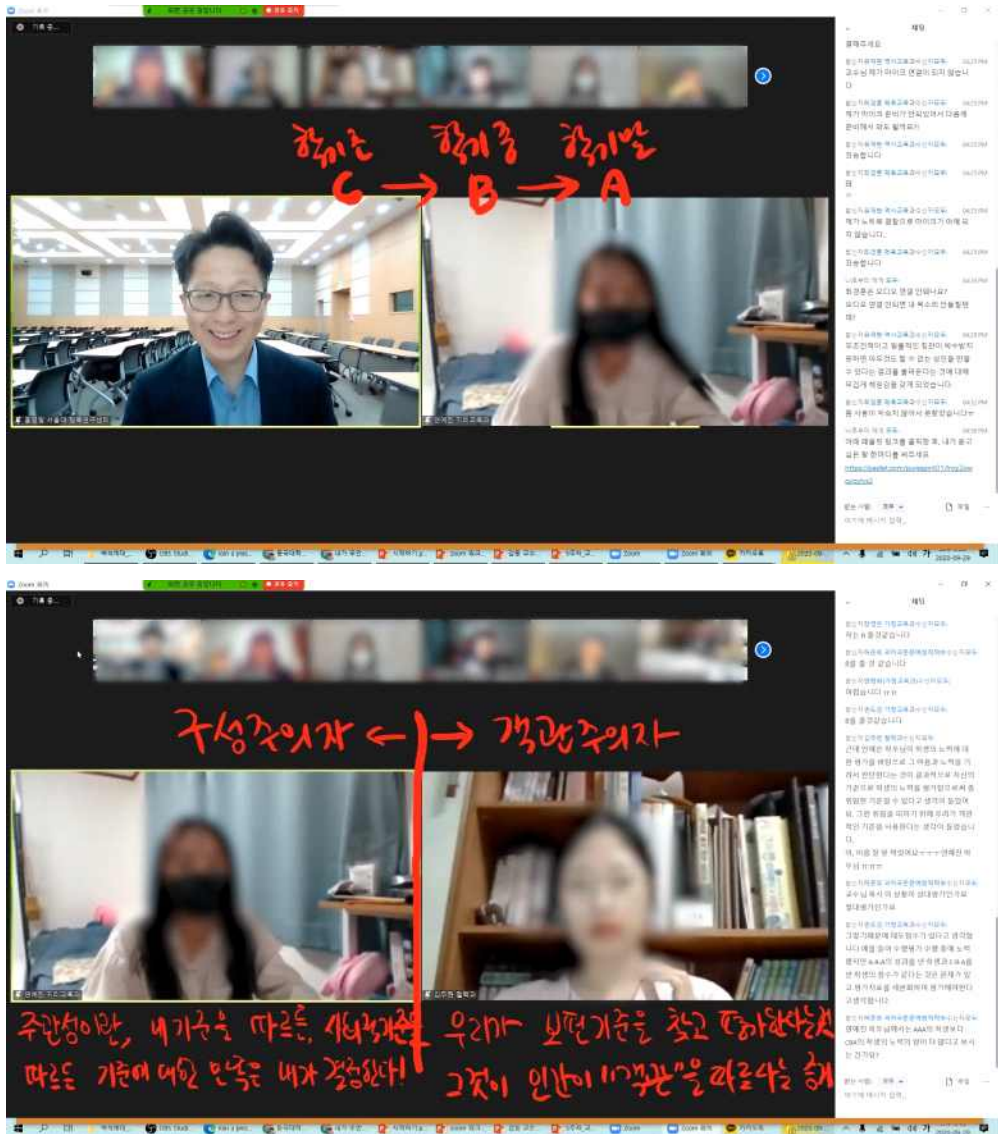
필자: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 강의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강의를 수강하는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학기 초에 이 학생의 성적이 C였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B가 됐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A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즉, 성적표에 어떤 성적을 기재해야 할까요? 평균인 B를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최종 성적인 A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필자의 실제 수업에서 토론 주제였다. 의견이 양분되었다. 평균을 주는 것이 맞다는 학생도 있고, 또 그 의견에 만만치 않게 A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시간 동안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교실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던 열띤 토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학기 말에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과 여운이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도 사라지지 않더라, 그 여운이 가시지 않더라.’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었다.

이런 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요령이기 때문이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질문과 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토론은 적절한 주제가 주어지면 수강생들이 알아서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화상수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의실에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줌(zoom)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교수자로서 필자는 화면상에서 한두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한두 명의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채팅창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을 쭉 보면서 “이 의견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친구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실제로 목소리로는 1:1의 수업이지만 채팅창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동시에 모든 학생과 소통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화면에 기록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시각화(Visualize)까지 되는 연출을 할 수 있었다.

4. 비대면 독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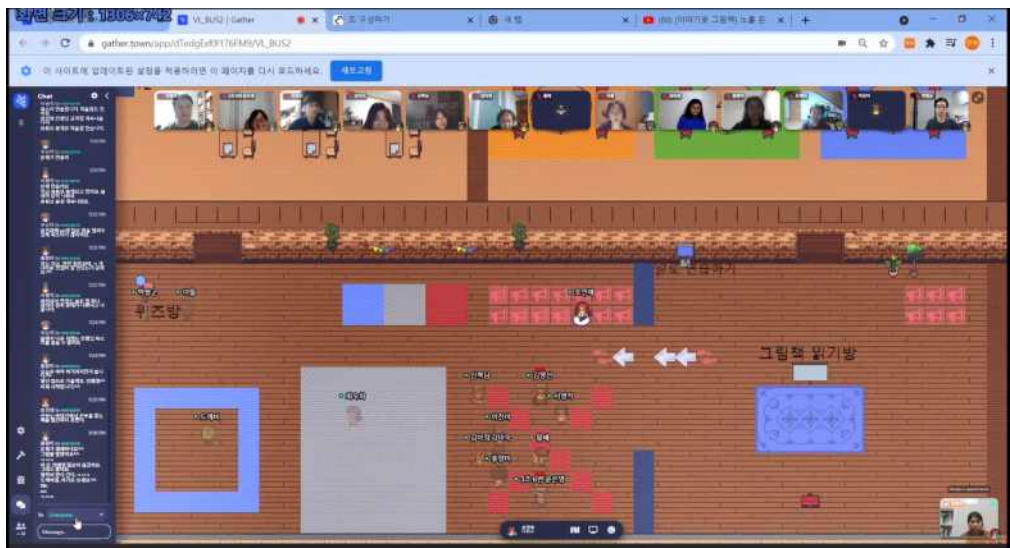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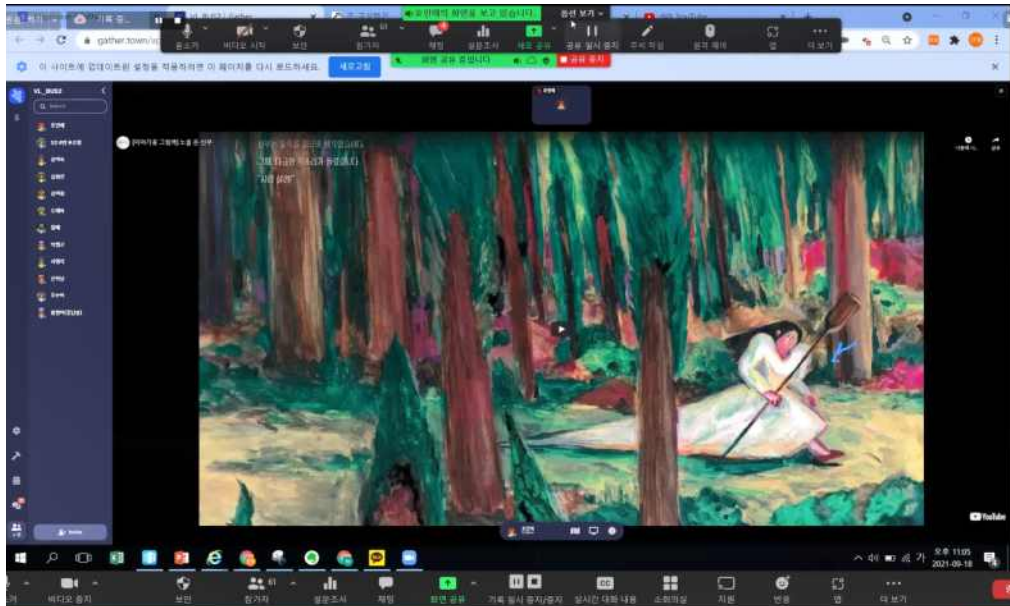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17개 시도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교육 실천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든다. 모이는 장소는 줌(Zoom)과 유튜브다. 이 모임의 명칭은 17-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귀족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사교 모임이었던 살롱의 이름을 따와서 ‘행복춤살롱’이라고 붙여졌다. 이 모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혼란을 맞게 된 전국의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전문 강사 등을 위해 비대면 수업 기법이나 사례들을 나누기 위해 2020년 3월에 시작되었다. 줌(Zoom) 외에도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멘티미터, 소크라티브, 카훗 등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한 수업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 음악가, 마음챙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업 사례는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었다. 아예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밤에는 그림책 수업 나눔 시간을 고정하고 정기화하여 진행 중이다.



비대면 수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지만, 참가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몰입을 유도하는 기술은 그림책이나 스토리텔링과 같은 아날로그적 기법들이 의외로 효과가 크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환경을 교육에 접목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게더타운’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실제 교실을 본떠 설계한 환경에서 교사가 안내하는 책을 함께 읽고, 모둠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게더타운에서 진행되는 비경쟁 독서 토론 수업의 장면>

IV. 맺는 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고 사태가 잔잔해지더라도 우리의 콘텐츠 향유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적 만남은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를 펼쳐가 보자.

초록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가 열린다

홍영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를 앞당겼다. 특히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면 수업처럼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수업은 교실에서와 같은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장점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새로운 모임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비대면 요가 수업에서는 참가자들이 옆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므로 자신의 자세에 더 몰입할 수 있다. 비대면 등산 수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따로 또 같이 등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대면 토론 수업에서는 화상과 채팅을 동시에 활용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쏟아내면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로 공유하는 모임도 활성화되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자신감도 회복해나가고 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경험하여 장점을 맛본 비대면 수업의 요소들은 그대로 활용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비대면, 화상수업, 코로나 팬데믹, 수업 나눔, 비대면 독서 토론, 메타버스

ABSTRACT

The imaginary world of non-face-to-face classes opens up.

Young-il Ho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s accelerated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video classes, which allow real-time communication in two directions, such as face-to-face classes in classrooms, are now forming a new gathering culture as they are not only capable of communicating in classrooms but also have advantages that are difficult to experience in classrooms. In non-face-to-face yoga class, participants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person next to them, so they can be more immersed in their posture. In non-face-to-face hiking class, participants can enjoy the effect of hiking separately and together while keeping Social Distancing. In the non-face-to-face debate class, video and chat were used at the same time, and all participants poured out opinions simultaneously, showing that activ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were possible. As the experiences of these non-face-to-face classes accumulate, meetings that share with each other are also being activated, and many educators are also recovering their confidence. In the future, even if face-to-face classes are held in the With Corona era, the elements of non-face-to-face instruction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nd tasted advantag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y are.

"Keyword".

Non-face-to-face, Zoom, video classes,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debate, metabuses

참고문헌

- 이혜정,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주는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2008.
- 홍영일, 『줌(Zoom)으로 강의하라』, 성안당, 2021.



발표 & 토론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김명석⁴⁾

[목 차]

- I. 머리말 - 시의 길, 새로운 길
- II. 유튜브에서 윤동주 찾기, 검색어 '윤동주'
- III. 맺음말 - '쉽게 쥐어진 시'와 독자

4) 성신여자대학교

I. 머리말 – 시의 길, 새로운 길

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읽기의 대상이 변하고 있다. 종이책 읽기에서 PC를 거쳐 스마트폰 읽기로 나아가며 시 읽기의 중심 역시 변화하고 있다. 서가에서 고른 시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던 시절은 지났다. 시집을 구하기 힘들던 시절에 우리는 어렵게 빌린 시집을 통째로 베껴 쓰기도 했다. 이를테면 문학 소년 윤동주는 숭실중학교 시절 백석 시집 <사슴> 한정판을 노트에 필사해 소중히 간수하였다. 시인 지망생 윤동주는 자신이 원고지에 쓴 습작에 일일이 집필 날짜를 기록했다. 연회전문 학생 윤동주의 미발표 필사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후배 정병옥은 고향집 마루 밑에 보관했다가 해방 후 출간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 윤동주는 릿교 대학 편지지에 다섯 편의 작품을 적어 절친 강처중에게 보내었다. 그중 <쉽게 씌어진 시>가 강처중 기사가 근무하던 경향신문에 발표된다. 동주의 유고작을 모아 정지용의 발문이 붙은 윤동주 시집이 정음사에서 출간된다. 독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노트, 원고지, 신문지 혹은 잡지, 시집에 실린 작품을 읽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시도 인터넷에서 찾아 읽는 시대가 왔다. 이 길은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독자들에게는 윤동주는 어떻게 새롭게 기억되고 있을까. 윤동주 시인 탄생 백주년을 기념해 조사한 설문 역시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 독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시 연구조사에 의하면 1,086명의 독자를 설문한 결과 독자들이 윤동주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저항시인(8.7%, 89명), 민족시인(7.7%, 79명)보다는 자기성찰하고 실천을 꿈꾸었던 시인(51.7%, 529명), 자기성찰의 시인(26.9%, 275명)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줘 화제가 되었다.⁵⁾ 물론 이 설문이 네티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과거의 교육을 받은 높은 연령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한일관계 악화나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조선족 시인 윤동주설에 대한 반감으로 민족저항시인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있는 현상도 눈에 띈다. 그런데 네티즌들에게 있어 시인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는 것, 아니 검색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구글에서 윤동주를 검색하면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검색

5) 김웅교, 「윤동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2017년 3월 인터넷 사용자의 윤동주 인식」, 『시대의 폭력과 문학인의 길-2017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자료집』, 대산문화재단·한국작가회의, 2017.4.17, 81-101쪽.

창에 ‘윤동주’를 입력하면 뜨는 화면에서 네티즌들은 윤동주를 만날 수 있다. 구글의 윤동주 검색결과는 약 209만 개에 달한다. 수많은 윤동주 콘텐츠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는지 특성을 파악해보자.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의 윤동주 항목이다. 잘 정리된 정보와 여기서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하며 독자들은 윤동주의 생애와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윤동주에 대한 사전적 정보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윤동주 항목 역시 구글 첫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에 이어 나오는 ‘윤동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역시 연세대 윤동주기념관에서 작성한 것이다. 뒤를 이어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올댓아트), ‘[아직도 풀리지 않는 恨] 윤동주의 ‘서시’”(경남일보), “‘시인’ 윤동주에 관한 놀라운 기록”(오마이뉴스)와 같은 신문, 잡지 기사가 검색된다. 동영상 카테고리 첫 번째는 ‘[인물백과사전] 윤동주 시인의 인생’(세상의 모든 지식)이며, 다큐멘터리 ‘잊지 못할 윤동주’(여수 MBC), ‘펜으로 쓴 독립운동’(국방TV) 등 TV 방송물 검색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순수하게 인터넷 콘텐츠로 제작된 것보다는 이미 방영된 방송물의 다시보기가 중심이다. 또 검색어가 ‘윤동주’ 이기에 시인에 대한 정보에 비해 시 작품을 곧바로 찾아볼 수 없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라는 텍스트도 영상과 오디오와 결합해야 온라인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쉽게 제공해주는 유튜브를 경로로 선택해 보자. 유튜브는 네티즌들이 어제도 클릭하고, 오늘도 클릭하는 새롭고도 익숙한 길이고, 유튜브의 세계는 시의 길로 가는 지도가 된다. 나침반이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듯 검색어는 윤동주 시인 앞으로 독자들을 데려다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를 통한 시 읽기의 변화 고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윤동주’라는 키워드 검색에서 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윤동주 콘텐츠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세대가 윤동주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유튜브에서 윤동주 찾기, 검색어 ‘윤동주’

유튜브는 수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기능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의 하나가 되었다. 유튜브 메인화면에서 ‘윤동주’를 검색하면 네티

즌들은 어떤 콘텐츠들을 만나게 될까. 그 순서는 검색어와의 관련성, 업로드 날짜, 조회수, 평점 등 정렬기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백과사전] 윤동주 시인의 인생’은 1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조회수 5만 5천 회의 콘텐츠로서 필터가 기본값 ‘관련성’에 맞춰져 있으면 맨 앞에 나온다. 13분짜리 시인 소개물로 가장 대표적인 윤동주 콘텐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티즌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콘텐츠이기에 무시할 수 없다. 그 밑으로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 - 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는 MBC 예능 프로 일부를 업로드한 것으로 짧은 예능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취향을 반영해 준다. 다음으로 ‘2020 윤동주 문학제 ‘동주와 함께 걷는 길’ 창작음악제 편’은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이다. 윤동주 사망 70주년이 경과해 저작권이 풀리면서 윤동주 시를 가사로 한 노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종로구 종로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윤동주문학제 프로그램 중 윤동주 창작음악제를 마련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축제가 취소되면서 많은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유튜브에서 그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 다음 순서로 ‘[차클마스터클래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윤동주...’를 비롯한 한양대 정재찬 교수의 jtbc 강연이 나온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정재찬 교수의 시 강의 외에도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윤동주 시 교육 콘텐츠들을 작품별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길위의 인문학-교보인문기행×유성호] 윤동주와 서울을 걷다, 별이 된 시인 윤동주’는 대산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인문학 답사로 코로나 시대에 시 독자를 위한 랜선문학답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밑으로 ‘하늘의 별이 된 시인 윤동주[마노하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국립한글박물관)과 ‘윤동주 별 헤는 밤 낭독 feat. 영화 동주’가 이어진다.

한편 ‘조회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간 309만 회를 기록한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 - 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MBC)이 선두이고, 한달만에 54만회를 기록한 ‘故 윤동주 시인 중학 동창 102세 철학자 “인생 얼마나 살아보셨나요?” [김형석 철학자]’(SBS)가 뒤를 잇는다. 검색하면 앞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는 둘 다 이미 TV에서 방송한 것을 다시 올려놓은 것이 많다. 윤동주 시 낭송으로는 김윤아의 <별헤는 밤>(27만회)와 강하늘의 <서시>(11만회) 등이 상위권에 있다. 윤동주 시에 곡을 붙인 노래로 윤동주 콘서트에서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부른 <별 헤는 밤>(12만회)을 들을 수 있고,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삽입곡들도 앞쪽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점’을 기준으로 하면 ‘길-윤동주×아하’(187회), ‘캘리그래피-윤동주의 나무’(13회) 등 유튜브 콘텐츠로는 조회수가

매우 적은 콘텐츠들도 검색된다. ‘필터’를 업로드 순으로 하면 6시간 전에 업로드 한 ‘윤동주-시인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조회수 0), 15시간 전에 올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조회수 10회)처럼 당일 업로드로 아직 방문자가 거의 없는 콘텐츠가 나온다.⁶⁾ 물론 이 순서는 새 콘텐츠가 업로드 되면 계속 바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튜브 검색 시 가장 먼저 나오는 콘텐츠 중 유튜브 조회수 1위 콘텐츠인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 - 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를 먼저 살펴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윤동주 시인 소개 콘텐츠, 강연, 다큐멘터리를 찾아본 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윤동주 관련곡 중 네티즌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수록곡 등을 차례로 소개하겠다.

1. 「별 헤는 밤」에서 <당신의 밤>으로 : ‘윤동주-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

2017년 삼일절에 방영된 <무한도전(결방 특집)>을 편집한 11분 분량의 콘텐츠로 309만에 달하는 조회 수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윤동주 콘텐츠 중 하나이다. 이는 2016년 11월19일부터 12월 31일에 방영한 MBC TV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의 윤동주 편 하이라이트 재방송이다.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는 당시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과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역사적 변혁기마다 등장한 위대한 영웅을 상기하고 역사에서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역사×힙합 프로젝트’는 기존 무한도전 멤버와 인기 래퍼의 콜라보로 단군왕검, 세종대왕, 이순신, 안용복,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7명 중 한 명씩 정해 힙합곡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윤동주 편은 역사 기행에 이어 그의 삶과 시로 노래를 창조하는 예능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설민석 특강 - 멘토 탐방 - 힙합곡 창작 작업 및 발표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창씨개명의 부끄러움을 담은 <참회록>과 <쉽게 씌어진 시> 소개로 시작된 특강에서는 영화 <동주> 장면과 사진 자료를 배경으로 출연자들이 두 작품을 낭송해준다. 처음 보는 시 <쉽게 씌어진 시>를 낭독한 유재석과 출연자들은 생체실험으로 인한 사망 의혹과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한 설민석의 강의에 귀 기울인다. 이렇게 시 듣기와 자막 읽기, 강연자의 해석을 통해 시청자의 윤동주 시와 삶 읽기 역시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읽기’는 자연스럽게 ‘쓰기’로 발전한다.

6) 발표 일주일 전인 2021년 9월 26일 16시 기준.

이어지는 가수 광희와 래퍼 개코의 작업과정⁷⁾에서 윤동주 시를 가사에 삽입 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두 사람은 연세대 윤동주기념관을 방문해 김웅교 교수의 해설을 듣고 <별 헤는 밤>에 다섯 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로 시작된 시 낭송이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로 이어지면서 곧바로 <당신의 밤>의 전주가 흘러나온다. “일제의 말살정책 속에서도 한글로 시를 쓴 시인 윤동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개 자막은 독자 입장에서 일종의 팬레터를 시도한 사실을 보여준다. 즉 윤동주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은 곡이다. 다음 자막은 “<별 헤는 밤>, <서시> 등의 시구를 인용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라고 소개했다. 바로 앞의 시 낭송 부분인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라는 오혁의 피쳐링으로 출발해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길”로 이어지는 개코와 광희의 랩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과 「서시」의 시구에서 온 귀에 익숙한 서정적 가사를 선보이고 있다.

무대 구성은 좌측의 책상에 앉은 광희를 통해 윤동주를 표현하고, 가면을 쓴 죄수들이 손목을 내밀고 주사 맞으러 줄지어 움직이는 춤 장면을 연출하였다. 이어서 개코와 광희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면서 시작된 랩 가사는 시 인용보다 독자의 감상을 노래한다. “난 왜 느끼지 못하고 외우려 했을까 /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 그에게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 오늘도 나아가야지 흠으로 덮여지지 않게”라는 가사에 나오듯이 느끼지 않고 외우는 역사 교육, 시 교육에 대한 반성, 총칼 대신 연필로 쓴 독립운동, 절망의 감옥 창밖으로 별을 보며 간직한 희망, 그리고 부끄러움과 오늘의 각오를 모두 담아 작업 의도대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랩 부분에서는 ‘촛불 위의 바람’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라는 구절로 2016년 12월 당시의 한국 상

7) 본방 시 공개된 작업실 촬영에서 어떤 무대를 만들지 고민하던 개코는 영화 <동주>에서 주사 맞으러 줄 서 있던 장면을 댄서들의 춤으로 표현하자고 제안한다. 또 책상에 앉아 랩을 하자는 광희의 아이디어에 가사를 윤동주 입장에 쓸 지, 팬 입장에서 쓸 지 대화를 나눈다. 광희의 즉석 랩을 통해 팬레터, 부끄러움, 감사라는 3개의 키워드로 가사 내용을 압축하게 된다.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지금 시대를 비춰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선택 이유와 두 달간 제 몸에 윤동주가 흐를 정도로 열심히 작업했고, 과거를 빗대 현재를 표현했다는 소감과 함께 자신들의 노래가 일종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성공이라고 밝힌다. 그들의 바람대로 <당신의 밤>은 6개 출전팀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젊은이들에게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황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는 결의를 다진다. “처음에는 몰라서 부끄러웠고 / 알고서는 용기가 없어 부끄러웠지만 /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자막도 노래 가사를 보충해준다. 공연장 관객들이 들고 흔드는 스마트폰 불빛은 마치 광장의 촛불처럼 화면을 채우고 이 감동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무한도전 멤버 6명의 단체 사진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2017.03.01. / 제98주년 삼일절”이란 자막으로 끝나는 엔딩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역사라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역사관을 반영한다.

‘당신의 밤’이라는 노래는 과거 역사와 힙합으로 표현된 현재의 문제의식을 결합함으로써 역사와 힙합의 콜레보레이션이라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살려냈다. 한편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역사와 힙합의 만남이라는 과제를 받고 자기주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광희와 개코 두 사람의 운동주 독자는 ‘시 읽기’에서 ‘노래 쓰기’로, 수용자를 넘어 또 하나의 생산자로 성장한다. 한편 현실에서 부끄러움 없는 청년으로서 자신만의 ‘삶 쓰기’를 보여줄 것이다. 시청자들 역시 이차적 독자로서 그들을 응원하며, 자신들의 밤을 운동주의 별로 밝히고, 시인이 노래한 새로운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할게요 / 하늘의 별을 헤던 당신의 밤 / 그대는 /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시인”이라는 가사는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시인 운동주를 기억하는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능 프로도 사실 전달을 표방하는 다큐 못지 않은 강력한 전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전달력은 한 번의 방송을 넘어 유튜브에서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 운동주와 그의 시를 찾는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댓글로 살펴보면 “시가 완벽하여 가사가 좋을 수밖에 없다.”, “너무 완벽한 시와 곡과 목소리의 조합...”처럼 시와 노래의 탁월함에 대한 찬사뿐만이 아니다. “운동주 시인의 삶을 정말 잘 나타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의 분위기까지 운동주라는 사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곡 써주셔서 불러주셔서 광희 개코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시를 써준 운동주 시인님께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분께도 곡을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와 같이 시인과 독립지사, 나아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도 넘쳐난다. “이런 예능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예능이었음.”라는 평가나 “우리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와 같은 바람에서 교육적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

종이책 시집 읽기에서 온라인 시 읽기로의 변화는 텍스트가 사운드, 영상과 결합되는 다매체적 읽기라는 기술적 차이 외에도 문학 독자 고유의 고독한 시 읽기로부터 함께 나누는 독서의 열린 활동성을 요청한다. 시와 음악, 작가와 독자, 가수와 청중, 그리고 역사와 현재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유튜브 매체가 시 읽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확인했다. 언택트 시대에 육체적 위치와 물리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시의 영혼은 경계를 넘는다.

2. 운동주에 대한 모든 지식 - 운동주 소개 콘텐츠, 강연, 다큐 동영상

3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세상의 모든 지식’의 [인물백과사전] ‘운동주 시인의 인생’은 구글을 비롯한 검색 사이트와 유튜브 첫 페이지에 등장해 5만 4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운동주의 생애를 내레이션에 애니메이션을 동원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연희전문학교, 운동주의 서시 순으로 정리했고, <서시>는 직접 노래와 작곡을 맡은 정진채의 음원을 사용했다. 전달하는 정보의 분량이나 수준이 운동주에 대한 ‘모든’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3분 5초 분량의 인터넷 콘텐츠로 개발되어 모바일 세대의 취향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철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172개에 달하는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운동주 시 강의로는 정재찬 교수의 강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다수 올라와 있다. 그중 ‘차클 마스터 클래스(jtbc insight)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운동주...’가 검색 순위 상위에 있다. 래퍼 비와이의 독립운동가 헌정곡 <나의 땅> 도입부에 이어 정재찬 교수(한양대 국어교육과)가 등장한다. 이어서 팬텀싱어3 포송포송 4명의 멤버가 운동주 시에 곡을 붙인 <무서운 시간>을 불러준다. ‘시를 노래로 듣는 색다른 감동’이라는 자막처럼 시가 다시 노래와 결합된다. 자료 화면과 함께 이어진 정재찬 교수의 강의는 ‘길’ 찾기로 시작된다. 운동주가 본 운동주는 시 <자화상>에 나와 있다면서 영화 <동주> 장면의 시 낭송을 삽입한다. 2015년에 <자화상>이란 노래를 써본 비와이의 경험을 비롯해 방청 패널들과의 대화식 강의를 이어진다. 한편 남들이 바라본 운동주는 어떤 모습인지 후배 정병욱의 묘사를 소개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던 사람이 운동주였다. 창씨개명과 조선어말살 상황에서 일본어로 시를 쓸까 절필할까 운동주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탄생한 작품 <별헤는 밤> 낭송에 이어진다. ‘폭망’, ‘갑툰튀’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청중을

사로잡는 시 해설에서는 ‘우리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붙이신 한 편의 시’라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으로 창씨개명의 상황을 설명한다. 중간중간 청중들의 감상도 물어본다.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해설과 유고시집 출간 배경 설명에 이어 시만 해도 훌륭한데 삶까지도 바친 시인들이라는 정교수 마지막 멘트로 끝이 난다. 일방적인 교실 시 강의를 넘어 운동주 독서모임 현장중계와 같은 방송 진행으로 열린 교육의 현장이 된다.

유튜브에서 검색한 운동주 TV 다큐멘터리 중 조회수 1, 2위는 <특집 다큐 - 잊지 못할 운동주>(여수MBC, 2013)와 <MBC 스페셜 : 가을, 운동주 생각>(MBC, 2011)이다. <특집 다큐-잊지 못할 운동주>는 조회수 15만회의 풀버전(46분 30초) 외에도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네티즌에 맞춘 요약본(9분 6초)과 1부(12분 1초), 2부(16분 55초), 3부(17분 38초)로 자른 콘텐츠도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고, 삽입곡인 가수 김현성의 노래 <서시>(2분 8초), <자화상>(1분 50초), <참회록>(56초), <별 헤는 밤>(2분 4초) 및 <쉽게 씌어진 시>(48초) 낭독도 찾아 들을 수 있다. 다큐의 내용은 운동주의 19편의 시가 담긴 필사본 <하늘과 바람과 시> 3부 중 한 권을 후배 정병욱에 맡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게 된 이야기이다. 일본 유학을 떠나는 운동주가 맡긴 이 원고는 학병으로 끌려가게 된 정병욱이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 고향집 주조장 마루 바닥 밑에 향아리에 담아 숨겼다. 덕분에 운동주 사후 3년이 지난 1948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될 수 있었다. 운동주 시집의 ‘흰 그림자’에서 따온 백영(白影)이란 호처럼 운동주의 그림자를 자처한 정병욱 교수는 자신이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동주의 시를 보관했다가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라도 광양에는 정병욱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운동주를 기념하고 있다. 두 사람의 우정뿐만 아니라 다큐에서는 연변 명동춘 운동주 생가와 시인 운동주의 묘지를 비롯해 일본 도쿄 릿쿄대학의 운동주 모임, 교토의 운동주 시비 등 사적지를 소개하면서 국내외 독자들의 ‘잊지 못할 운동주’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183개에 달하는 유튜브 댓글을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주 시인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운동주 시인의 시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는 알게 되었고 또 시집을 끝까지 지켜 세상에 내어주신 정병욱 강처중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힘든 시기에도 계속 시를 써 주신 운동주 시인의 위대함과 감사함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다.”와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MBC 스페셜 : 가을 운동주 생각>은 한국 유학생 출신 기시 카나코가 운동

주의 일본 행적을 추적하는 내용과 일본의 운동주 독자들 이야기이다. 도쿄, 교토, 후쿠오카로 이어지는 운동주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일본 교과서에 운동주를 소개한 시인 이바라키 노리코, 1985년 운동주의 무덤을 최초로 발견하고 일본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오오무라 마쓰오 교수,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쿄모임 대표 야나기하라, 후쿠오카 운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 대표 마나기 미키코 등의 독자를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를 통해 운동주를 만나 그의 삶을 알게 되고, 일본인으로서 눈물로 미안함을 표하는 것이었다. 특히 운동주 생전 마지막 사진을 찍은 교토 우지강 다리 곁에 기억과 화해의 시비를 세우는 교토의 운동주 시비 건립 과정을 취재하고, 저항시로만 알려진 운동주 시에 국경을 넘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인터뷰를 삽입했다. 다크에 소개된 일본인 애독자들은 운동주를 통해 자신들의 전쟁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운동주에게서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는 운동주를 한국의 민족시인을 넘어 평화라는 인류 모두의 숙제를 일깨워주는 상징적 존재로 승화시키는 일본 독자들의 시각을 전달하면서, 운동주의 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확인시키자는 방영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2000년 후반부터 운동주 다크멘터리는 생애의 소개와 죽음의 비밀로부터 한일간의 화해와 인류 평화의 상징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민족시인 운동주의 저항 이미지보다는 독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평화의 이미지로 확장되어 간다. 국정교과서와 획일적 학교 수업에서 형성된 민족시인으로서 일방적 이미지 전달보다는 국적에 상관없이 독자가 직접 운동주의 작품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로 시인을 불러내는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3. 운동주와 노래하다 –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

유튜브에서 ‘운동주’를 검색하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등장하는 검색어 중 하나가 ‘운동주 서시’와 ‘운동주, 달을 쏘다’이다.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를 극장에 가지 않고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저작권 때문에 전체 공연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검색 첫 화면에 가장 먼저 나오는 13분 짜리 ‘2019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과 주인공 박영수의 ‘달을 쏘다’, 중창 ‘시를 쓴다는 것’, ‘별 헤는 밤’ 시낭송 등을 들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많은 곡은 5년간 18만회에 달하는 ‘달을 쏘다’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의 이미지에 익숙한 독자들 앞에 제목에 등장한 것은 다소 생소한 ‘달’이다. 하지만 ‘달’이라는 시어는 운동주 작품 10편에 등장하는 데, 그중에서도 「달을 쏘다」라는 산문에만 5번이나 반복해 등장한다. ‘달’을 모티브로 <운동주, 달을 쏘다>는 2012년 서울예술단에

서 처음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린 이래 2017년까지 거의 매해 무대에 올려진 창작 뮤지컬이다.⁸⁾ 동주는 왜 달을 쏘려고 했을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달, 여기서 ‘달’은 내면을 보는 감시의 시선이요 스스로 갇힌 자의 자기검열이기도 하다. 바깥에서 자아를 감시하는 그 무엇-도덕이나 규율-을 깨부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 동주는 무사가 되어 화살을 쏜다. 너는 총을 쏘라, 나는 시의 화살을 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울처럼 등글고, 우물처럼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기도 하다. 친근해서 화도 내고 때려보기도 하는 그런 친구 같은 달이 어느 가을밤 동주의 곁을 스치울 때 이 작품은 산문으로 쓴 ‘자화상’이 된다. <윤동주, 달을 쏜다>에서도 무대 위의 달이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달 아래에서 부르는 동주의 자화상이다.

<윤동주, 달을 쏜다> 뮤지컬 넘버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한 곡도 윤동주의 시를 그대로 가사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자체가 노래이기에 거기에 또 곡을 붙이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대신 「팔복」, 「십자가」, 「서시」, 「별 헤는 밤」 등 8편의 시를 배우들이 낭송한다. 뮤지컬 1부는 1943년 취조실에서 시작해 연희전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1942년 독일 시점까지 이어진다. 2부에서는 다시 취조실로 돌아가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 <동주>와 시간 구조가 유사하지만 간도 유소년기는 생략하고 있다. 두 작품의 인물 구조도 유사해 동주와 절친 송몽규, 강처중, 정병욱 세 실존인물이 한 축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가상 인물로 동주의 여자 이선희가 등장한다. 그들 사이 존재하는 공통점은 모두가 동주의 독자들이라는 점이다. 동주의 세 친구는 항상 동주의 시를 미리 읽어보는 첫 번째 독자들이다. 사촌이자 친구 송몽규는 두말할 것 없이 소학교 시절부터 문집을 만들며 서로 작품을 바꿔 읽던 동주의 가장 오랜 독자로 누구보다도 동주의 재능을 아끼고, 신춘문예도 통과한 문학도로서의 수준을 갖춘 동주의 애독자이다. 강처중은 동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유고집 발간에 앞장 선 애독자이다. 「쉽게 씌어진 시」를 비롯해 윤동주 시집에 실린 일본에서 쓴 시들은 강처중에게 릿교대 편지지에 적어 보낸 것이다. 윤동주 시집 초간본 발문을 쓴 강처중은 동주가 친구들에게 굳이 거부하는 일 중 하나로 “東柱 자네 詩 여기를 고치면 어떤가”하면 절대 응하지 않고 조용히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곰곰이 생각하여 시를 탄생시킬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시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⁹⁾ 수정하라는 조언에 응하지 않았어도 초고를 보여준 친구

8) <윤동주, 달을 쏜다>는 2012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한아름이 대본과 가사를 맡고, 오상준 작곡, 권호성 연출에 예술감독은 정혜진이다. 주인공 윤동주 역을 맡은 박용수는 2017년 공연까지 계속 주인공을 하고 있다.

들이 있다는 증거다. 친구들이야말로 완성 전에 초고를 읽어볼 수 있는 애독자들이다. 그들은 윤동주 시집이 발간되기 전부터 그의 시의 최초의 독자들이 되었다. 또 한 명의 애독자인 나이 어린 후배 정병욱이야말로 동주가 자필로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고 세 편 중 세상에 전해진 단 한권을 보관함으로써 우리에게 「서시」와 「별 헤는 밤」가 같은 윤동주의 시 19편을 읽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국정교과서 편집에 관여해 윤동주의 시를 전국민이 배우게 만들었다. 박영수, 김도빈, 김용한이 부른 유튜브 조회수 18,000회의 <시를 쓴다는 것>은 친구들과 동주가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동주의 문학관을 표현해준다. 이 노래는 시라는 장르를 정의하기보다는 시 쓰기 행위의 의미를 묻는다. 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반복해 던진다. ‘나에게’ 시쓰기란 일종의 자아성찰 행위이며, ‘너에게’라는 질문을 통해 ‘나’와 ‘너’ 간의 타자와의 소통 행위로서 확장된다. 나아가 ‘우리에게’라는 질문에서는 문학을 넘어 공동체에서 시가 갖는 힘, 제 나라 말과 글을 빼앗긴 민족에게 시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질문만 있고 정답은 없다. 그 답을 얻기 위한 대가로 청춘을 바꾼 청년들이 동주와 그 친구들이다. 이들의 합창은 단순히 윤동주 개인의 문학적 견해가 아니라 그 시대 문학청년들이 뼈아프게 배워가는 공동의 과제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학도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이 계속될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답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서양 속담처럼 ‘시는 무엇이다’라는 정의 대신에 이 노래는 ‘시는 무엇인가’란 영원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극장을 나선 관객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4. 언택트 시대의 랜선 축제 <윤동주 문학제>와 랜선 답사 <길 위의 인문학-윤동주 편>

발표 시, 공유할 예정입니다.

9)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70면.

Ⅲ. 맺음말 - ‘쉽게 쥐어진 시’와 독자

온라인 윤동주 읽기는 오프라인 읽기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았다. 물론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윤동주를 만난다. 책꽂이에는 아끼는 윤동주 시집이 꽂혀 있고, 종이책 교과서로 윤동주를 공부하고, 윤동주 뮤지컬을 보러 극장에 가고, 윤동주 시비와 문학관 앞에서 사진도 찍는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자들은 용돈을 모아 서점에 가거나 대출증을 들고 도서관에 가는 일 없이, 인터넷으로 윤동주 시를 검색해 찾아 읽는다. 무료로, 수고로운 발걸음 없이, 손에 ‘쉽게 쥐어진 시’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모니터와 키보드 너머에 감동이 있을지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밑줄을 그어가며 책장을 넘기는 쾌감과 질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은 과연 없는가.

온라인 시 읽기의 핵심은 어쩌면 매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문제이다. 보다 손쉽게 시와 시인에 접근하고, 간략 정보에서 전문가의 강의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이란 거대한 책의 그물망에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시의 광장에는 함께 시를 읽는 독자들이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처럼 그들마다 떠올리는 윤동주의 이미지는 다를지도 모른다. 사망 77주년이 지난 윤동주를 만나본 독자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윤동주의 친구 문익환 목사도 이제 없고, 102세 할아버지 김형식 교수를 제외하면 윤동주를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대문을 보지 못하면 더 용감할 수 있듯이, 목청을 높여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다툼이 가능해졌다. 윤동주 시는 저항 시다, 아니다 순수시다, 윤동주는 주사로 죽었다, 그런 일 없다, 동주는 한국시인이다, 아니다 중국 조선족이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등과 배를 만진 장님들이 대화를 통해 코끼리라는 퍼즐 맞추기에 성공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우리는 시의 광야에 고독히 서 있는 윤동주라는 코끼리를 찾아나선다. 시를 노래하던 시대, 시를 눈으로 읽던 시대가 독서의 대상인 시와 시인의 시대였다면, 독서의 주체인 독자의 시대의 서막이 온라인 독서의 장에서 열린다. 이제 시를 배우고 토론하는 ‘아카고라’로서 독서의 열린 활동성 모색이 온라인 시대 시 읽기의 과제가 될 것이다.

토론문

장정희¹⁾

윤동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시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 논문은 이와 같은 ‘윤동주’를 오늘날과 같은 비대면시대에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또 윤동주의 시세계가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향유되고 있는지 그 다양한 실재를 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윤동주 문학의 온라인상의 콘텐츠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유튜브의 위력은 공중과 방송에 육박할 정도 파급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동안 매체로서 유튜브를 활용한 독서교육과 문학 향유에 대한 주목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선생님의 이번 연구를 통해 유튜브로 읽는 문학 콘텐츠 읽기 연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은 유튜브 콘텐츠를 대상 연구에서 그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키워드 검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윤동주’를 검색하였을 때 약 ‘209만개’에 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윤동주 콘텐츠 중에서 ‘온라인 상의 윤동주’를 처음 만나게 될 경우 좋은 콘텐츠의 루트는 어떻게 찾아가게 될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때 조회수를 기준으로 시청자들이 콘텐츠에 접근한다면 계속 특정 유튜브에 조회수가 몰리는 그러한 특징도 발생하게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조회수 자체가 우수한 콘텐츠를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윤동주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찾아갈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윤동주’ 검색어로부터 어떻게 키워드 정보를 좁혀 나가며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방정환연구소

둘째, 개인방송으로서 유튜브와 공중과 방송으로서 유튜브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목하신 운동주 읽기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MBC TV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의 운동주 편 하이라이트 재방송’은 개인방송으로 유튜브라기 보다는 공중과 방송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방송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유튜브에 업로드한 형태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집 다큐 - 잊지 못할 운동주>(여수MBC, 2013), <MBC 스페셜 : 가을, 운동주 생각>(MBC, 2011), <특집 다큐-잊지 못할 운동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의 콘텐츠라는 점은 있지만 좀더 엄격히 보자면 방송 프로그램 연구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유튜브 콘텐츠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연구 과정에서 가졌던 고민을 비롯하여,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연구할 때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범위의 결정하는 법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운동주의 ‘온라인/현장’ 경험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운동주’를 온라인에서 접해본 것과 실제의 현장에서 접해본 공통된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차이를 느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지역 축제들이 코로나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한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 점차 최근에는 랜선 축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현장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방송 장비와 음향, 조명, 마이크, 촬영 위치 등 전반적으로 예술의 향수 감각을 살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실시간 방영에 입장하여 참가해 보아도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은 것에 실망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 축제를 위한 별도의 제작 방법 연구가 따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아동문학 및 유튜브 콘텐츠 연구가들의 역할 및 축제 주관처와의 협력 연대는 가능할지, 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에서 본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사토 유키나¹⁾

【 목 차 】

- I. 여는 말
- II. 일본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 1. 독서교육의 변천
 - 2. 초등학교의 독서활동
- III. 온라인 독서의 현황
 - 1. 온라인 독서 환경
 - 2. 온라인 독서 실천사례
- IV.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 V. 맺는 말

1) 중앙대학교

I. 여는 말

2016년 일본 정부에 의해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가 제시되었다.²⁾ Society 5.0의 사회에서는 센서를 탑재한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IoT(Internet of Things)가 실현된다. 모든 사람과 물건이 연결되어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두 가지 목표의 양립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다. 학교 교육은 이렇게 다가올 Society 5.0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이 제시하는 ‘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육의 IT화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 제시된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³⁾에서는 ‘2018년도 이후의 학교에 있어서 ICT(정보통신기술)환경 정비 방침’⁴⁾에 근거해 학습자용 컴퓨터나 대형 제시 장치, 초고속 인터넷, 무선 LAN 정비 등에 의해서 계획적인 학교의 ICT 환경 정비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이어서 2019년 12월 문부과학성은 ‘GIGA 스쿨 구상 실현에 대해’를 발표했다. GIGA는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의 약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적이고 혁신적인 입구‘을 의미한다. GIGA 스쿨 구상은 Society 5.0 시대를 살아갈 다양한 아이들을 누구 하나 남기지 않게 ‘개별 최적화된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⁵⁾ GIGA 스쿨 구상에서는 의무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이 1인 1대의 태블릿 등을 비롯한 단말기(이하 태블릿)를 사용한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책에 의한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⁶⁾ Society 5.0의 사회, GIGA 스쿨

2) Society 5.0은 수렵사회(Society 1.0), 농경사회(Society 2.0), 공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文部科學省, 「第5期科學技術基本計畫」, 2016.)

3) 文部科學省, 「第3期教育振興基本計畫」, 2018.

4) 文部科學省, 「平成30年度以降の學校におけるICT環境の整備方針について」, 2017.

5) 文部科學省, 「GIGAスクール構想の實現について」, 2019.

6) 예를 들어, 효고현(兵庫縣)에서는 「효고 어린이 독서 추진계획」에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

구상에 의한 1인 1대 태블릿과 같은 새로운 지도법이 도입되어 가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 추진 방법, 학교도서관의 학습 지원 방법 등의 기본방향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전자책 이용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富山, 2014)⁷⁾, 학교도서관에 전자책 도입에 대해 검토한 연구(植村・野口, 2020, 植村, 2020)⁸⁾⁹⁾ 등을 볼 수 있지만 초등학교의 독서교육과 전자책의 관계를 검토한 문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 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일본의 독서교육을 개관하고 ICT를 활용한 온라인독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온라인 독서를 사용한 독서교육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독서’는 일본의 교육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⁰⁾

II. 일본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1. 독서교육의 변천

제2차 세계대전 전이나 전시 중에 일본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인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회에 적용해 나가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¹¹⁾ 국민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역할이며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교육제도나 교육관이 소개되면서 교육개혁

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책 독서를 장려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兵庫縣教育委員會, 「ひょうご子どもの読書活動推進計画 第4次」, 2020)

7) 富山哲也, 「中學生の読書指導における電子書籍端末利用の可能性についての実証的研究」,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國語科教育研究: 大會研究發表要旨集』, 2014, 127頁.

8) 植村八潮・野口武梧, 『學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環境構築のための実証的研究』, 2020

9) 植村八潮, 「學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の現状と課題」, 『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 2020, 20~25頁.

10)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2017, 26頁.

11) 森美紀子, 「図書館と『読書指導』」, 『國際文化研究紀要』, 2006, (13), 1~25頁.

이 이루어져 실생활에 관계된 다양한 읽을거리를 지도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¹²⁾ 1948년 문부상(현재의 문부과학상)이 발행한 『학교도서관 이용지도(學校図書館の手引)』¹³⁾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매우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가진 시설로 강조하였으며, 학습지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시했다. 이 『학교도서관 이용지도』에서 독서지도는 아이들이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는 것, 독서를 하는 마음과 독서를 하는 능력을 길러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인 1951년 학습지도요령 국어과에서도 읽기 영역 목표는 목적에 따른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940년대의 목표였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독서에서 변화가 생겼다.¹⁴⁾

그러나, 스푸트니크 쇼크 등의 영향을 받아 교육 정책은 국가에 의한 통제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¹⁵⁾ 학교도서관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은 경험을 중시한 나머지, 기초 학력의 조하를 초래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¹⁶⁾ 각 교과는 계통성을 중시하게 되어 1953년에는 학교 도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문부성은 도서관 활용에 소극적인 자세로 도서관 활용을 위한 정책은 정채되어 갔다.¹⁷⁾

이러한 영향은 1955년 이후의 학습지도요령 국어과 읽기 영역에 관한 목표에서 ‘독해’와 ‘독서’의 두 가지로 나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독해’는 국어과 학습으로서 교과서 교재를 학급이라는 집단으로 읽는 것, ‘독서’는 가정에서 수업 외 시간에 책을 개인이 마음대로 읽는 것이며, 독서는 개인에게 맡겨져 환원되는 ‘습관’ 혹은 ‘태도’라는 풍조가 확산하였다.¹⁹⁾ 이러한 이분구조는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 많은 선행연구들²⁰⁾이 지적하는 국어교육의 ‘독해지도’와 ‘독서

12) 足立幸子, 「國語科學習指導要領における讀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人文・社會科學編, 2015. 8(1), 1~11頁.

13) 文部省, 『学校図書館の手引』, 1948.

14)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넓히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널리 책을 읽으려는 습관과 태도를 기르고 기술과 능력을 닦는 것”이 읽기 영역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15) 今井康晴, 「我が國の『教育内容の現代化』におけるブルーナー理論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 明星大學教育學研究紀要, 2008, (23), 97~106頁.

16) 木幡智子, 「學校図書館の活性化に関する考察-學校図書館活動の活性化に向けた理論枠組みの検討:活動理論を応用した學校文化の变革に向け」, 愛知縣立大學教育福祉學部論集, 2014, (62), 49~62頁.

17) 塩見昇, 『學習社會・情報社會における學校図書館』, 2004, 風間書房, 29頁.

18)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제1학년 목표는 “(4) 문장을 읽는 방법의 초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5) 문장을 읽기 위해 필요한 문자나 어휘를 익히도록 한다. (6) 쉬운 읽을거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로 제시되었다. (4),(5)는 독해, (6)는 독서에 대한 내용이다.

19) 11)

20) 예를 들어, 生野金三・豊澤弘伸(2006), 足立幸子(2015), 塚田泰彦(2016).

지도'의 이분화 된 지도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텔레비전이나 게임 등의 발달로 활자 이탈이나 짧은이들의 독서 기피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독서 교육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1년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성립, 2002년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1차 계획)'²¹⁾ 2005년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의 공포·시행 등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2006년 '교육기본법', 2007년 '학교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시됨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독서'를 촉진하려는 법적 정비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2008년 국어과 학습지도요령에서 예전에는 지도 내용에 대한 언어활동의 일부였던 독서에 관한 내용이 '지도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독서 활동에 필수인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독서 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학습·정보 센터'의 역할을 가질 것을 명확히 하며, 더욱 주체적인 독자를 육성할 것이 지향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독서는 학습의 필요한 요소이며, 독서를 학력으로 보는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인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 독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있다.²²⁾ 개정 전까지 '독서 활동의 충실'로 제시된 독서에 관한 내용이 '독서 지도의 개선·충실'로 문언이 변경된 것은 더욱 독서지도를 촉진하려는 것을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독서에 관한 항목이 '지식 및 기능'의 하나로 위치를 잡고 [표 1], 독서를 계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읽기' 영역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언어활동이 예시 되어 있다 [표 2].²³⁾ 이 언어활동에서는 책 등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얻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정 전에 이어서 아이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면서 일상의 독서로 이어가려는 것을 지도의 유의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어과의 학습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독서로 이어질 수 있게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제2차 계획, 2013년에 제3차 계획, 2018년에 제4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22) '독서는 국어과에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능력을 보다 높이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社, 2017, 10頁.)

23) 9) 200쪽, 206쪽 에서 저자가 번역, 작성

여기까지 일본 독서교육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 ‘독해 지도’, ‘독서 지도’라는 두 가지 지도관을 가지면서 독서 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독해가 ‘능력’으로 파악된 데 반해 독서는 ‘태도’로서 강조되어 왔다.²⁴⁾ 그러나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 독서의 역할이 재확인되며, 이어 201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독서가 국어과의 지도사항으로 위치하게 된 것을 감안할 때 독서는 ‘태도’가 아니라 학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서에 대한 이분구조의 학습관은 현재까지도 일본 독서교육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분구조가 반드시 독서 생활에 활용되지는 않았다는 지적²⁵⁾도 고려하면 학력으로서의 독서지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1] [지식 및 기능] (3) 일본의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 ‘독서’

제1학년 및 제2학년	제3학년 및 제4학년	제5학년 및 제6학년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다양한 책이 있음을 알 것.	폭넓게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독서가 자신의 생각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일상적으로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독서가 자신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

[표2] ‘읽기’영역에 대한 언어활동 예

제1학년 및 제2학년	제3학년 및 제4학년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해, 도감이나 과학적인 것에 대해 쓴 책 등을 읽고, 알게 된 것 등을 설명하는 활동.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사전이나 도감 등에서 정보를 얻어 알게 된 사실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활동.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복수의 책이나 신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거나 생각한 것을 보고하는 활동.

2. 초등학교의 독서활동

① 학교도서관 운영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 직원으로 주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사로 채용된 자가 학교 내의 역할로서 그 직무를 담당한다. 학교도서관 자료의 선택·수집·제공이나 아이들의 독서활동에 대한 지도,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이용 지도계획을 입안·실시한다.²⁶⁾ 따라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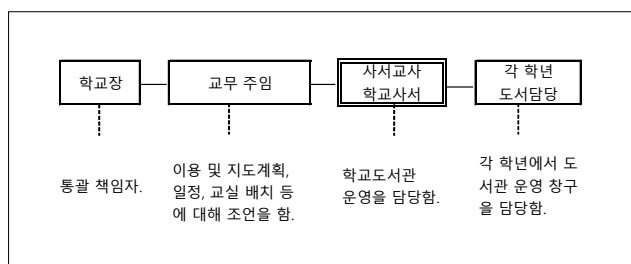
24) 11)

25) 瀧浪常雄, 「子どもの読書活動における『楽しみ読み』に関する考察」, 名古屋學院大學論集 人文・自然科學篇, 2020. 57(1), 15~23頁.

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운영·활용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사서’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과 교직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중심으로 학교장, 교무주임, 학년 내 도서 담당 등의 학교 내 연계로 학교 전체의 독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1].²⁷⁾

학급 담임은 학년도서관 담당이나 사서교사, 학교 사서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이나 수업에서 필요한 도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학교의 독서에 대한 조직적인 구조로 인해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을 계획적,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학교 내 도서관 운영 조직 예]



② 교과학습에서의 독서

국어과에서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실천해 왔다. 읽어주기, 비교 읽기, 평행 독서, 지정 독서, 동작화, 역할극 등을 시작해서, 아이들의 독서 영역을 넓히는 등의 목적으로 동일 테마나 동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나가는 활동인 북 토크(Book Talk), 문제를 내는 애니메이터의 진행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해결하면서 스토리나 등장인물의 심정을 파악해 가는 활동인 애니메이션(Animacion), 어느 하나의 이야기를 외워 그림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말로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등이 있다. 또한 미술과와 관련해서 책에서 읽어낸 풍경이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서감상화 그리기 활동도 있다.

독서를 국어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관련지어 지도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받아 이과(理科)나 사회과(社

26) 文部科學省, 「學校図書館 司書教諭について」, 2012.

https://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sisyo/1327733.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27) 小森茂・松野 洋人, 『キーワードでわかる新國語科』, 2000, 國土社, 160頁 를 참고로 작성.

會科)에서는 주제 및 학습내용 심화를 위한 조사활동이 일반적으로 실시되어 있다. 또한 교과 외의 학습인 횡단적, 종합적 학습과 탐구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학습(総合的な学習)에서는 자신의 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하나로 독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에서 독서는 아이들의 주체적·협동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③ 특별활동에서의 독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독서교육이 추진되는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도 특별활동에서의 독서활동이 활발해졌다. 특별활동은 교과목이 아니라 교과 외에 해당하는 학급 활동, 아동회 활동, 클럽(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를 말한다. 주로 학급 활동이나 아동회 활동에서 독서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아침에 독서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특색 있는 독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활동에 대해서 특색 있는 활동을 한 학교가 문부과학 대신에 의해서 표창되는 「레이와 3년도(2021년도) 아이의 독서 활동 우수 실천교」로 선택된 가나가와현 아즈기시의(神奈川県厚木市)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하고 있다.²⁸⁾

- 아침독서 (아침 10분간 전교 일제히 독서를 교실에서 진행.)
- 담임이 읽어주기, 북 토크 (아침독서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이 책을 읽어주거나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타 학년· 타 교실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도서위원 · 교원의 추천 책 소개 (추천 책 소개글을 도서관 앞에 게시함.)
- 장마의 독서 주간, 가을 독서 주간 설정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서포를 배포.)
- 도서위원회의 활동 (추천 책의 팝 포스터 만들기, 도서관의 룰북 작성)
- 도서위원회에 의한 읽어주기 (저학년)
- 지역 자원봉사자가 아침독서 시간에 읽어주기 (전학년)

도서위원회는 5,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특별활동 ‘아동회 활동’ 중 하나로, 각 학급에서 정해진 인원이 소속되어 학교 내 독서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지도는 사서교사나 학교사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실시하고 있다. 지

28) タウンニュース, 神奈川県厚木市立愛甲小学校 読書活動で文科大臣表彰, 2021-05-14.
<https://www.townnews.co.jp/0404/2021/05/14/574532.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역 자원봉사의 읽어주기에는 매주 보호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교실을 찾아 책이나 종이 연극, 낭독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단의 독서활동(학교도서관 지원, 읽어주기 활동 등)은 가나가와현 초등학교 82%에서 실시되었고,²⁹⁾ 많은 학교에서 지역과 협력을 하면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원의 부족이나 지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지역도 있어 독서 활동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기초학력의 보장으로 서 아침독서가 아침학습으로 변경되는 학교나, 노동 시간문제로부터의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독서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 삭감되어 가는 추세도 보인다.

Ⅲ. 온라인 독서의 현황

1. 온라인 독서 환경

1) 1인 1대 태블릿을 실현하는 GIGA 스쿨 구상

2019년 12월에 제시된 GIGA 스쿨 구상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2023년도까지 아이들 개개인이 각각 태블릿 등의 단말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한 정책이다. ICT 활용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배움을 보충하고, 새로운 시대의 배움을 뒷받침하는 목적이 있다.

2021년 8월 문부과학성 보고에 따르면, 공립 의무교육 과정의 학교³⁰⁾ 가운데, 96.1%의 지자체에서 1인 1대의 학습용 태블릿과 인터넷 연결 등의 학습 환경이 정비되었다.³¹⁾ GIGA 스쿨 구상이 발표된 2019년에는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5.4명³²⁾이었던 것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태블릿 정비가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용 태블릿의 이용 개시 상황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중 84.2%가 모든 학년에서 태블릿을 이용 및 활용이 시작하고 있고, 11.9%가 일부의 학년에서 태블릿을 이용 및 활용을 개시하고 있다 [그림 2].³³⁾ 95%를 넘는 초등학교에서

29) 神奈川県, かながわ読書のススメ～第四次神奈川県子ども読書活動推進計画～, 2019.

30) 일본의 의무 교육과정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특수학교)의 초중 학부를 말한다.

31)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1812 중, 1742(96.1%)가 학습 환경이 정비되었다.

(文部科学省, 端末利活用状況等の実態調査(令和3年7月末時点),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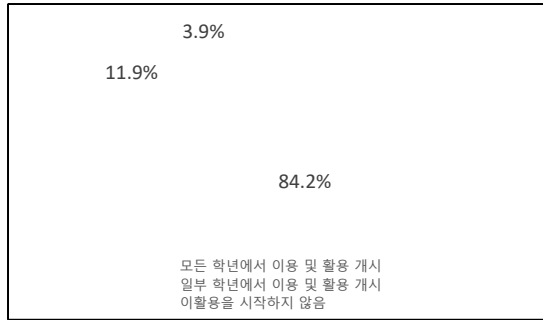
32) 文部科学省, 学校における教育の情報化の実態等に関する調査結果, 2019.

33) 30)

태블릿의 이용 및 활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IGA 스쿨의 실현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태블릿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ICT활용 상황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보면 PC 나 태블릿은 정비되어 수업 외 업무(문서 작성, 평가 등)에서 활용되어 있지만 수업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³⁴⁾ 앞으로 수업에서 원활하게 태블릿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태블릿 활용에 대한 이해와 스킬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초등학교 등의 단말기 이용 및 활용 상황 (n=19,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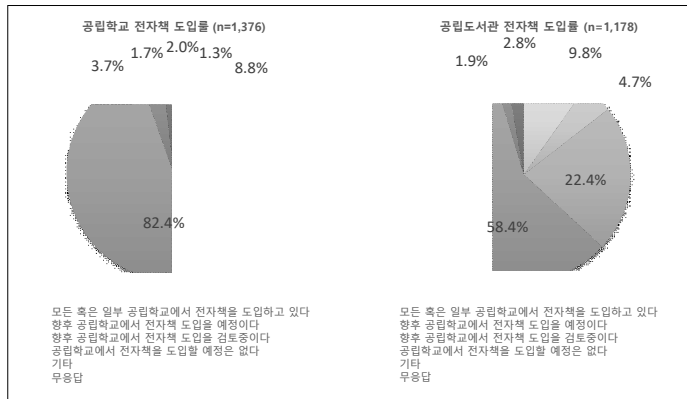
2) 전자책 이용현황

문부과학성은 지자체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점에서 전자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³⁵⁾

34) 日高純司・小林博典, 「GIGAスクール構想の實現に向けた校内研修の推進に關する研究」, 『宮崎大學教育學部紀要』, 2021, (96), 1~14頁.

35) 文部科學省, 『令和2年度 子供の讀書活動の推進等に關する調査研究』, 2021, 2頁.

[그림 3] 공립학교 및 공립도서관 전자책 도입률



그 결과 전부 또는 일부 공립학교에 전자책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였다. 태블릿 이용 및 활용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의 도입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1%에만 한정되어 있고 80% 이상의 학교는 향후도 전자책을 투입할 예정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공립학교 전자책 도입에 대한 과제는 「전자책 구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66.9%)」, 「전자책 구입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31.7%)」, 「전자책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2.3%)」 등, 예산이나 인재의 관점에서의 과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학교 층의 ICT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17.3%)」, 「이용자 강의 ICT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17.3%)」 등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걸림돌도 들 수 있었다. 환경 정비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GIGA 스쿨의 추진에 의해 태블릿의 유무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인터넷 환경, 통신 문제 등의 과제가 남는 것이다. 우에무라(2020)는 학교도서관의 전자책 미도입 문제에 대해 전자책 이용에 해당하는 문제점이나 과제 추출이 미흡하다는 점, 사서교사·학교사서에 대한 연수 커리큘럼이 확립되지 않은 점, 도서관 자료의 회계처리 문제와 그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의 전자책 도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공립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 도입의 검토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보고에서 공립 도서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전자 서적이 도입되고 있는 도서관은 9.8%이다. 공립학교에 비하면 도

36) 8)

서의 전자화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자책이 종이책처럼 이용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30%에 가까운 자치체가 향후 전자책의 대출을 예정·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공립학교와 같이, 「전자 서적 도입의 예산이 부족하다(67.4%)」라는 이유가 전자책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입 후에는 「적당한 전자 서적의 콘텐츠가 적다(67.8%)」라는 걸림돌이 가장 많다. 전자책의 출판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적합한 전자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전자도서관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초등학교의 온라인 독서 환경은 태블릿이라는 도구는 정비되었지만, 전자책 정비는 아직 미흡하고 온라인 독서를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황이다.

2. 온라인 독서 실천사례

문부과학성 ‘2020년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³⁷⁾에 보고된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봤다.

1) 토치기현 야이타시 (栃木県 矢板市)

주체 : 야이타시 교육위원회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학교 전자도서관을 개설했다. 대상이 된 지자체에서는 GIGA 스쿨에 의한 교육용 태블릿은 2020년 9월에 배포가 완료되었다. 초등학교생들의 독서량을 개선하는 타개책으로서 전자도서관을 학교에 도입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운용 개시로부터 3개월에 6000건 이상의 대출이 있었다. 특히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그림책은 인기를 끌며, 추가구입으로 이어졌다. 아침독서와 국어 시간에 전자책을 활용하거나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향후, 북 토크나 비브리오 배틀의 이벤트 개최, 타교과에서의 조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2)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熊本県 熊本市)

주체 : 구마모토 시립도서관

2019년 11월 구마모토 시립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을 도입했다.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독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이용 카드

37) 34)

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집에서든 전자도서관에 접속해 독서가 가능해졌다. 시립도서관 이용률은 10%이지만 전자도서관은 4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태블릿의 정비에 따라 향후 읽어주기 기능이 붙은 그림책이나 영어 텍스트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어갈 예정이다.

3)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静岡県 熱海市)

주체 : 아타미 시립 도서관

2018년 12월 아타미 시립도서관에 전자책을 도입했다. 지리적으로 도서관에서 거리가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초중학교와 연계해 독서 추진에 힘썼다. 전자도서관의 효과적 이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음성이 딸린 영어 그림책을 태블릿에서 모니터에 비춰 해설하는 등 아침독서를 활성화했다. 전자책을 통해 원어민 영어로 그림책을 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이질감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례를 정리 하면, 1)아타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전자도서관이 개설된 선진적인 사례이지만 아침독서나 국어 시간 사용에 한정되어 ‘전자책으로 읽는 것’이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었다. 2), 3)의 사례는 시립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 전자도서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온라인 독서를 만나는 첫 단계이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은 아직 시작단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계약하여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되어 있다.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School e-Library(<https://www.schoolelibrary.info/>)’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자책 정액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유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COVID-19의 인한 학교 휴교 등에 영향을 받아, 전자책 도입을 검토할 지자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전자 도서관·전자책을 공립학교에서 이용하는 방안이나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움직임은 아직 미비하다. GIGA 스쿨 구성이 촉진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1인 1대의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지만 태블릿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디지털 교과서에 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82.4%가 “향후 전자책을 도입할 예정은 없다”라고 대답

하고 있으므로[그림3], 우선은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 그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여기까지 확인한 일본의 독서교육, 그리고 온라인 독서의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독서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독서’는 앞으로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은 명확하다. 교육현장 밖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전자책이 Society 5.0의 사회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미래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독서도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

국어과 수업에서는 온라인 독서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 방법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전자책의 유용성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소재에 맞춰 진행되는 평행독서에서는 그동안 책 수량의 한계로 학급별로 돌아가며 읽어야 했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된다. 또 교과서에 일부만 실렸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아이는 전자도서관을 통해 전문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독서지도에서 진행되는 북 토크나 아나마시온에서는 관심을 가진 책을 바로 전자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독서 교육에 온라인 독서의 이점을 더한 수업이 이어나는 것을 기대한다.

특별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서는 학교전자도서관이 일반화되더라도 앞서 특별활동에서 소개한 도서위원회 활동, 지역 교류인 자원봉사자의 책 읽어주기 등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독서라는 인터넷 환경을 최대한 살린 새로운 독서활동의 기본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개인 클라우드 상에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책이나 읽고 있는 책을 축적해 나가는 것, 혹은 도서위원회나 자원봉사자가 권장한 책을 클라우드 상에 보관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학교 전자도서관에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출 이력을 활용해 아이들 개개인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거나 학교 내 대출 순위를 곧바로 화면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량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독서 현황에서 확인했듯이 학교교육에 전자책이 도입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전자책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문부과학성이 학교도서관에서 전자책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2016년이며³⁸⁾, 이어서 2017년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 전자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도서관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며 전자책을 독서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³⁹⁾ 전자책의 필요성과 이용 및 활용에 대해 검토되는 가운데 전자책을 이용한 독서를 ‘독서’에 포함한다고 명시된 것은 2018년의 일이다.⁴⁰⁾ 즉, 전자 서적에 의한 독서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앞으로 온라인 독서가 도입되고 활발한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독서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독서교육은 현재까지도 ‘독해지도’와 ‘독서지도’의 이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서의 지도방법 및 평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라는 지적⁴¹⁾이 있는 것처럼, 독서가 지도해야 할 [지식 및 기능]으로 제시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독서에 대한 이해를 학교 내에서 공유하고 독서지도를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력의 하나로서 독서의 지도를 학교 전체로 실행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가 명확해짐으로써 전자책의 이용 및 활용법에 대한 의론이 활발해 질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종이책을 읽는 것이 독서라고 하는 독서관⁴²⁾이, 교사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관에서는 독서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1인 1대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과서는 태블릿으로, 독서는 종이로’라고 하는 지도 방법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독서관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독서가 무엇인지 독서 교육의 이해와 함께 교내에서 공통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독서가 초등학교의 독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자책 이용

38) 文部科學省, 「これからの学校図書館の整備充実について(報告)」,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15/houkoku/1378458.html (인출일:2021년 9월 24일)

39)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도서 자료외, 잡지, 신문, 시청각 자료(CD, DVD 등), 전자 자료(CD-ROM, 네트워크 정보 자원(네트워크를 매개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콘텐츠) 등), 파일 자료, 팜플렛, 자교 독자적인 자료, 모형 등의 도서 이외의 자료가 포함된다”고 제시되었다.(文部科學省, 『学校図書館カイトライン』, 2017.)

40) 文部科學省, 第4次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について, 2018.

41) 11)

42) 8)

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피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인 1대 태블릿의 교육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전자책을 사용한 독서 교육을 현장에 활발히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이들이 Society 5.0 시대에 자신만의 독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이책과 전자책 각각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에 전자책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에서의 독서경험을 통해 아이들 각자가 최적의 독서나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Society 5.0에 대응하는 독서의 형태이자 독서를 즐기는 것에 이어질 것이다.

V. 맺는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 Society 5.0을 향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GIGA 스쿨 구상으로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1명 1대의 태블릿을 도입되고 주체적으로 깊은 배움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독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 나가는가의 의문을 출발점에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까지의 일본 독서교육의 변천에 대해 개관했다. 일본의 국어과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독해교육"과 "독서교육"의 이분 구조가 유지되고, "독서"는 태도의 문제로 파악됐지만, 점차 학력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서가 [지식 및 기능]으로 제시되어 독서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천 사례로 각 교과나 특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에 온라인 독서의 환경에 대해 학교전자도서관이나 전자책의 이용 현황에서 살펴봤다. 태블릿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태블릿을 이용하고 독서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정비는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전자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용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이나 연수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에서의 온라인 독서과 독서교육에 대해 고찰했다. 향후 과제로 '독서 교육'과 '독서'에 대한 인식을 교사 자신과 학교 내에서 공통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공통 인식 속에서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가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학습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자책에 관한 걸림돌의 해결에 대한 연구, 초
등학생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등 온라인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책, 전자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서
배우면서 학생 자신에 최적의 독서 방법을 찾아 학습에 활용하거나 즐기는 독
서를 위한 독서지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헌과 학습지도요령, 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GIGA스쿨이 추진된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의 독서지도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인식을 질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서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植村八潮・野口武悟, 『學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環境構築のための
實証的研究』, 2020.
- 小森茂・松野 洋人, 『キーワードでわかる新國語科』, 國土社, 2000.
- 塩見昇, 『學習社會・情報社會における學校図書館』, 風間書房, 2004.
- 文部省, 『學校図書館の手引』, 1948.
- 文部科學省, 『小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國語編』, 東洋館出版
社, 2017.
- 文部科學省, 『學校図書館カイトライン』, 2017.
- 足立幸子, 「國語科學習指導要領における讀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
大學教育學部研究紀要 人文・社會科學編』, 2015. 8(1), 1~11頁.
- 生野金三・豊澤弘伸, 「讀書教育論について」, 『白鷗大學論集』, 2006, 20,
(2), 123~143頁.
- 今井康晴, 「我が國の『教育内容の現代化』におけるブルーナー理論の受容に關
する一考察」,
明星大學教育學研究紀要, 2008, (23), 97~106頁.
- 植村八潮, 「學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の現状と課題」, 『コンピュータ&
エデュケーション』,
2020, 20~25頁.
- 木幡智子, 「學校図書館の活性化に關する考察--學校図書館活動の活性化に向け
た理論枠組みの検討:
活動理論を応用した學校文化の变革に向け」, 『愛知縣立大學教育福
祉學部論集』, 2014, (62), 49~62頁.
- 瀧浪常雄, 「子どもの讀書活動における『楽しみ読み』に關する考察」, 『名古屋
學院大學論集 人文・自然科學篇』, 2020. 57(1), 15~23頁.
- 富山哲也, 「中學生の讀書指導における電子書籍端末利用の可能性についての
實証的研究」,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國語科教育研究: 大會研究發
表要旨集』, 2014, 127頁.
- 日高純司・小林博典, 「GIGAスクール構想の實現に向けた校内研修の推進に關
する研究」, 『宮崎大學 教育學部紀要』, 2021, (96), 1~14

頁.

森美紀子, 「図書館と『読書指導』」, 『国際文化研究紀要』, 2006, (13), 1～25頁.

兵庫縣教育委員會, ひょうご子どもの読書活動推進計画 (第4次), 2020.

文部科學省, 第5期科學技術基本計画, 2016.

文部科學省, 平成30年度以降の學校におけるICT環境の整備方針について, 2017.

文部科學省, 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 2018.

文部科學省, 第4次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について, 2018.

文部科學省, GIGA スクール構想の實現について, 2019.

文部科學省, 學校における教育の情報化の實態等に関する調査結果, 2019.

文部科學省, 令和2年度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等に関する調査研究, 2021.

文部科學省, 端末利活用状況等の實態調査(令和3年7月末時点), 2021.

文部省, 「昭和26年(1951)改訂版 小學校學習指導要領 國語科編」, 1951.

<https://erid.nier.go.jp/files/COFS/s26eja/index.htm> (인출일: 2021년9월13일)

文部科學省, 「學校図書館 司書教諭について」, 2012.

https://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sisyo/1327733.htm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文部科學省, 「これからの學校図書館の整備充實について(報告)」,

[h t t p s : / / w w w . m e x t . g o . j p / b _ m e n u / s h i n g i / c h o u s a / s h o t o u / 1 1 5 / h o u k o k u / 1 3 7 8 4 5 8 . h t m l](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15/houkoku/1378458.html)
(인출일: 2021년 9월 24일)

タウンニュース, 「神奈川縣厚木市立愛甲小學校 読書活動で文科大臣表彰」
(2021년05월14일),

<https://www.townnews.co.jp/0404/2021/05/14/574532.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초록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에서 본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사토 유키나

일본 정부가 제시한 Society 5.0 사회를 대비한 GIGA 스쿨 구상으로 인해 의무교육 학교에 1명 1대 태블릿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독서를 사용한 독서교육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연구문헌,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일본의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의 현황에 대해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온라인 독서 환경에서의 독서교육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독서는 학력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온라인 독서 환경은 발전 도중임을 확인했다. GIGA 스쿨 구상에 따른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독서교육"과 "독서"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관점에서도 전자책을 포함한 학습 환경의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앞으로 1인 1대 태블릿이 일반화된 학교 현장에서 독서활동 및 교사 인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 GIGA 스쿨, 온라인 독서, 전자책

ABSTRACT

A Study on Online Reading from the Viewpoint of Reading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Yukina SATO

(Doctor's Program,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ading education in using “one by one” tablet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of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GIGA) school concept.

Based on research literature and survey reports,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an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reading were investigated, and the future issue of reading education was discuss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ading is considered important as one of the factors that form academic achievement in Japan, but the online reading environment is still in its infancy.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reading education in line with the GIGA school concept, teachers need to reflect on their perception of “reading education” and “reading”. In order to develop children's ability to choose their own read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arning environment, including e-books.

In future work,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ow reading education have changed in schools where “one by one” tablet has become widespread, and how teachers perceive these changes.

Keywords : online reading, Japanese elementary school, Reading education, GIGA school concept, e-books in education

토론문

박종진¹⁾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근의 변화와 움직임을 초등학교 독서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해주신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일본 독서교육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검토하고 온라인 독서까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Society5.0’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도래할 초스마트사회(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미래사회²⁾)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4차 산업 혁명으로 언급하는 변화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Society5.0’사회를 대비한 ‘GIGA스쿨 구상’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발표문 시작 부분에서 의무교육 학교에 1인 1태블릿까지 보급된 사례는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움직임의 하나로 느껴져 놀라기도 했고요. 과거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서 사회가 이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회, 학교, 가정에서 여러 문제가 가속화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함께 공유되어야 할 문제의식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교육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은 일본 정부의 미래 사회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본 독서교육의 변천을 개관하고, 이어서 초등학교 독서활동 상황, 온라인 독서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발표문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공감하며 여기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적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 제목에서 언급한 ‘온라인독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1) 연세대학교

2)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 산업구조비전, 2017.5

물론 발표문에서는 ‘독서’에 대해 ‘책 읽는 것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 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읽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온라인독서 환경’과 ‘온라인 실천사례’를 설명했기에 충분히 미루어 짐작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중에 ‘독해’와 ‘독서’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독서’라는 용어와 함께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 ‘전자도서관’ 등 전자책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읽는 것이 ‘온라인독서’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온라인독서’에서 전자책은 핵심 콘텐츠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자책이나 종이책이냐가 아닌 보다 넓은 시야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기간 중 ‘온라인 독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물리적으로 등교가 차단된 속에서 수업을 속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단말기나 인터넷 연결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에 맞추어 ICT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온라인독서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몇몇 지자체의 사례 이외에 온라인 독서는 아직은 일상화되지 못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자책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공립학교 및 공립도서관의 전자책 도입률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최대 원인으로 ‘전자책 구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66.9%)’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태블릿 보급은 국가(교육) 예산이 사용되었고, 태블릿 활용을 위한 전자책 도입은 지자체나 각 공립학교(혹은 공립도서관) 자체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지요?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선 현장교사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보다 ICT환경에 익숙치 않은 교사들도 있을 터인데, 온라인독서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하니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실행연구

: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의 <오늘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윤경¹⁾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1. 실행연구
2. 연구설계

III. 연구결과

1. 문제 발견
2. 계획
3. 실행
4. 성찰
5. 계획수정

IV. 결론

1) 말글살림연구소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옛이야기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옛이야기가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화되는지,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옛이야기’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옛날에 지어진 이야기’, ‘옛날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자체가 옛것인 이야기’, ‘예로부터 전해져온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다(구광본, 2011)²⁾. 본고에서 말하는 ‘옛이야기’란 전래동화³⁾라고도 불리는 구비문학 중에서도 전래동화집 또는 전래동화 그림책 등으로 텍스트화된 이야기들로 한정한다. 여러 옛이야기 중에서 본고의 주요 연구참여자인 연구자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4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서사무가인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한 <오늘이>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였다.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관련된 논문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옛이야기의 문화적 원형성에 대한 연구(김만수, 2020),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 및 활용에 대한 연구(권혁래, 2019; 윤지수, 2013; 이미연, 2012), 현대화된 옛이야기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곽영미·현은자, 2015)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옛이야기의 디지털화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시대의 구비문학 재인식에 대한 필요성(임재해, 2006), 디지털 구비문학의 3차 구술성(임형택, 2017), 구비문학의 디지털 서사화(박유희, 2005; 이재홍, 2011, 2012) 등이 있다. 옛이야기의 디지털화 및 현대적 변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옛이야기의 문화적 원형성,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의 필요성, 이야기와 현대화된 옛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

2) ‘옛이야기’라는 용어는 ‘옛날이야기’와 혼용되고는 하는데, 옛날이야기가 ‘옛날에 대한 이야기’인 반면 옛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옛것인 이야기’이다. 옛이야기는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향유하고 전승한 구비문학이며, 구비문학은 새로운 매체 환경에 들어선 오늘날, 문화적 원형으로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나아가 미래문학에 두루 걸쳐 있는 보편적이고도 기초적인 문학의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구전 민담과 민담의 속성 및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모든 서사문학을 문학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지칭할 수 있는 장르 용어로 ‘옛이야기’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구광본, 2011: 157, 160, 177).

3) 엄밀히 말하면 옛이야기 자체가 동화(童話)라고 할 수는 없다. 옛이야기는 구비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전통적 생산 및 수용주체는 어른(성인)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그릇된 욕망에 대한 인과응보적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근대에 옛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구술적 ‘민담’이 문자적 ‘전래동화’로 각색되면서 욕망, 잔인함, 노골적 표현 등은 삭제되고 어린이를 수용주체로 하기에 알맞게 순화되었다.

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이야기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은 텍스트화 이전의 구비전승, 즉 1차 구술성의 특징을 지니는데, 텍스트화 된 구비문학은 서사 중심의 문자성이 더해지면서 마치 소설처럼 변하며 본연의 단순성과 환상성을 잃어 왔다. 연구 전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옛이야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보기와 듣기·말하기가 결합된 영상성(3차 구술성)의 특징을 지닐 것이고, 특히 유튜브 등 1인 제작 영상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영상으로 구현된 옛이야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아닌 거대 콘텐츠 기업(예. 캐비키즈, 핑크퐁)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텍스트화 된 구비문학을 형형색색의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1]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예시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수용주체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는 옛이야기 영상의 주된 향유주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는 데 있다. ‘옛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미 ‘전래동화’가 전제되어 ‘아이용’이라는 수용층이 결정되고, 대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보여주는 주체는 부모들이며, 디지털 기기로 아이들에게 짧게는 3분(1~2편, 단편형), 길게는 1시간(여러 편, 모음형) 정도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 상황은 주로 부모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육아 중 잠시 쉬는 때이다.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선호하는 캐릭터(뽀로로, 또봇, 카봇, 시크릿 슈즈 등)나 분야(공룡, 자동차, 만들기 등)가 생겨서 부모가 틀어주는 콘텐츠보다는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와 실현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기존의 옛이야기 디지털 영상과는 다른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

하여 옛이야기의 새로운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는 어떻게 제작되는가?

둘째,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실행연구

1) 실행연구의 개념 및 특징

본 연구에서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는 ‘실행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탐구하며 변화와 개선을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행을 하는 연구”(박창민·조재성, 2016: 59)로서, “연구자 스스로가 문화 속에 위치 지어진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기술하여 개인적인 삶의 양상을 이론적으로 이해”(김영천·이동성, 2011:5)하는 연구이다. 실행연구와 현장연구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실행연구는 단순히 현장연구가 아닌, 학문적 철저함을 지닌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조용환, 2005)⁴⁾. 실행연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행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방법이다(박창민·조재성, 2016: 64-65).

실행연구를 본고의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와는 다른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개인이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⁵⁾. 둘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문외한인 연구자가

4) 1930~1940년대 Lewin에 의해 수행된 초기 실행연구는 실증적 패러다임에서 규정된 방법론적 원칙들을 충실히 따름으로서 실재와 이론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과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실증주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연구 및 사회적 실천에 기여하지 못하여 쇠퇴하였다. Stenhouse 등에 의해 실천가인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 정책과 제안을 교실에서 시험하고 실행 주체인 교사의 ‘해석’에 중점을 두면서, 1970년대에 실행연구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론이 실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양적 연구 중심이었던 이전의 실증적 실행연구와는 달리, 해석적 실행연구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실천가의 행위가 사회적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변화하는 지 초점을 두었다(Kemmis, 1988).

실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를 디지털 생태계에 노출시킴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고자 하였다. 셋째, 유튜브 기반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되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는 가장 범용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유튜버로서 어떻게 성장해가는지에 대한 평가적이고 반성적인 탐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실행연구의 유형 및 방식

실행연구의 유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대개 기술적/실천적/비판적 실행연구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술적(technical) 실행연구는 기술·공학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데, 현장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박창민, 조재성, 2016:110)이며, Lewin이 주축이 되어 빈곤, 인종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실시한 초기 실행연구의 맥을 잇는다. 실천적(practical) 실행연구는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자의 자주성과 의지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연구과정에 대한 반성 및 성찰에 중점이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숙고과정을 중시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는 반복될수록 정교화되고 문제는 명확해진다(박창민·조재성, 2016:115). 비판적(critical) 실행연구 또는 참여·비판적 실행연구는 이론화를 통한 실천의 이해뿐 아니라 실천에 기반을 둔 이론화를 통해 연구를 통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박창민·조재성, 2016:117).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재건과 인간해방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행위연구이며, 비판이론에 근거한 해방적 성격의 비판적 연구이다.

-
- 5)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지식은 게임, 코딩, 수영, 자동차 운전, 주식 투자 등 실제로 해봐야 아는, ‘실천적 지식’이다.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란 기술적(technical) 지식처럼 사실이나 규칙의 형태로 명문화될 수 없고 오직 활용하는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지식(박창민·조재성, 2016:47)을 뜻한다. 즉 실천적 지식은 가르치고 배울수 있는 것이 아닌, 전수되고 획득될 수 있는, 실천 속에서만 존재하고 부단히 실천하는 사람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Oakeshott, 1962:15)이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철저히 경험 중심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에 대한 이론이 빠삭해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튼튼해도 유튜브 계정 하나 못 개설하고, 콘텐츠 하나 제작 못하고, 구독자 한 명 확보할 줄 모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양되었다고 할 수 없고, 타인에게 가르쳐볼 수도 없다. “꼭 해봐야 아냐?”라는 사고실험이 기존 아날로그 학습 방식이라면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또는 “일단 해봐!(Just do it)”라는 행동실천이 디지털 학습 방식이다.

<표1> 실행연구의 유형별 특징(박창민·조재성, 2016을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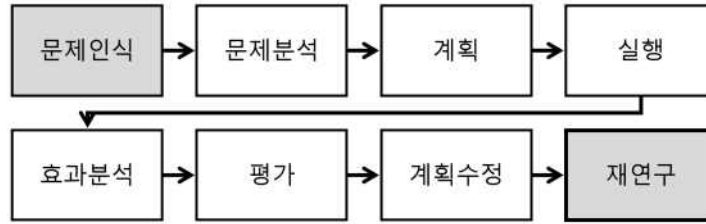
유형	연구목적	연구자 역할	연구과정
기술적 실행연구	• 효율·효과적 개선 • 전문성 개발	전문가	계획→실행→성찰→계획수정
실천적 실행연구	• 상황맥락의 이해 • 연구자 의식 변화	참여자, 성찰자	문제 인식→문제 분석→계획→ 실행→효과분석→평가→계획조정
비판적 실행연구	• 사회재건·인간해방 • 체제 비판 및 변화	공동 연대자	문제 파악→계획→실천→ 결과 관찰→성찰→계획수정

본고에서는 반성자이자 참여자인 연구자 자신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해,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속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을 위해 옛이야기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그 과정을 성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수행한다.

실행연구의 질적 연구 방식은 사례연구, 자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자기연구 기반, 통합적 연구 기반 실행연구 등으로 다양하다(박창민·조재성, 2016:138-144; Leedy & Omrod, 2005). 이 중에서 자문화기술지 기반 실행연구는 실천자이자 연구자인 본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맥락에 대해 탐구하고 개인의 주관적 체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와 연계된 사회·문화·정치적 이해를 풀어내려 할 때(Jones, 2005) 유용하다.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삶의 맥락에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자문화기술지 기반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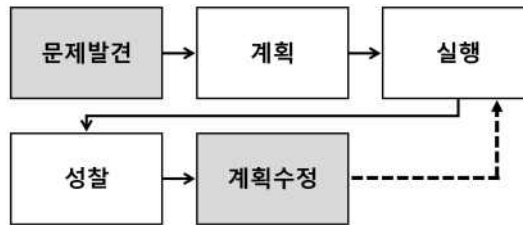
3) 실행연구의 과정

실행연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 및 출발점 찾기 > 실행 계획 혹은 가설 설정 > 실행연구의 실천과 반성 > 계획의 수정]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박창민·조재성, 2016:121). 실행연구의 세 유형 중에서도 실행연구의 과정 중에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중시하는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2]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

그런데 기존의 실천적 실행연구 과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실천적 실행연구의 성찰성과 순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순환적, 반성적, 성찰적인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를 합쳐서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3]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문제발견’ 단계는 기존의 문제인식과 분석이 합쳐진 것인데, 이는 실제 연구에서 문제인식과 분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문제발견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의 상황맥락’이 살아있는 실행연구 특성상 생활사태에서의 문제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연구문제가 도출되고, 연구가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계획’과 ‘실행’은 실행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이므로 각 단계를 그대로 살린다. ‘성찰’ 단계는 기존의 효과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 연구자의 ‘성찰’이므로 과정에서도 그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획수정 및 재연구 역시 짝말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수정 후 재연구를 안 하면 수정이 무의미하며, 재연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

획 수정 단계 후 이전의 ‘실행’ 단계로 환원되어 순환하는 구조를 모형화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렇듯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은 기존의 과정보다 간명하면서도 각 단계가 누락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순환구조가 눈에 띄도록 하였다. 실행연구의 단계들은 일회적이지 않으며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각 과정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박창민·조재성, 2016:121).

2. 연구설계

1) 연구참여자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A교수의 영향이 컸다. A교수는 구비문학의 대가로서, 서울 소재 OO대학교 국문과에 재직 중이면서 문학치료와 관련된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옛이야기로 종종 소통하던 A교수와 본인은 이전부터 옛이야기의 디지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옛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의기투합하였다. 그런데 A교수는 자신이 영상에 출연하지는 대신 옛이야기 시나리오 작성을 담당하고, 연구자는 영상의 기획, 촬영, 편집을 담당하기를 원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라는 콘셉트로 ‘옛이야기의 일상적 구연’ 상황을 그대로 찍어 올리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옛이야기의 일상적 구연보다는 옛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A교수는 불참의사를 밝혔고 연구자만 남았다.

일단 기획한 것은 반드시 시도해보는 연구자의 성향 상 혼자라도 영상을 제작하려 했으나, 디지털 기술이 서툴러서 가족의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배우자(남편)에게 촬영, 편집 등의 중책을 맡겼으나, 직장과의 병행이 어렵고 편집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빠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남편 대신 MZ세대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원주민인 연구자의 큰딸(11세)이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주민인 연구자는 딸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촬영은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킨 후 셀프 촬영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실행연구의 절차는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에 따른다.

문제발견 단계에서는 2020년 9월 즈음, A교수와 연구자가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옛이야기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인해 연구자만 이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획 단계는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기존의 옛이야기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옛이야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옛이야기 이외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실행 단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연구자와 연구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요일별로 해당일에 맞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였다.

성찰 단계는 수시로 행해졌지만, 좀 더 깊은 숙의적 성찰은 연구자의 딸이 불참의사를 밝힌 2021년 6월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나치게 연구자(엄마) 주도였으며 딸이 스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계획수정 단계는 2021년 7월에 연구자와 딸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딸을 중심으로 채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재실행 단계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자의 딸을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하되,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딸에게 촬영일지 제작을 권유하였고, 이에 딸이 촬영일지도 업로드하고 있다.

<표2> 연구절차

단계	기간	주요 활동	연구참여자
문제발견	2020.9	•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필요함 • 옛이야기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채널 필요함	A교수, 연구자
계획	2020.10	• 옛이야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기획 • 옛이야기 이외의 다양한 세계관 구축	연구자
실행	2020.11 -2021.5	• 말글살림연구소 설립_동명의 채널 생성 • 요일별로 주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연구자, 가족
성찰	2021.6.	• 지나치게 연구자(엄마) 주도였음 • 연구참여자(딸)가 다양한 콘텐츠를 원함	연구자
계획수정	2021.7.	• 연구참여자(딸)에게 채널 운영권 주기 • 연구참여자(딸)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연구자, 딸
【재실행】	2021.8- 현재	• 연구참여자(딸)의 주도로 채널 운영중 •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 촬영일지 제작	딸

3) 자료수집

여느 질적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행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양성을 중시한다. 자료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자가 아닌 다른 관점의 자료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검토의 삼각성(삼각검증)에 빗대어 ‘자료의 삼각성’이라고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성찰 자료, 현장 메모 등 참여관찰 자료, 제작된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 담화분석, MMDA가 주로 이루어진다. 기술적 분석이란 연구자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적 배경들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분석법으로, 수집한 자료 중 중요한 기록을 본문에 인용 형태로 제시하고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다(박창남·조재성, 2016:238).

담화분석(DA, Discourse Analysis)이란 ‘말은 행위(Speech is action)’라는 화행론(Speech Act)의 관점에서 화자의 말과 글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로 인간의 말이나 글에 나타난 심층적 의미, 심리, 자리매김 등을 탐구한다. 본고에서는 언어 외에 사진 및 영상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복합양식적 담화분석(MMDA)도 함께 실시하였다. MMDA(Multimodal Discourse Analysis)는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 theory)적 관점의 담화 분석 방법으로서, 말과 글 등 언어 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소리, 색깔 등 다양한 양식을 모두 담화로 간주하고 담화분석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Kress, 2012). 필자의 딸과 같은 MZ세대 디지털 원주민에게는 입말/글말과 같은 기존 언어보다 ‘영상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기존 언어보다 영상 언어가 훨씬 중시되므로(김윤경, 2021b:338), <오늘이> 콘텐츠에 대한 MMDA를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문제발견

1) 문제인식

구비문학 전공이신 A교수님과 함께 평소에 종종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대화를 나누고는 하였다. A교수와 연구자에게는 현대에 이르러 옛이야기가 더이상 구연되지 않고 영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옛이야기 소재의 콘텐츠가 기업에 의해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옛이야기 본연의 성격이 훼손된 채 영상으로만 소모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어왔다. 요즘 아이들은 검색도 문자 기반 포털이 아닌 영상 기반 유튜브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옛이야기를 유튜브로 찍어보자고 합심하게 되었다.

박사 때의 전공은 화법교육이지만 학부 때는 고전문학, 석사 때는 미디어교육을 전공했던 연구자는 말과 글이라는 언어뿐 아니라 미디어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유튜브는 소비만 했지 막상 제작은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즈음, 필자가 속한 교육연극단체에서 교육연극에 대한 유튜브를 촬영한 경험을 한 번 하고 나서는 유튜브 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교사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을 통해 해당 역량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2) 문제분석

① 연구 참여자의 문제

본격적인 촬영 전 파일럿 촬영을 위해 A교수님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A교수님은 철저한 구술을 원하셨지만, 이미 문자문화에 익숙한 나로서는 온전한 구술이 어려운 상태라서 거의 전체 시나리오를 외워야할 지경이었다. 교수님은 편안하게 구술하라고 하셨지만, 1차 구술성이 아닌, 책이나 텍스트 기반의 문자성에 익숙한 연구자로서 완벽히 자연스러운 구연은 어려운 상태였다. 게다가 특정 분

야의 대가이신 교수님과도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해도 어느 정도의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에서 민주적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공동사업의 어려움을 서로 체험하면서 A교수님이 콘텐츠 제작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으나, ‘기왕하기로 한 거,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구자 본인과 연구자의 가족이 직접 촬영해 보기로 하였다.

② 옛이야기 콘텐츠의 문제

유튜브로 ‘옛이야기’를 검색하면 주로 ‘핑크퐁’ 등 대기업 중심의 영유아 대상 콘텐츠만 가득하다.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옛이야기’를 소재로 찍은 영상은 간혹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옛이야기를 영상으로 충실히 구현한 정도였을 뿐 옛이야기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콘텐츠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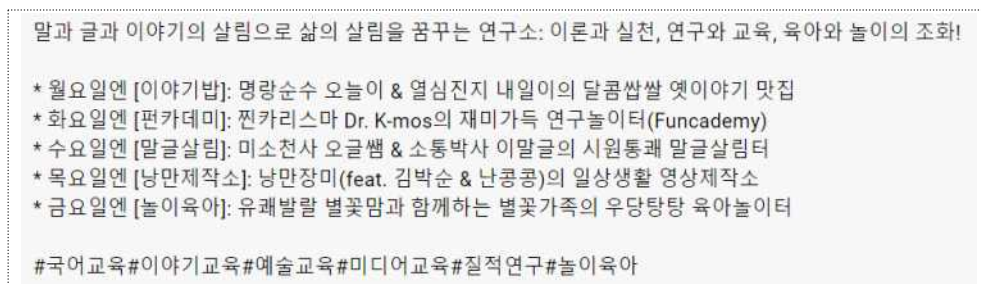
아날로그 콘텐츠와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밈(meme)이라고 할 수 있는데(김윤경, 2021a, 2021b), 옛이야기 자체의 밈은 물론 옛이야기 캐릭터의 밈도 없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옛이야기가 트랜스문화적 요소로서 각광받아 웹툰, 게임, 드라마 등의 모티브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현상과 달리,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옛이야기’는 디지털 콘텐츠 수용 및 제작에 있어 인기 없는 소재이다. 이에 연구자는 옛이야기에 현대적 감각을 부여하여 서사 및 캐릭터에 밈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다.

2. 계획

1) 채널 콘셉트 만들기

말을 하면서 구성되는 서사, 즉 ‘담화적 서사(discursive narrative)’를 전공한 연구자는 평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비선형적 측면을 보완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디지털 영상 플랫폼인데, 유튜브 콘텐츠는 비선형적이어서 ‘이야기(story)’를 담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 영상들이 연속성이 없이 파편화되어 영상들의 궁극적 지향점이나 전체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시청자가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연구자 본인이 유튜버로서 채널을 운영할 때에는 마치 게임처럼 특정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캐릭터를 설정하여

구독자들이 그 캐릭터를 키워가게 해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비선형적 디지털 콘텐츠들에 서사적 선형성을 부과하여 구독자들로 하여금 ‘다음 시간에 계속(to be continued)’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블(Marvel) 유니버스’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말글살림 유니버스>를 구축하였다.



[그림4]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의 채널 소개글⁶⁾

<말글살림 유니버스>는 초기에는 위와 같은 5개의 세계관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연구자의 부캐 ‘릴리’의 특별한 일상을 담은 토요일 [마담 릴리]와, 연구자 가족 부캐 ‘별꽃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일요일 [별꽃극장]이 추가되면서 7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말글살림 세계관이 완성되었다.

2) 콘텐츠 성격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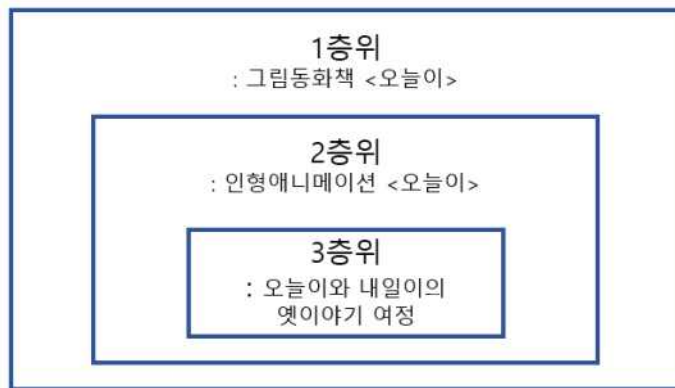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7개의 세계 중에서 ‘옛이야기’가 주 콘텐츠인 월요일 [이야기밥]을 중심으로 콘텐츠 성격 및 제작 기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야기밥’이란 ‘이야기’와 ‘밥’의 합성어로서, 한국전래동화는 물론 세계민담까지 아우르는 “갓 지은 옛이야기로 속 든든해지는 월요일의 은하계”를 창출하고자 했다. 명랑하고 순수한 오늘이(딸)와 똘똘하고 진지한 내일이(엄마)의 이야기 여정 속에서 다양한 옛이야기와 캐릭터들을 만나고자 하였다.

3) 콘텐츠 제작 기획하기

월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월요일 [이야기밥]의 콘텐츠는 액자 구조를 취하며 세

6) https://www.youtube.com/channel/UCwICeS_3HODeCGnmuw03pLw/about

층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층위는 금요일 [놀이육아]에서 별꽃맘이 세 자녀인 한별, 두별, 세별에게 <오늘이> 그림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옛이야기 동화책을 매개로 부모-자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독서 대화가 펼쳐진다. 둘째 층위는 월요일 [이야기밥]의 곁이야기로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제작된다. 그림동화책 <오늘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오늘이와 내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후 옛이야기 캐릭터와의 만남을 이끌어간다. [이야기밥]의 속이야기로서 오늘이와 내일이의 옛이야기 여정 중에 만난 이야기와 이야기 속 캐릭터의 만남이 펼쳐진다.



[그림5] 월요일 [이야기밥]의 세 층위

기존의 <오늘이> 콘텐츠와 달리 [이야기밥]에서는 <오늘이>가 본격적인 옛이야기 탐방이 펼쳐지는 이야기판의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서사를 모두 구현할 필요가 없기에 오늘이와 내일이가 만나는 부분까지만 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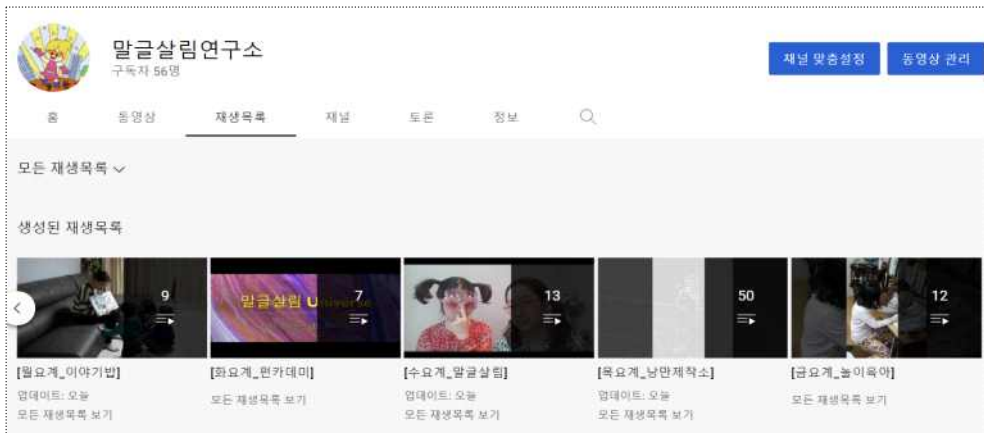
이같은 서사적 변용 외에 옛이야기의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L.O.L이라는 장난감 캐릭터 활용하였다. L.O.L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난감 캐릭터이다⁷⁾. 연구자의 딸도 한동안 L.O.L의 팬이어서 상당수의 L.O.L 인형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다른 캐릭터로 관심이 옮겨져서 값비싼 L.O.L 인형들이 정리상자 구석에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옛이야기 캐릭터의 밈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미 매니아층을 확보한 L.O.L 인형을 활용하여 <오늘이> 캐릭터로 삼았다.

7) 하나당 2만원 정도하는 적지 않은 비용의 손바닥만한 작은 인형이 밀봉된 통에 들어있는데, 어떤 인형이 나올지는 통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구매욕과 수집벽을 자극한다. 최근에는 자녀의 인형을 사주다가 본인이 더 광적인 L.O.L 매니아가 되어 L.O.L.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블로거나 유튜버들도 늘고 있다.

3. 실행

1) 채널 개설

2020년 2월 11일 구글 계정을 만들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말글살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9월 21일 현재까지 업로드된 동영상은 110개이며 구독자는 56명이다.



[그림6]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 채널8)

2) 세계관 구축 및 캐릭터 설정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세계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화요일 [편카데미]에서 제시하였다.



[그림7] 말글살림 유니버스9)

8) https://www.youtube.com/channel/UCwICeS_3HODeCGnmuw03pLw

동시에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별로 캐릭터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세계관별 캐릭터를 설정하는 이유는 콘텐츠 제작 당시 유행했던 ‘부캐 신드롬’ 때문이다. 공중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부캐(부수적인 캐릭터, sub-charater)’란 현실의 캐릭터와는 다른 캐릭터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러한 부캐는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중 정체성은 현실 세계에서 특정한 역할 - 엄마, 교사, 신앙인 등 - 을 맡게 되는데 그 역할에 맞는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언행을 하게 되어 점점 고착화된다. 하지만 부캐는 제3의 공간을 형성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억눌렀던 욕망이나 하고 싶었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다¹⁰⁾.

말글살림 유니버스 역시 각 세계관별로 다음과 같이 캐릭터를 다르게 설정하여 생산-주체의 다중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캐릭터들은 각 세계관별로 특징적인 외모나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수요계 [말글살림]에서 ‘오글썸’은 본캐인 연구자(엄마)와 달리 매우 친절하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며 바른 말을 사용한다. ‘이말글 박사’는 본캐인 초등생 딸과 달리 어르신 같은 말투로 “자네~한가”라는 말투이다. ‘전대화 교수’는 본캐인 막둥이처럼 웅알이 같은 말을 하지만, 말풍선을 통해 교수로서 바람직한 화법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세계에서의 다중 정체성을 창출한다.

9) <https://www.youtube.com/watch?v=LfbDbZEO2k0&list=PLKgUVppRqbszNw9VGJERYi-GEv7nr7G3s>

10) 2020년을 강타했던 부캐 신드롬은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촉발되었다. 국민MC 유재석이라는 본캐(본래 캐릭터)는 트롯가수 유산슬, 라면체프 라섹, 드러머 유고스타, 혼성그룹 <썩쓰리> 멤버 유두래곤, 걸그룹 <환불원정대> 프로듀서 지미유 등의 부캐를 가지고 있다. 메인출연자인 유재석 외에도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들 역시 다양한 부캐를 맡아 썩쓰리의 린다G(이효리 분), 비룡(비 분)처럼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하였다. 국민MC 유재석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셀럽으로서 현실계에서는 항상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하지만, 프로듀서 지미유가 되었을 때는 개그맨으로서의 실력을 발휘하여 간죽거리기도 하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통쾌함을 선사하였다.

<표3>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별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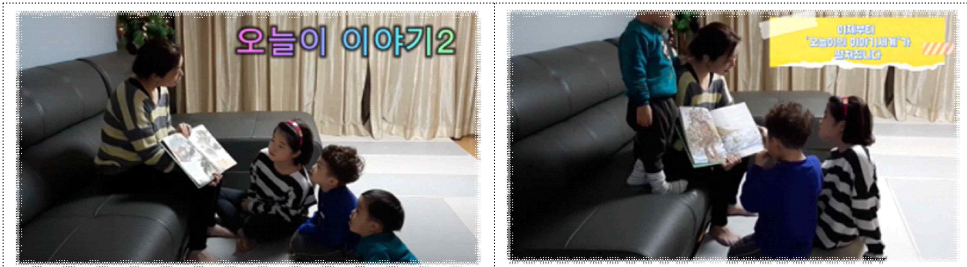
현실계 말글계	연구자(엄마)	첫째(딸)	둘째(아들)	막내(아들)
월요계 ¹¹⁾ [이야기밥]				
	내일이	오늘이	[매일이]	[백주할멈]
화요계 [편카데미]				
	닥터 케이모스			
수요계 [말글살림]				
	오늘썸	이말글 박사	캡틴 코리아나	전대화 교수
목요계 [낭만 제작소]				
		낭만장미	김박순	난콩콩
금요계 [놀이육아]				
	별꽃맘	한별이	두별이	세별이

11) 월요계에서 둘째아들과 막내아들은 ‘오늘이 목소리’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매일리와 백주할멈은 대사가 많아서 연구자(엄마)가 담당하였다. 첫째딸은 오늘이 외에도 이무기, 각종 생명체 등의 더빙을 담당하였다.

2) 촬영

① 1층위: 그림동화책 <오늘이>

1층위는 연구자와 자녀들이 동화책을 매개로 대화하는 장면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오늘이> 이야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담았으며, 이야기 전편을 읽어주지 않고 ‘오늘이와 내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총3편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8] 그림동화책 <오늘이>와 함께 하는 독서 대화¹²⁾

② 2층위: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제작 기획에 따라 L.O.L 인형을 활용하되, 인형 크기에 맞는 무대를 세팅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으로 PPT를 제작하였다. PPT는 영상녹화 프로그램 Doc Zoom을 활용하여 PPT 화면을 넘기면서 즉흥적으로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었다. 둘째 아들(7세)과 막내 아들(4세)은 사전에 대사를 녹음하여 PPT 녹화 시 삽입하였다. 음향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우려가 적은 휴대폰 벨소리를 활용하여 필요한 장면에 삽입하였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라는 특성을 살려 시작 장면(intro)과 마무리 장면(outro)을 만들었고, 영상의 말미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독려하는 문구를 넣었다.

12) 오늘이 이야기1 (2020.12.7.) https://www.youtube.com/watch?v=vWqZfeY_AD0
오늘이 이야기2 (2020.12.14.) <https://www.youtube.com/watch?v=XAE0Y14uCm0>
오늘이 이야기3 (2020.12.21.) https://www.youtube.com/watch?v=0Fj_lwfuekE



[그림9] 시작 & 마무리 장면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하는 <오늘이> 이야기는 그동안 다양한 서사와 양태로 변용되어 왔다. <오늘이>의 원전설화인 ‘원천강본풀이(袁天綱本解)’는 본래 제주지역의 서사무가로서, 여자아이 ‘오날’의 부모 찾는 여정을 풀어낸 이계(異界)여행담인 박봉춘 본과, 왕이 될 운명이었던 남편이 나라에 잡혀가 죽게 하는 부인 원천강의 이야기를 풀어낸 조술생 본이 있다(이종호, 2007:197). 이 중에서 동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타인을 돕는 여신(또는 여자아이)’의 화소를 지닌 박봉춘 본이다.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는 동화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정오(2007)와 이성강(2004)의 <오늘이>가 있다. 이중 이성강의 동화책은 이전해 작가가 기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제작한, 16분 정도 분량의 애니메이션 <오늘이>(2003)의 장면을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¹³⁾.



[그림10]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장면 (이성강, 2003)¹⁴⁾

13)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1-2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단원은 ‘만화 영화를 감상하고 사건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쓰고 이야기책 만들기 생각하기’라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교과서에는 캡처된 장면이 사진으로 제시되지만, 수업 상황에서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본 후 학습활동이 수행된다.

14) 애니메이션 <오늘이> https://www.youtube.com/watch?v=11J9A-3_6qA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제작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총5편으로 5개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1편은 오늘이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2편은 오늘이가 부모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다가 백주할멈을 만나는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3편에서는 오늘이와 매일의 만남, 4편에서는 오늘이와 이무기의 만남을 보여주었다. 5편에서는 오늘이와 내일이가 만나 함께 옛이야기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다.

<표4> <오늘이>의 서사적 변용 양상¹⁵⁾

Ep.	원천강본풀이 (서사무가)	교과서 (애니메이션)	동화책 (그림동화집)	유튜브 (인형애니메이션)
1	-	원천강의 오늘이	-	-
2	강림들의 오늘이	물으로 온 오늘이	강림들의 오늘이	강림들의 오늘이
3	백씨 부인과 만남	-	백주할머니 만남	백주할멈과 만남
4	장상(男)과 만남	매일(男)과 만남	장상도령과 만남	매일이(男)와 만남
5	연꽃나무와 만남	연꽃나무와 만남	연꽃과 만남	-
6	-	구름(소년)과 만남	-	-
7	큰 뱀과 만남	이무기와 만남	이무기와 만남	이무기와 만남
8	매일이(女)와 만남	-	내일이(女)와 만남	내일이(女)와 만남
9	옥황 시녀와 만남	-	선녀와 만남	-
10	부모님과 만남	학 ‘야아’와 재회	부모님과 만남	-
11	-	원천강의 회복	-	-
12	오늘이의 귀환	고민들의 해결	오늘이의 귀환	-
13	신녀 되어 승천함	-	선녀가 된 오늘이	-
특 징	• 무속적 • 신과 만남 • 신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타인의 팔자를 해결함 • 신녀(神女)가 된 오늘이	• 환상적 • ‘행복’이라는 감 정에 초점 • 이무기의 도움 으로 고난 극복 • 부모 등장 없음 • 오늘이 그 자체 가 된 오늘이	• 교훈적 • 타인을 도와주 는 오늘이의 행 위에 초점 • 원전설화의 서 사구조에 충실 • 선녀(仙女)가 된 오늘이	• 유희적 • 현대적 (인간) 캐릭터와 만남 • 결이 이야기로서 원전설화의 서 사 부분 차용 • 여행자가 된 오 늘이와 내일이

15) 교과서에 수록된 애니메이션 <오늘이>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 비교는 이종호(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의 각 에피소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p1. '오늘이의 탄생'

- 업로드일: 2020.12.28.
- 줄거리: 바람만 가득한 광활한 강림들(#1-1)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언젠가부터 놓여 있다. 곤충, 어류, 공룡 등 각종 생명체들이 등장(#1-2)하여 해당 물체 주변을 기웃거린다. 그러던 어느날, 특별한 탄생의 기운(#1-3)이 강림들을 감돌았고, 물체가 열리며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탄생한다(#1-4).
- 변용: 강림들은 태초의 땅이며 각종 생명체들은 지구의 역사에 따라 등장한다. 기존 서사에서는 '여자'로 설정된 강림들의 아이는 이번 서사에서 혼종적 정체성의 성격으로 설정되었다. 오늘이는 여성도, 아이도 아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현현(懸懸)이다.

Ep2. 오늘이의 여행

- 업로드일: 2021.1.4.
- 줄거리: 태어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떠나던(#2-1) 강림들의 존재는 여정 중에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나 “나는 누구?”라며 물어보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답한다(#2-2). 이때 갑자기 백주할머니 나타나 “넌 오늘이”라고 말하며(#2-3) “원천강 가서 부모를 만나라”고 한다(#2-4).
- 변용: 원전에서는 각종 생명체가 강림들의 아이를 보살펴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 서사에서는 강림들의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다. 백주할머니는 기존에 '할머니'로 재현되고는 하지만, 제주에서 '할머니'는 여성에 대한 존대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할머니가 아닌 핑크색 욕조를 타고 다니는 발랄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다.

Ep3. 오늘이와 매일이

- 업로드일: 2021.1.12.
- 줄거리: 백주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오늘이”라는 자작곡을 부르며 원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3-1)는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매일이를 만난다(#3-2). 아침마다 출근하기도 전에 퇴근을 꿈꾸는 매일이는 언제까지 일만해야할지 고민이다(#3-3). 매일이의 고민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이는 다시 원천강으로 길을 떠난다(#3-4).
- 변용: 기존 서사에서 매일이(또는 장상도령)는 글만 읽는 청년(남성/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서정오의 동화책 <오늘이>에 따라 청년남성으로 설정하였다. 영문도 모른 채 하루 종일 글만 읽는 기존 서사의 매일이와 달리, 이번 서사에서는 매일의 생계를 위해 일만 하는, 그와 동시에 빨리 부자가 되어 조기은퇴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현대 사회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바꾸었다.

Ep4. 오늘이와 이무기

- 업로드일: 2021.1.19.
- 줄거리: 원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는 드넓은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4-1). 조용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이무기가 나타나(#4-2) 오늘이에게 자신이 수집한 수많은 여의주에 대해 자랑한다(#4-3). 그러면서 오늘이에게 이렇게 여의주가 많은데 왜 아직도 용이 되지 않는지 부모님께 물어봐달라고 부탁한다(#4-4).
- 변용: 이무기는 탐욕적인 인간 또는 욕망이라는 감정의 원형이다. 이무기와 여의주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의 엉뚱함과 반전적 재미를 위하여 만화캐릭터(터닝메카드)와 당구 공으로 재현하였다. 이무기의 탐욕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마음 속에 가득한 욕심과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 잘 살아나도록 연구참여자(딸)가 연극적인 목소리로 표현하였다.

Ep.5. 오늘이와 내일이

- 업로드일: 2021.1.26.
- 줄거리: 원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는 멋진 저택에 사는 내일이를 만나게 된다(#5-1). 내일이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공부만 하는데 그 내일이 대체 언제 오는지 궁금하다(#5-2). 이에 오늘이는 “내일은 아직 오지않은 오늘”이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한다고 답한다(#5-3). 이에 용기를 얻은 내일이는 오늘이와 함께 옛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한다(#5-4).
- 변용: 기존 서사에서 내일이(또는 매일이)는 장상도령과 같이 글만 읽고 있지만, 이번 서사에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설정하였다. 오늘이가 내일이의 고민에 화답하며 함께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내일이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공부를 위해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이가 재차 합류를 권유하자, 내일만 위해 살아왔던 오늘이는, ‘지금 이순간’을 위해 오늘이와 함께 집을 떠나 옛이야기 여행을 떠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인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부모 찾아 떠나는 오늘이의 여정’이라는 서사적 줄기는 유지하되, 각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매일이는 청년노동자, 내일이는 입시준비생 등 - 및 재현(representation)하였다. 속이야기의 이야기관을 펼치고 이끌어가는 곁이야기로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기존 서사와 달리 ‘오늘이와 내일이의 만남’까지만 다룬다. 이계탐험담으로서 <오늘이> 이야기는 자칫 이야기들의 과편적 나열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비선형성에 서사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전체에 중심을 잡아줌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채널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11]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1. ‘오늘이의 탄생’¹⁶⁾



[그림12]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2. ‘오늘이의 여행’¹⁷⁾

16)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1. <https://www.youtube.com/watch?v=Qru6B6ozdVE>

17)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2. <https://www.youtube.com/watch?v=8oYTfFH5TWc>



[그림13]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3. '오늘이와 매일이'18)



[그림14]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4. '오늘이와 이무기'19)

- 18)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3. <https://www.youtube.com/watch?v=givXCu38eLc>
 19)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4. <https://www.youtube.com/watch?v=Os4nuKK6PfQ>



[그림15] 인형애니메이션 <오늘리> Ep5. ‘오늘리와 내일리’²⁰⁾

이후 오늘리와 내일리가 여행에서 만나는 다양한 옛이야기들과 캐릭터들로 이루어지는 3층위를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연구참여자인 딸이 옛이야기 콘텐츠 제작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4. 성찰

1) 효과분석

①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

디지털 기술과 생태계에 낯선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연구자는 이번 실험연구를 통하여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여겼던 영상 촬영·편집이 별도의 장비 없이 손안의 작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다. 물론 디지털 원주민인 연구참여자(딸)에 비하면 촬영·편집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머릿속

20) 인형애니메이션 <오늘리> Ep5. <https://www.youtube.com/watch?v=ce2iEwxAgzU>

으로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지인들에게 <말글살림> 채널과 <범 내려온다> 커버 영상을 공유하였다. 유튜버 데뷔나고 난리. OOO(큰딸)이 열일했다고 난리. 아직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아이디어가 넘친다. 집에만 있으니 상상력만 늘어간다. 상상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가다 보면 뭔가 또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 듯. - 성찰일지(2020.12.3.)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본 시청자들은 “재밌다, 신선하다, 잘 만들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콘텐츠에 대한 평가 외에도 “자녀들이 귀엽다, 모녀의 끼가 넘친다” 등 생산주체에 대한 평가도 해주었다. 수용주체의 피드백은 이후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② 디지털 콘텐츠 매개의 부모-자녀 간 소통

유튜브를 운영하던 시기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의 세 자녀들이 보육 및 교육기관에 가지 못하고, 연구자와 함께 집에 있던 때였다. 하루종일 자녀들과 있자니 딱히 할 일도 없어 지루하고, 형제자매끼리 투닥거리며 싸우거나 온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특히 초등학생인 큰딸과는 공부 문제로 인해 종종 다투고는 하였다.

그러다가 함께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면서 엄마와 딸의 공동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화하거나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져서 빈번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모녀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디지털 원주민인 딸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편집 등 디지털 기술이 엄마보다 탁월하고, 디지털 이주민인 엄마는 디지털 콘텐츠 비판 능력이 딸보다 뛰어났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각자 잘하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영상 제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

③ 디지털 이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하여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연구자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함양되었다. 유튜브 시청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연구자는 이제 채널 컨셉과 운영 방안을 기획하고 나름 유튜

버로서 책임감을 갖고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게 되었다²¹⁾).

지금 꾸준히,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애초부터 각 요일별로 별도의 은하계를 만들었고 은하계마다 새로운 부캐가 새로운 인격으로 등장한다. 일단 던져놓고 키워가는 느낌이다. (...) 이전까지 영상은 기존 영상을 올리거나 딸이 알아서 편집한 걸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제 수요계 [말글살림]에서는 제대로 시늉을 짜고 영상을 찍고 내가 편집도 다 했다. 7분짜리 영상인데 거의 4시간 넘게 했다. (...) '유튜버',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나 스스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느낌이라 참 재미있다. 이러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탐험과 도전을 하는 나 자신을 아주 칭찬한다! - 성찰일지(20.12.10.)

하면서 배우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앎과 함의 조화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번 실험연구를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모바일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툴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 평가

유튜브 기반 <오늘이> 콘텐츠 제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효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의 제작이었다. 전반적으로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고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참여자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었다. 대화를 나눈 결과, 연구참여자는 옛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콘텐츠를 시도하고 싶어 했으며, '엄마의 개입'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껏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였다.

둘째, 영상 제작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성찰 기록을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 성찰일지를 기록하는 편이지만, 연구참여자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경험 및 성찰을 알 수 없었다.

셋째, 채널의 구독자가 너무 적었다. 유튜브의 장점은 생산주체와 수용주체의 상호소통인데, 해당 채널의 구독자가 적어서 조회수도 적었고,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아서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잘 알 수 없었다.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에 비해 구독자수가 늘지 않는 현상

21) 디지털 원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부분은 추후연구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으로 인해 점차 제작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

이상의 성찰을 바탕으로, 1차 실험연구에 대한 계획수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2차 실험연구에서는 채널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있어 연구참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 둘째, 연구문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및 디지털 콘텐츠화는 이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만들며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서 촬영일지를 함께 만들어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구독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한 영상이나 책을 통해 유튜브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제주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하는 옛이야기 <오늘이>의 현대적 변용으로서,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오늘이> 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 실험연구이다.

연구 결과, 연구자 본인은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매개로 하여 연구참여자인 딸과 연구자인 엄마가 빈번한 상호소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이주민이었던 연구자가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버로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체험한 자문화기술지 기반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1차 실험연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연구자 주도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화’와 연구참여자 주도의 ‘유튜버 경험에 대한 디지털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로 이원화시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초록

온라인에서 ‘오늘이’ 읽기

김윤경

이 논문의 목적은 옛이야기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효과는 첫째,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둘째, 디지털 원주민인 딸과 디지털 이주민인 엄마(연구자) 간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이 빈번했으며, 셋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1차 실험연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디지털 이주민(연구자) 주체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원주민(딸) 주체의 자유주제 콘텐츠 제작을 수행할 것이다.

<핵심어>

옛이야기, 유튜브, 오늘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리터러시

참고문헌

- 곽영미·현은자, 「아기 돼지 삼 형제」 옛이야기를 원전(原典)으로 한 크로스오버 작품 분석: 문학, 애니메이션,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6권 1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5, 25-44쪽.
-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4학년 2학기(가), (주)미래엔, 2021.
- 구광본, 「문학 장르로서의 옛이야기」,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157-179쪽.
- 권혁래, 「옛이야기 캐릭터의 변모와 활용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61-99쪽.
- 김만수, 「‘두 형제’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적 변용」, 『구보학보』 제24호, 구보학회, 2020, 443-466.
- 김영천, 이동성,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19권 4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1-27쪽.
- 김윤경, 「고전시가의 향유방식 특징 탐구: 한국관광공사 <봄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3권, 이화어문학회, 2021a, 5-31쪽.
- 김윤경, 「‘뽕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사회언어학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권, 이화어문학회, 2021b, 333-361쪽.
- 박유희, 「디지털 서사 논의의 현황과 전망」, 『우리어문연구』 제24권, 우리어문학회, 2005, 223-249쪽.
- 박창민·조재성,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아카데미프레스, 2016.
- 서정오,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오늘이』, 봄봄, 2007.
- 윤지수, 「‘빨간 모자’의 패러디 양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학교육』 제47권, 한국어문교육학회, 2013, 141-162쪽.
- 이미연·허승희,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연극텍스트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2권, 한국문학회, 2012, 426-459쪽.
- 이성강, <오늘이> 애니메이션, 디앤엠커뮤니케이션, 2003.
- 이성강, <오늘이>, 문공사, 2004.
- 이재홍, 「구비문학을 활용한 게임의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 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279-286쪽.
- 이재홍, 「문화원형을 활용한 게임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제7권, 한국문학회예술연구소, 2011, 261-290쪽.
- 이종호, 「서사무가 <원턴강본푸리>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온지논총』, 제27호, 온지학회, 2011, 193-230쪽.

-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제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33-72쪽.
- 임형택, 「구비문학 3.0: 디지털과 3차적 구술성의 문학 환경에 대하여-문학의 전화(轉化)에 대한 미디어철학적 시고(試考)」, 『한민족문화연구』 제59권, 학회명, 2017, 7-43.
- 조용환,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8권 4호, 한민족문화학회, 2015, 1-49쪽.
- 최혜실, 「디지털 문화 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호, 한국구비문학회, 2003, 27-48쪽.
- Jones, A. (2005). Assessing international youth service programmes in two low income countries. *Volunteering Research*, 7(2), 87-100.
- Kemmis, S., & McTaggart, R. (1988). *The action research reader*. Geelong:Deakin University Press.
- Kress, G.,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dfor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pp. 35-50), Routledge, 2012.
- Leedy, P. D., & Omrod, J. E. (2005). *Practical Research Planning and Design* (5th ed.). New Jersey: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Oakeshott, M. (1962).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Indianapolis: Liberty Press.

토론문

박현숙¹⁾

이글은 연구자가 자녀들과 함께, <말글살림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7개 코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실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옛이야기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발표문을 읽고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 옛이야기를 소재로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자의 실천력과 추진력에 박수를 보내며 많이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많은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채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1. <말글살림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7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코너의 콘텐츠 제작물의 콘셉트(concept)는 크게 연구자 가족(일상), 교육, 옛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코너별 제작된 콘텐츠 수를 보면 가족(일상)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략 목요일계[낭만제작소] 52개, 금요일계[놀이육아] 12개, 일요일계[별꽃극장] 11개, 토요일계[마담틸리] 4개이고, 교육 관련 콘텐츠가 수요일계[말글살림] 15개, 화요일계[편카데미] 7개이고, 옛이야기 관련 콘텐츠가 월요일계[이야기밥] 9개(《오늘이》 동화책 연속 읽기 3개,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시리즈 5개, <홍부놀부 종이인형극> 1개)입니다. 이글은 [이야기밥]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최근 3개월 집중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나 항목별 제작된 콘텐츠 수를 살펴보면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콘텐츠가 가장 많습니다. <말글살림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성격과 목적, 운영자(연구자, 딸)가 주력하는 콘셉트(concept)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가 구독자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 개인의 일상과 교육적, 옛이야기 내용인지, 누구나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부모와 자녀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식인지 목적과 성격이 불

1) 건국대학교

분명하다 보니 콘텐츠 이용자로서는 7개 항목의 다양한 콘텐츠 중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 기존 옛이야기 콘텐츠와 [이야기밥] 콘텐츠의 차별성 문제

2-1 연구자는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동기이자 기존의 옛이야기 콘텐츠의 문제점으로 거대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영유아 대상의 영상 콘텐츠라는 점, 영상의 주된 향유 주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 수용 주체가 다양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수용 주체의 관점에서 기존 옛이야기 콘텐츠의 문제점을 분석한 데 반해, 연구자의 [이야기밥] 콘텐츠의 효과는** ①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 ②디지털 콘텐츠 매개의 부모-자녀 간 소통 ③디지털 이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효과가 **생산 주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야기밥]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용 주체가 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2 연구자는 ‘텍스트화된 구비문학이 소설처럼 변하여 본연의 단순성과 완성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 지적의 근거가 되는 예시는 본문이든, 각주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지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래동화의 소설적 문법 표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 문제는 연구자가 제작한 <오늘이> 콘텐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일례로 아래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난 이렇게 생각해. ‘아 오늘도 출근이구나. 또 일을 해야 하네.’ 아침을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출근도 안 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다.’ 하루종일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아 밥 먹고 일해야 돼. 빨리 밥 먹자.’

밤이 되어 자게 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아, 내일 또 출근이야. 난 매일 매일 일만 하네.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일만 해야 되는 거니? 부모님께 꼭 이 얘기를 전해줘.

“함께 가실래요?”

“함께 가면 좋겠지만, 미안. 나는 매일 매일 일을 해야되니까. 내일 또 출근해야 되거든.”

위 인용문은 매일이 오늘이에게 매일 일만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옛이야기의 문법은 인물의 상황, 외모, 감정 등의 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속 매일은 자신의 상황을 소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글만 읽는 장상이와 매일이 등장인물을 일하는 사회 청년, 수험생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수용자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인물과 확장성과 상징성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2.3.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 분석이 미진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옛이야기 기반의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가 다수 있습니다. 거대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를 포함한 1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비교되는 연구자 콘텐츠의 차별적 요소를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오늘이> 옛이야기 작품 분석 및 해석의 문제

3-1. <원천강본풀이>는 오늘이는 적막한 뜰에서 난 절대 고독의 존재였지만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름을 얻게 되고, 자기 존재의 근원인 부모가 원천강에 있다는 사실도, 원천강에 가는 길도 알게 됩니다. 오늘이는 사람들과의 만남, 교감 속에서 고독의 존재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길 안내 도움을 받아 조금씩 나아가던 존재에서 어느새 스스로 선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를 인식하지만 해결을 위한 행동의 시간이 멈추고 갇힌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존재, 사람들의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존재로 성장을 이뤄낸 완결된 서사입니다. 오늘이는 절대 고독의 운명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 세상 만물과 소통함으로써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표4>에서 <원천강본풀이>를 ‘신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타인의 팔자를 해결한’ 서사라는 것은 신화라는 장르적 성격에 맞춘 작위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원천강본풀이>와 동일한 서사 구조를 지닌 <구복여행> 설화와 동일한 주제적 의미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3-2. 연구자는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 <오늘이>를 서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무기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서사’라고 표면적 해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늘이> 서사의 큰 줄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원천강(자연)이 자연 순환 원리로 회복하는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무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열쇠인 건 맞지만, 여기에서는 ‘이무기’ 인물이 아닌 ‘욕망과 집착 vs 생명 살림’의 ‘딜레마’가 자연의 순환성과 생명성 회복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3. 이글은 콘텐츠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소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활동일지 내용은 객관적 제작 과정 기술보다는 느낌 위주의 기술이 많습니다. 연구 주제가 <오늘이> 신화의 현대적 변용인데, 발표문에는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서사의 분석적 내용이 없습니다. 현대적 변용인 만큼 원전 서사의 분석과 함께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서사로 변용했는지 콘텐츠 내용의 면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원전 서사의 오늘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원전 서사의 장상이와 매일이는 왜 자신들이 글만 읽고 있는지, 행위의 목표와 지향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사회 청년 매일리와 내일리는 원전서사의 장상이와 매일리와는 달리, 목표의 가치성을 떠나 매일리는 생계와 조기 퇴직이라는 목표, 내일리는 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작자가 인물의 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동일한 상황의 매일리와 내일이인데 오늘이와의 동행을 매일리는 거절하고, 내일리는 수용하는데 인물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이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내일리와 동행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서사 논리의 결여인지, 의도된 장치인지 등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서사적 분석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4. [이야기법]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은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작품이라 할 수 있는가?

<원천강본풀이>는 절대 고독의 존재인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 떠난 세계에서 사람들과 만남과 교감을 통해 부모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성장을 이루는 회귀구조의 지닌 완결성이 높은 서사입니다. 이 신화 <원천강본풀이>나 민담 <구복여행> 주인공의 ‘회귀’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 제작자(연구자)는 ‘본격적인 옛이야기 탐방이 펼쳐지는 이야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서사를 모두 구현할 필요가 없기에 오늘이와 내일이가 만나는 부분까지만 제작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의 재해석된 서사 맥락이나 서사 전개 논리상 뒷이야기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옛이야기 탐방의 이야기관 역할’로 <오늘이> 이야기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뒷이야기까지 다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형 애니메이션>의 특징인 유희성을 부각하려면 원전으로 신성성이 특징인 신화 장르의 <원천강본풀이> 보다는 흥미성이 특징인 민담 장르의 <구복여행>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형 애니메이션>에서 원전을 <구복여행>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등장인물 오늘이와 내일이 때문이 아닌지요? 함께 여행자가 된 오늘이와 내일이는 이후 제작된 <홍부놀부>에서 옛이야기 여행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 인형 애니메이션>과 <홍부놀부 종이인형극>은 서로 연계된 것이 아닌 [이야기밥] 코너의 독립된 콘텐츠로 보입니다.

재해석 서사의 맥락도 아닌, 제작자 필요에 따라 원전 서사를 재단하는 것은 현대적 변용이 아닌 원형의 왜곡이고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이야기에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마음대로 재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옛이야기는 원전이 있는 문학 장르인 만큼 재화든, 창작이든 원전의 서사 맥락과 상징의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튜브 기반의 콘텐츠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창작, 재창작에 더 신중을 기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

김연옥¹⁾

1) 독서습관연구소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발표문

온라인에서 논어읽기

20211002

독서습관연구소 모두북 대표 김연옥

- **논어읽기 목적**

1. 고전읽기로 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2. 삶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3. 삶에 스미는 실천
4. 한 권 깊이 읽기 평생독서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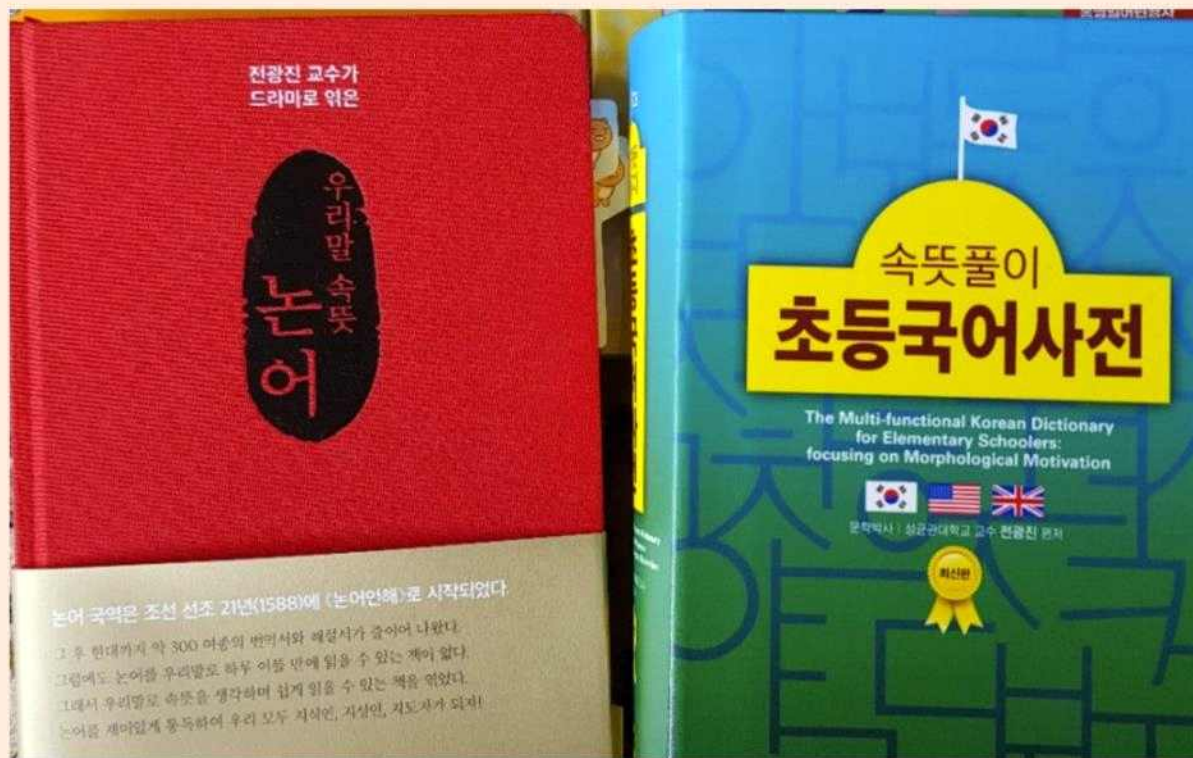
- **논어 함께 읽기 방법**

1. 함께 소리 내어 읽기, 역할극하기
2. 다양한 놀이학습 방법 -빙고놀이, 메모리게임 등
3. 모르는 낱말 사전 찾기
4. 반복하여 읽기 -카톡으로 수시 나눔, 복습
5. 공책에 필사하기
6. 실천활동 글쓰기
7. 소통하는 공부 - 온라인 ZOOM, 카카오톡, 패들렛 활용
8. 수업일지 기록

- **한 권 깊이 읽기 독서교육 (5학년 2반 학생, 학교교육과 연계)**

<책과 노니는 집>

<구멍난 벼루> 함께 읽기



읽기교재 / 우리말속뜻논어 / 전광진역음

교재의 짜임

- 2500년 전 공자와 제자의 대화록, 20편 498장
-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 주석 없이 본문만, 부담 없는 분량
- 선독국문 후독한문, 펼침면 한 눈에 보이는 배치

1

(오늘 따라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대단히 기뻐서 목소리가 우렁차다.)

공자 배우며 때맞추어 복습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랴!

2

(스승보다 13세 어린 제자 유자도 어느덧 일가를 이루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다. 이날따라 목소리가 낭랑하기 이를 데 없다.)

유자 사람이 효성스럽고 공경하면서도 윗사람에게 대드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란 일으키기 좋아
 하는 자는 여태껏 없었다.
 군자가 기본에 힘쓰는 것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을 실천하는 바탕이다.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유朋자원방래 불역락호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문 불역군자호

習(익힐 습): 복습하다.
 說(말씀 설): 기쁘다(+悅일).
 人(사람 인): 남, 다른 사람.
 慍: 성낼 온.

2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유자왈 기위인야호제 의호범상자 선의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불호범상 이호작란자 미지유야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효제야자 기위인지본야

鮮(아우 제): 공경하다.
 未(아우 제): 공경하다.
 犯(범할 범): 대들다.
 未(아닐 미): 아직 ~않다.
 與(더불 여): 어조사(+歟).

【제1편】
학이

온라인이라 가능한 학습

1. 가족과 함께 논어읽기(아이와 어른 3대가 함께)
 - 사는 곳 : 서울, 일산, 용인, 대구, 양산, 부산, 포항, 삼척, 보길도 등
 - 연령대 : 8살(1명) 9살(2) 11살(1) 5,6학년 (총 15명)
30대~50 대 부모, 64(1) 70대(2) (총 20명)
 - 수업진행 : 2021. 6. 19(토) ~11.6. 11:00-12:30 (20회)
2.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논어읽기
(전농초 5학년 2반 24명)

이동중이지만 아빠도 시어머님도 아이도 저도 소리 크게 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주 수업도 감사합니다
아이를 수업 먼저 하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 2학년 집중력에는 훨씬 좋습니다♡

MikyungPark♡선율맘

학교도 온라인, 근무도 재택. 북딱북딱 지지고 볶으니, 주말이라도 탈출해보자고 동네 도서관으로 아침부터 노트 북 싸들고 왔는데, 와서도 뭘쭈.. 수업이네요. 그래도 즐겁습니다. 와이파이가 안터지고 신호불량이라 말글기고 이어폰 나누어 끼고 들어려고 하는 모습이 즐겁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이웃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유진

선생님~
저는 시어머님 모시고 춘천에 가고 있어서, 차에서 들어야 할거 같아요 ☺

권윤옥

선생님~
저도 오늘 시골 내려가서 차에서 화면 끄고 말씀만 들겠습니다^^



최현주

보길도 무척좋은곳입니다^^
여행하긴 기가막히죠~~

여행을왔다가 남편을 만나고
여유로울거란 기대를놓고
미련없이 섬으로돌아왔지요^^
지금은 결혼이주여성이라 생각하고입니다
12년차인데 아직도 시범니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요ㅋㅋ
ㅋㅋ

아침에눈뜨면 해돋이가 보이고
맑은날 제주사람보라고 손을들며
저녁을 섬을 만끽하며 살고있습니다
섬에 사니 재게 이런 기회도 온거지요
사람 사는곳이면 어디나 있는 고종이 조금 다른버전으로
온달까
곤 손님이 올 예정이라 맘이 바빠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섬아름다움 궁금하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코로나이후 친정방문도 힘들니
도시사는 사람들과고 말만해도 즐겁습니다

궁자님말씀 여기계신분들 잘새기며
이주여성에서 섬사람으로 거듭나보려합니다

책도 읽는 시늉정도 하고 무지하나
함께할수있어 너무행복합니다
제가 잘하진못해도 개근은 가능합니다
열심히할께요
고맙습니다

수업 이모저모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정미숙 마리나

건강한 한 주 지내셨어요? ^^
안녕하세요. ^^

내일 11시, 우리들 속뜻 논어 수업 두번 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지난 주 숙제가 나갔습니다.

1. 공자, 논어에 대해 조사, 정리하기
(새롭게 알게 된 점, 공자의 일생 등 다양하게 느끼신 대로 정리하심 될것 같습니다.)
2. 학이면서 말에 들었던 문장과 이유 쓰기(아이-한글, 엄마-한문)

준비물 다 아시죠?

논어책, 국어사전, 포스트 잇, 노트, 필기도구

그럼 내일 볼게요. ^^

이서연

그냥 불러 보내던 토요일 오전이 논어 수업으로 꼭 찬기
분입니다. 수업 끝나고 볼 대수롭지 않은일로 올고 댁쓰
는 통에 실천하지 않으려면 논어수업도 흔지 말라고 혼을
내렸는데, 진정하고 보니 저도 별것 아닌 일을 아이의 말
을 왜 안들어주었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주동안 책 꼼꼼히보고 한가지라도 잘 실천하는 그릇(?)
되어 보겠습니다!!

아이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나누고 느낌 간단히 올려
주세요

오후 12:49

홍현정

민고는 알아 듣는거 거의 없다가 17번 풀이에 형광펜 칠
하면서 아하 한 마디 하는 모습에 한 가지라도 이해 하는
말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ㅎㅎ 사실 둘째 보
다는 사준기에 들어가는 큰 논어에 더 좋은 수업이라 생
각합니다. 오늘까지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 참석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큰 아들이 수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논어를 통해 청소년기를 무탈히 잘 보냈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오후 12:55

편석희

아빠: 세상 둘도 없는 효자라 7
엄마: 말부터 알세우는 것을 경계하고자 13. '조인자'가 인
상 깊어 17
정운: 평소 자신이 여섯장을 많이 늘는다고 생각해서 9
서운: 아빠 바보라 아빠처럼 7
서운이는 와닿는 구절 고르고 이유 설명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고 해요
17번 '조인자' 얘기하면서 '조필'과 '추필'에 대한 의미 차
이도 살펴보고 '여섯장'도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첫 시간에는 솔직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가 되니 조금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MikyungPark♡선율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의욕적인 1교시, 흐뭇함도 잠시.
반전의 2교시 집중 못하고 영영이 들쭉거리려 잠깐 고민했
는데, 마지막까지 자리뜨지 않는 모습만으로 저는 만족합
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자님 발 뒷꿈치라도
만져질 수 있다면 같이 천천히 감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주말입니다~^^

이서연

희현주에게 답장

저는 보길도라는 섬에사는 다문화 가정 아들이고 늦게 결혼
한 탓에 이제 11살 딸이있죠
지난번에도 결혼이주여성이라 알뜰드렸듯 결혼한 제가
살던 곳이었
너무 다른세상에
무울안개구리가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
요. 그래도 현주님께서 아이를 잘 이끌어주셔서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무울안개구리가 아니...

엄마 계심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멋진 엄마가 계셔서 태
이는 아무것도 두려움 게 없을거예요^^

정미숙 마리나

태이가 잘 할거예요. 멋진 엄마가 버티고 있으니 태이 마
음이 든든하겠어요.
보길도 꼭 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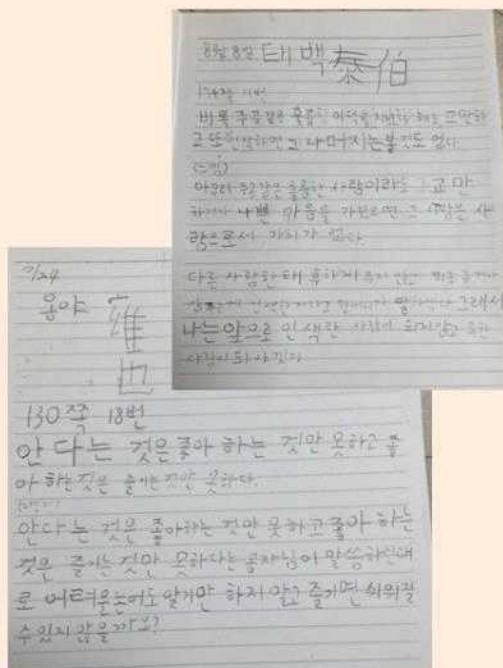
숙제 까먹을뻔했네요

금요일~

한자노트찾아서 그러가다보니
더재밌어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고맙다는말씀밖에
내일도 기다려집니다

할머니와 함께 읽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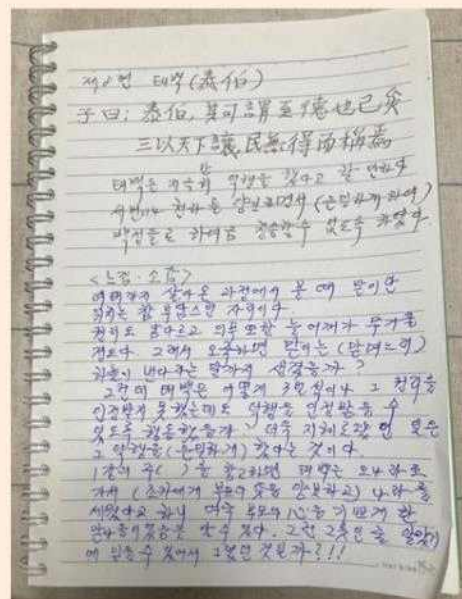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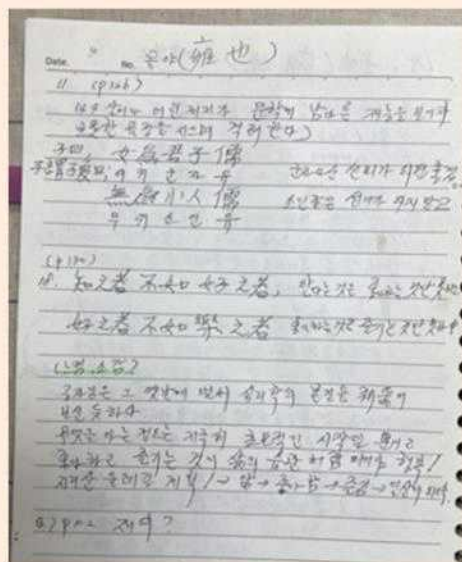


신규홍(5학년)

한영진

안녕하세요?

신규홍은 갯벌여행갔을거고 저는 이번주 지리산 둘레길
을 걷고 있습니다. 미리했던 숙제를 올리고, 널 놓어교실
엔 각자 있는곳에서 시도해볼것입니다.



한영진(70)

168쪽 2번

공자 공손하면 서도 예의가 없으면 수고만 하고,

신중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딸기만 하며,

효감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난폭만 하고,

강직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소급만 따른다.

위사람들이 부모에게 독실하게 하면 백성들이만에 흥기하고,

오래 친구로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 무엇보다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

* 난폭 → 행동이 몹시 거칠고 사나움

* 강직 → 굳세고 옳다

* 조공 → 참을성없이 급하다

* 독실 → 마음이 두터워 성실하다

* 흥기 → 떨치고 일어남

* 각박 → 인정이 없고 야박하다

사전에서 낱말뜻 찾기

제1편 7월 250쪽

자공이 장지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 (개태공이 관상이 많아서 유년절 절차를 대하여 물으니

기독교인 하의 자공의 유년절을 말해주었다.)

식량을 풍부하게 베풀어주는 것, 무기를 충분히 갖추는 것,

백성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치의 요체이다.

자공 백이 [하루] 반드시 베풀어 한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베풀어야 하나?

공자 무기를 베풀어야

자공 복록이 [하루] 반드시 베풀어 한다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베풀어야 하나?

공자 식량을 베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 사탕이나 다 줘도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루] 바르길 수 없다.

나의 생각

나에게 묻는 두 가지 있다면 1개는 필요없고 1개는 게릴라필요한 것

중에서 저도 좀 자정처럼 필요없는 것은 버려둬야 한다.

공자론 내림 다스리때 백성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채윤(2학년)

제2편 뒤집어 쓰세요 17번

아는 것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
그것이 [바람]이 아닌 것 같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있을 법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알려 주어서
그것을 알았으니, 아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자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저를 "도"라고 해서 배워서 배워갈 줄 알았.

<공자님이 배운 도를 본 사람이 되어서
파고설을 알았을 때 다 하고 싶어요.>

<용야포인 126쪽 11번>

자라야! 너는 말야! 구자야! 선비가 되려면
경쟁야. 소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 느낌/생각>

반영은 '아이야 너, 작은 아이가 되자.
나쁜 아이가 되지 말고'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말. 이리저리 생각해 봤다.

이제, 아라리 울고도 참아야
고맙고 또 민망하면
그나마는 볼 것 같다.

如有周公之美,
使吾君且若,
其命亦不足惜也已.

이제, 아라리 울고도 참아야
고맙고 민망하면 안 된다.
고맙다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
원래라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맙고 민망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미덕을 알아 결국 그들이
저지 못한 미덕들이 잘못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우리는 자신에게
볼 것도 없어서 경쟁을 잃어
것을 나는 생각한다. 고맙고 민망
미덕을 잊어버리는 것이지는 방법
이다.

정미숙 마리아 2021-08-13

이제, 아라리 울고도 참아야
고맙고 또 민망하면
그나마는 볼 것 같다.

如有周公之美,
使吾君且若,
其命亦不足惜也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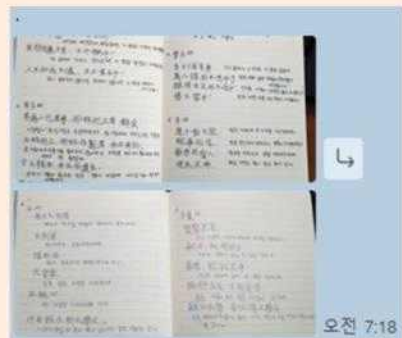
이제, 아라리 울고도 참아야
고맙고 민망하면 안 된다.
고맙다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
원래라면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맙고 민망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미덕을 알아 결국 그들이
저지 못한 미덕들이 잘못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우리는 자신에게
볼 것도 없어서 경쟁을 잃어
것을 나는 생각한다. 고맙고 민망
미덕을 잊어버리는 것이지는 방법
이다.

권서진(5학년)

이규진(6학년)

이아진(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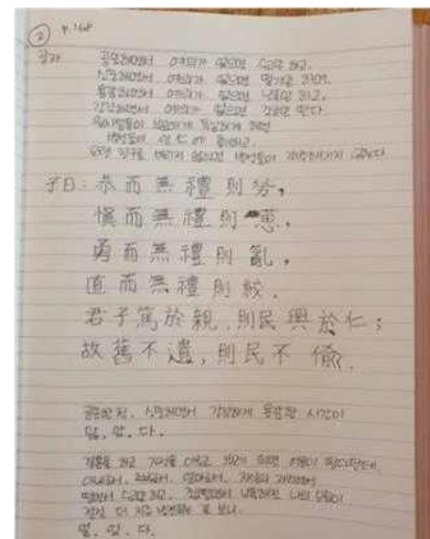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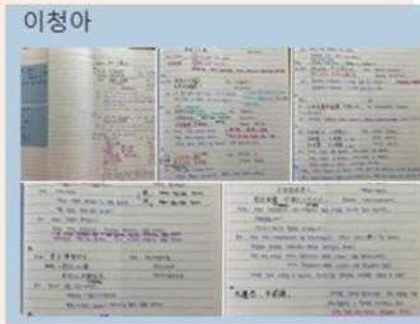
오전 7:18

장성은 2021-08-14



오후 2:36

장정옥
글씨가 더 나아질것길지 않아서 그냥 올립니다 ㅋ



18.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19.子曰 中人以上, 可以語上也; 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
 20. 問上.
 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2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2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3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4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5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6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7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8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1.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2.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3.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4.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5.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6.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7.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8.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99.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100.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默而識之(묵이지지)
 學而不厭(학이불염)
 誨人不倦(회인불권)
 何有於我哉(하유어재)
 위 글은 논어 제7편
 술이 (述而)에 나오는
 두 번째 글입니다.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이어진다.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은 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보냈습니다

홍정욱

정유진
 바람이 부는대로
 향을 쫓아 갔더니
 그의 향을 느낄 수 있었네
 발길이 가는대로
 걸음을 종종 거렸더니
 함께 걷고 있었네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을 해보았더니
 그대의 행동에 내마음이 담겨 있었네
 구름이 떠도는 대로
 동동 맡겨 보았더니
 그대를 볼수 있었네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홍정욱
 글씨가 더 나아질것길지 않아서 그냥 올립니다 ㄱ

토닥토닥 마음 나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나눔장터
카톡사용법 패들릿 사용법
사전앱 다운받기
삶의 지혜, SNS활용 주고받기

이청아

토요일은 논어수업 마치고 나면 하루가 휘리릭~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남은 주말도 시원하고 편안하게 잘 보내세요😊

말로만 듣던 '논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더위에 열과 성을 다해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과 밝고 아름다운 어린이 그리고 젊고 예쁜 어머니들과 함께하니 이 무슨 복인지요~ 이렇게 어우러진 만남을 상상도 못했는데요~ 삶에 뜻깊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

오늘의 눈물은 열심히 살고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 다들 오늘 저녁은 엄마들 먹고싶은걸로 드시고 건강하세요
보길도에서 한번쯤은 등쳐야하잖아요

이청아

오늘 논어시간은 힐링하는 시간이었네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세요♡

오후 1:04

정미숙 마리나

다들 통달에 이르셨어요

오후 1:04

이서연

논어는 오래된 미래!! 오오오오~ 소름끼쳤어요, 오래된 미래를 기꺼이 함께 나눠주시는 김연옥 선생님께 다시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후 5:13

장성은

논어를, 볼 생각도 안하고 살았는데요, 그냥 성경책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왠지 앞으로 평생토록 가끔씩 아주 꾸준히 다양한 버전의 논어를 찾아 읽으며 살아갈 것 같아요 ㅎㅎ

오늘 한번 슬쩍 참여해보았는데 빠져들어요♡

오후 5:19



정미숙 마리아

오늘 수업 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살아가는 힘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

정유진

저는 83세 시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주옥 사는데요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참 여러가지 일이 많지만, 이제 재벌 익숙해져
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만의 할줄구로, 여러가지도 배우면서, 산에도 다니고 커피마시며
영~~ 데리기도 하구요
그러다가 그림책을 공부하게 되었고
김연옥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눈어공부도 하고,
인생의 선배님들께 하소연도 해보게 되었어요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의 삶중에 '나'는 어디에 있나 가끔 생
각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안에 내가 있더라구요

지금 가장 젊은 날이고, 낯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에 성실하
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이청아

정유진에게 답장

저는 83세 시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주옥 사는데요
시어머니와의 생활은 참 여러가지 일이 많지만, 이제 재벌 익숙해져
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만의 할줄구로, 여러가지도 배우...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나의 모습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 나누고 털어놓을 곳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삶입니다☺

장성은

자로와 현문,
더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두편이에요.

어느 한구절 한구절 고르기도 너무 백차구요 **

좀더 무게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도한번 다짐이 되네요

자로, 현문 읽으면서 느낀 그 무게감이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와서
짚눌리는 느낌까지 들던 요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시간을 행명이 치고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
약간 피하고싶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직면하고싶지 않고, 혼자 생각하기도 벅찬데 수업까지 무슨. 이런 생
각도 들었구요 **

그런데 역시 수업은
참여하는게 옳은거네요 **
같이 나눴는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벌 가버워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

뜻깊은 명절되세요♡

오늘 수업도 정말 감사합니다 ♪

담임선생님이

태이의 문제가 아니니
친구들과 친하게가 아니라
거리두는법을 가르쳐주라는 연락이왔었어요
이제 또래집단속에서 많은걸 배워야할 시기에 이게무슨
~~

근데 이런 소통을 여기서 배우는거같아요
아이도 엄마도

최현주

그렇게 중심잡아주는 오빠가있고
자기애기를 당당하게 해주는 동생들이 있고
눈어수업시간에 보고있으면 흐뭇합니다

↳

이청아

저는 제 아이의 의외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네요 ㅎㅎㅎ

금방 안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계속 수업은 듣
겠다고 하고..

수업중에도 제 생각보다는 집중하는것 같아서 ㅋㅋ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어요 ㅎㅎ

오후 1:16

맞아요~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도 아니고...
그리고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라고 하더
라구요..
참 속상한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그게 더 안타깝고 그래요

한영진

모두모두 이 시대의 알파배기 훌륭한 엄마고 가정주부세
요. 울고나면 그래도 맘이 가벼워져요.

최현주

속상한거 죄다 털어내고
점심 맛있게들 드세요
울고나서 먹는밥은 왜이리 맛있는지

오후 1:26

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어려서 겸손하지는커녕 우애롭지 못하더니,
자라서도 이렇다할 칭찬거리도 없고?
늙어서 죽지도 않고...
자네야말로 밥도둑이네!

공자님이 함께 육해주니
위안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명절중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는 글귀라
아무리 도를 닦는망으로 산다해도
지쳐서 논어를 들어 펼쳤는데 이페이지가 위로해주네요
ㅎㅎㅎㅎ
공자님이 유머감각도 뛰어나십니다
 덕분에 확개어 웃고 털어버렸습니다만~~

2

이청아

아직도 명절중... 이를 어찌 할꼬요 ㅠㅠ 밥도둑 ㅋㅋㅋ
ㅋㅋ 저 좀 뜨끔 합니다!!?

최현주

지금 시기가 바다의 농번기라 보시면되는데요
그만큼 바쁜시기에 안가고 낚시해주라고
징징대는 남편의 형님을
일하자하면 도망가고
저도 맘편히 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다
따가워하지마세요~~ ㅎㅎ
지금상황을
공자님이 보신듯해서^^

오후 5:45

공자님은 나의 대변인

최현주

공자님이 이렇게 시원하게 육해주실줄은
한바탕 선하게 웃었어요
때마침 논어가 손에들어와
그페이지가 펼쳐진건
대박인거죠 ㅎㅎ

오후 5:51

1

정유진

예고 토닥토닥 ☺
바다 보고 소리한번 지를까요???

오후 5:52

한영진

정말 대박 논어네! 자상하기도 하셔라! 공자님!

오후 5:53

최현주

ㅋㅋㅋ
재밌습니다

오후 5:52

학이시습(學而時習) 복습 또복습 정유진

논어 1편 학이學而

1-1

배우며 때 맞추어 복습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라!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學而時習之不亦說乎

유동자원방래 불역락호!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인부지이불은 불역군자호!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1-3

말을 교묘하게 잘 하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사람이 인 한 예는 드물다

교언영색 선의인 巧言令色 鮮矣仁

1-4

나는 날마다 세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피함에 충성스럽지 아니했는가?

친구를 사귀에 믿음을 잃지 아니했는가?

전해 배운바를 다시 익히 아니 했는가?

오일삼성오신 종일三省吾身

위인모이불충호 爲人謀而不忠乎

여봉우고이불신호 與朋友交而不信乎

전불습호 傳不習乎

1-6

아우나 자식된 사람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해야 하며,

삼가 조심하여 민음을 얻어야 하고,

널리 많은 사람을 아껴주며,

어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일을 한 후에 힘이 남으면 글을 익혀야 한다.

제자입학호 弟子入則孝

출절제 出則悌

근이신 夙而信

범애중 汎愛衆

이친인 而親仁

행유여력 죽이학문 行有餘力 則以學文

1-8

군자가 진중하지 아니하면 위엄스럽지 아니하고,

배우면 고루하지 아니하니,

충성과 신의를 주로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했으면 바로 고치기를 꺼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군자부중즉불위 君子不重則不威

학즉불고 學則不固

주충신 主忠信

무물여기자 無友不如己者

과즉물단개 過則勿憚改

1-11

부친이 살아계신 사람은 그의 뜻을 살펴보면 효자인지 알고,

부친이 돌아가신 사람은 그의행동을 살펴보면 효자인지 안다.

삼년이 지나도 부친의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가히 효자라 할수 있다.

부재관지기 父在 觀其志

부물관기행 父沒 觀其行

삼년무개어부지도 가위효의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1-13

미더움이 의에 부합하면 말을 다시 더할수 있다.

공손함이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 할수 있다.

친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믿고 의지할 데가 있게 된다.

신근어의 언가복야 信近於義 言可復也

공근어례 원지욕야 恭近於禮 遠恥辱也

인불실기진 역가종야 言不實其辭 亦可宗也

1-16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불환인지불가지 不患人之不己知

환부지인야 患不知人也

날마다 논어 쓰는 재미

2021-09-27

(자공이 두루마리 편지와 선물 주고 받았었다.)
 자공: 주는 날까지 명심하야 할 한 글자가 있었습니까?
 공자: 그런 아마 명심할 것 편지 일 것이다.
 자공: 하고 할지 않은 것은 남에게 서지지도 말라.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나이가 갈수록 하면서 모든 것들은 부러 자부심을
 느껴가고 있다. 신지는 바람에, 만일 천 리를 돌아갈
 것을 할까 반박해준다. 여기 저기서 나 여기있다고
 되거나 꽃이. 그래서 나로 잘 마무리하거나 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러나 변질된
 것을 통해서, 온통 모든 생물을 문헌화하고 불로
 손아 버리는 분들을 발견하면 한과 감탄을한다. -
 나를 명수했다. 그러나 국화밭에서 명심해나갈
 한글자 복판 개 1/3 그렇기 하나일 사람이시라

1400 원
 子曰: 有德者必有言.
 有言者不必有德.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말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인품이 나은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말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용감하지만
 용감한 사람이란 반드시 인품이 나은 것은 아니다.

인품이 높으면 말이 훌륭한 것이 옳지만, 인품을 생각하면
 말이 훌륭하여도 인품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품이 높으면 말이 훌륭하게 되고, 인품이
 높지 않으면 말이 훌륭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지만
 용감한 사람은 반드시 인품이 높은 것은 아니다.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가 여인 불여자인
 불가여인 이지만
 지자 불성인
 역불성인.

말해 주어야 하는데,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을 잃게 되고,
 말해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면
 말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잃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잃는 사람도
 하지 않는다.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논어읽기 잠깐씩이라도 매일읽기 한번해보실까요? 그동안 읽은 구절들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남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1학이-1

배우며 때맞추어 복습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랴!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자 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1-4

증자*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피함에 중성스럽지 아니했는가? 친구를 사귀에 믿음을 잃지 아니했는가? 전해 배운 바를 다시 익히지 아니했는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曾子왈 오일삼성오신

1-16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子獨不患不知人也 韓非子인야.

공자 내가 15살에는 배움에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예법을 알아 세상에 바로] 서게 되었다. 40살에는 미혹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고, 50살에는 하늘이 준 운명을 알게 되었다. 60살에는 [무슨 말이라도] 귀에 순하게 들리고, 70살에는 내키는 대로 해도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게 됐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4-14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하라.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為可知也. 韓非子인야

4 이인 19

공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멀리 나가지 않아야 하고, 멀리 갈 때에는 반드시 가는 장소를 미리 알려 드려야 한다.

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자 왈 부모재 불원유 유필유방

4-25

공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뜻을 같이하는] 이웃이 있다.

子曰: 德不孤, 必有鄰. 자 왈 덕불고 필유린

논어로 시작하는
아침
함께 읽고
공감하기

현에] 영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韓, 不恥下問. 자왈 민이호학 불치하문

하고, 얼굴빛을 꾸미고(공자님은 이를 부끄러워)

韓, 色, 자왈 교언 영색

5-27
나만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不如丘之好學也. 불여구지호학야

6 1

한 대그릇의 밥을 먹으며,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고, 누추한 골목에 살다 보면,
一簞食, 일단사
一瓢飲, 일표음
在陋巷, 재루항

30

子曰: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호지자불여낙지자

6 2 0

지적인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적인 사람은 잘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늘 차분하다. 지
적인 사람은 늘 즐겁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子曰：知者樂水，仁者樂山；
知者動，仁者靜；
知者樂水，仁者樂山。

자 알자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물 인자산

9

子曰：三人行，必有我師焉。 자 왈 삼인행 필유아사언

오전 6:48

6

抑爲之不厭，誨人不倦，**억위지불염 회인불권**

오전 6:49

子曰: 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 자왈 군자탄탕탕 소인장
척척

오전 6:51

07 20

증자: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
박학다식하면서도 과문한 사람에게 묻고,
[도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논어 묵상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니 좋고 재미있습니다. 오전 10:16

2

한영진

知者樂水(지자요수) 仁者樂山(인자요산)
이번 추석연휴기간 이른 아침 산책을 할때마다 흐르는 물을 보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후 3:36

4

한영진

돌다리를 통과하려고 물은 상황판단과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옆으로 갈라져야 할지 위로 넘쳐야할지...결국 그 조금 아래에선 다 합쳐질것을. 그래서 지자요수를 많이 묵상하며 고갤 끄덕였죠. 지자동도 마찬가지로구나. ↩️ | ❤️

한영진

그런데 추석날 밤새내린비로 아침산책길에 본 물이 또 말해주더라고요.
에 저렇게 요란한 소릴 내며 흐를까? 오후 3:41

한영진

그건 바닥에 돌때문이더라고요.
아하,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건 마음에 박혀있는 돌때문이구나! 오후 3:44

한영진

그 돌이 무엇일까요?
아름? 상처? 자존심? 논어덕분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모래나 흙이 있는 곳에선 물이 유유히고 평화롭게 흐르지요?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아픔이나 상처를 극복해야되는데 그 작업이 먼저되어야 인자함을 덕을 기대할 수 있지요.
바로 인자정!
기차타고 상경하며 단상적입니다. 오후 3:49

3

장성은

와아....👁👁 두눈번쩍 마음의눈도 번쩍 뜨여집니다 오후 3:52

권윤옥

물소리를 물소리로 듣지 않으셨네요.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 | ❤️

정유진

엄청 깊은 말씀 덕분에 저도 한번 돌아 봅니다
아름? 상처? 자존심? 의기양양? 건방짐? 어설피름? 거만함?
주머니에 꺾꺾 집어 넣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5:25

읽고 듣고 쓰고, 백 번 읽으면 지도자가 된다.

- 출퇴근길 운전하며, 일하며 일상에서 논어강의 유튜브 듣기

YouTube KR

검색

유교의 기본경전
사서 :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삼경 :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 및 당대의 인사들과 나눈 문답이나 언행을 수록한 고전으로 성경에 견주는 동양문화의 정수(精粹)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편 첫 장의 머리말 2, 3자씩 따서 篇名으로 정하였다.

논어원문읽기

조회수 611회 • 2020. 5. 19.

김연욱
구독자 61명

작어의 문장 발췌하여 한문 문장으로 읽어본다

11 0 공유 저장 ...

분석 동영상 수정

論語集註

學而 第一

1.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學而篇)

2.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3. 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

4.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5.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6.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7. 德不孤必有隣

독서교육과정 한학기 한 권 읽기 독서
(국어교육과정과 연계)



조선 시대 천주교 탄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필사쟁이의 삶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이데올로기, 지식 계층과 일반 백성들의 생활사 및 문제의식 등을 내밀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역사 동화책이다.

주인공 장이의 아버지는 필사쟁이로, 밤낮 가리지 않고 언문(한글) 이야기책을 비롯해 수많은 한자 책을 베껴 쓰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그런데 어느 날, 천주학 책을 필사했다는 이유로 천주학쟁이라는 오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간다. 장이의 아버지는 장독이 오를 만큼 매를 맞고 나와 산송장처럼 누워 사경을 헤맨다. 그렇게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고아로 책방 심부름을 하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장이의 이야기이다.

- “훌륭한 선비님들은 <논어>나 <맹자>가 재미납니까? 전 들여다보면 잠만 오고, 봐도 봐도 뭘 소린지 모르겠는데 책방에서는 그 책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 서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홍문관 교리에 오른 조선 최고의 수재가 <논어> 나 <맹자> 같은 경전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말에 장이의 귀가 섰다.
- “어렵고 재미 없어도 걱정 마라. 네가 아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어려운 글도 반복해 읽고, 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하며 무릎 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려운 책의 깊고 담백한 맛을 알게 되지.”
- <책과 노니는 집> 53쪽
- 이 부분을 읽으며 아이들은 논어를 배운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9. 자한편 27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나중에 시듦을 알겠다.

子曰：歲寒，然後知松栢之後彫也。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였던 김정희는 시와 그림은 물론 서예와 금석학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다. 그에게는 교유하는 벗과 제자,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낸 잊지 못할 제자가 있었다. 바로 시골의 그림쟁이였던 허련이었다. 허련은 스승 김정희가 박제가와 완원, 웅방강을 스승으로 섬기기 위해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책을 읽고 화첩을 연구하여 예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런 제자를 기특하게 여긴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허련에게 글씨와 그림을 가르쳤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다해 함께 그림의 꽃을 피운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련 사제지간의 나눔 이야기이다.

수업 일지

7. 31. 토요일 논어수업 일곱번 째

지난시간 공부한 것 중 마음에 가장 많이 남는 구절은 바로 이 문장이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제 논어를 즐긴다고 토요일을 설레며 기다린단다.

공부재미에 빠져든다.

우리들의 논어공부는

읽고 필사하며 마음에 담기로 했다.

그런데 모두들 어쩔 이리 필사를 하는지 감동이다.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묵묵히 기록하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오늘 읽은 述而편에선 이 글이 가장 좋단다. 역시 선생님들이다.

아이들 한시간 어른 한시간 오늘은 따로 공부했다. 아이들의 발표가 활발했다. 더 편하고 좋단다.

사춘기 아들과 신경전벌이는 미경님, 제발 논어백신으로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8살부터 70대까지 모두에게 다가가는 공자님 말씀

9.11 토.

논어수업 벌써 13편이다.

아이들과 소리내어 읽고 공자님 질문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공자님께 질문만들기

매주 읽고 필사하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본다.

콩나물에 물주듯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겠지

아이도 어른도 함께 배우며 대화나누기.

70에 논어를 처음 만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때 논어를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고, 함께 살지 않는 할머니는 카톡으로 손녀에게 읽어주고...

교실에서 논어를 가르치는 김성경선생님 제자 방학 중에 스스로 이미 끝까지 다 읽었다고, 재미있다고 이런 감동 발언도,

<책과 노니는집, 이영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하며 연계도 해 보고 최고 선생님이다.

<구명난 벼루, 배유안>,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추사 김정희의세한도와 소치 허련 사제지간의 만남 이야기 읽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장성은님, 가슴 속 꽉 막혔던 엄마 이야기하며,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나눔

君子之德, 風 小人之德, 草 草上之風必偃

김수영의 시 <풀> 도 생각나는

우리는 글로 하나되는 이문화우

삼척과 서울에서 카톡으로 매일 밤 손녀와 논어이야기 나누는 박인순선생님

함께 공부했어요



아이 따로 신나는 놀이로 수업



어른끼리 깊이 나누어요



공원 갈 때도 논어책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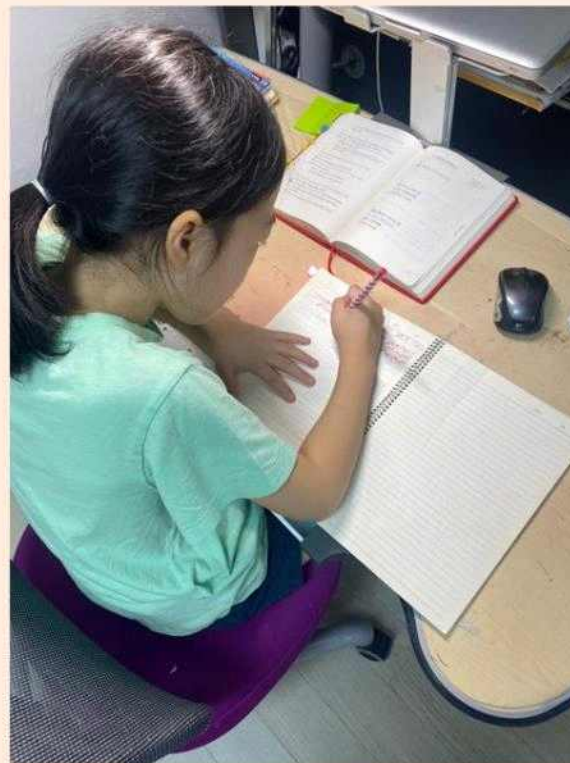


안 보이던 액자가 보여요

학교에서 논어공부 전농초 5학년2반 학생 24명



집에서 읽고 필사해요-숙제하기



논어를 읽으며 내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학생)

-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졌어요
- 바닷가에 쓰레기를 매일 주워요
- 효를 더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문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한문으로 알려주면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옛날사람들의 지혜를 더 깊이 일게 되었다.(1학년 아진)
- 한자도 조금씩 알게 되고 공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 어려운 한자와 논어가 쉬워졌다.
-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다.
- 가족과 얘기할 때 논어에서 배운 단어와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 동생과 관계가 좋아졌다.
-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쉬워졌다.
- 실생활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
- 처음에는 싫었지만 하고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된다.

이서연

제가 느끼는 제일 큰 변화는 한문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새로 접하는 어려운 단어를 한문으로 유추해 보기도 하고, 제가 한문으로 한자씩 설명해 주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논어를 읽으며 내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부모)

- 바쁜 일상을 살다가 문득 어떤 구절이 스쳐 지나가면 논어책을 펼쳐보게 된다.
- 마음속에 논어 두 글자가 살아, 좀 더 겸손하고 예의있고 공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논어와 성경을 오가며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지고있다.
-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 혼자 읽으면 절대 못 할 일을 함께 하니 가능하다.
- 출퇴근 운전하는 시간 논어강의를 듣는다.
- 산에 갈 때 쓰레기봉투10L용 들고 간다.
- 여전히 부끄럽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한다.
- 仁에 대한 끝없는 묵상, 멀고 먼 길임을.
- 한자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카카오톡 한자표기와 패들릿을 배워 재미를 붙였다.
- 아이 셋, 강아지까지 버거운 일상에서 논어 책의 문장들이 떠올라 감정을 추스르며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조심하게 된다.
- 수업 중 어른 선생님들이 나누어 준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된다.

시사점

3대가 함께 읽는 논어

- 가족이 함께 나누는 공통의 대화
- 대를 이은 정신적 유산,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하는 가치
-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접점에서 삶의 지혜 나눔, 토닥토닥 위로와 감사의 시간

온라인의 이로운 점

- 전국 각지에서
- 업무 중에도(운전, 등산, 캠핑 등)
- 주 1회 수업이지만 매일 논어로 살기 - 카톡 패들렛

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딱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삶의 지식, 배려와 덕을 알려줌.
- 어렵듯이 알았던 문장들이 논어에 근거를 두었다는 사실에 반갑고 놀라움. 한문공부의 매력에 빠짐.
- 논어를 열심히 읽어 지도자가 될 것이다.
- 공책정리를 하며 논어를 익히는 방법이 좋았고, 논어의 주옥같은 문장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었다.
- 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고픈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밤마다 페이스톡으로 나누는 대화.
-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것 같다.

논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패들릿으로 수시 나누기

<https://ko.padlet.com/solsoop20051/l6zudy3qa6p10j9g>

논어공부를 하며

논어공부를 하며 어떤 말이 마음에 남았나요? 논어를 읽으며 속 내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잘 생각하여 적어볼까요?

우리들의 공부시간

김연옥 10월

9.18 현문편



♡ 2

댓글 추가

익명 15월



기억나는 낱말이나 문장

익명 15월

전유안

예, 군자, 공문사교, 효

♡ 0

댓글 추가

익명 15월

차해원

배우고 때 맞추어 복습 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라.

♡ 5

댓글 추가

공책에 필사한 글을 옮겨 볼까요?

댓글 추가

wondermama-이정마 9월

안하 비천, 문치 (비천)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wondermama_books

♡ 2

댓글 추가

한 편의 글로 쓰기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가끔 우이동 계곡이나 우이천을 데려간다. 그런데 6월부터 논어교실을 연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논어교실에 손자를 참여시키고 싶어서 제 얼마 아홉 눈치를 보니 바빠서 주말에 쉬고 싶었다. 그럴 나라도 함께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 논어를 같이 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이 논어교실에 2주 늦게 합류했다. '꾸준히 하다보면, 자꾸 돌아보면, 그래도 몇귀절은 남겠지, 평생 뇌에 새기고 가슴에 남는 구절이 몇 개만 있어도 그게 어디야?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내 맘이 안타까웠다.

돌만 나면 유투브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손자, 틈만 나면 우이천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손자를 데리고 함께 토요일 오전 시간에 논어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손자특성

내 생활에 변화가 있다면?

살생활에서 다름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 또, 뒷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군자의 덕목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유익했다.

♡ 1

댓글 추가

김연옥 15월

신규홍

처음에 할머니가 논어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는 싫었지만 막상 하고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 했다.

♡ 1

댓글 추가

김연옥 15월

가족이 함께

가 있어 가족대화

♡ 1

댓글 추가

익명 15월

박인순

토요일 논어 공부 가 지난 후 여덟시 마주 앉아 폐록요. 을 팔치기 시작했 km의 거리가 순스 그 날 있었던 이(의 구절 속에서 상황이 술술 풀려 때로는 할머니가, 기도 하고 은오가 는 책을 꺼내어 기도 한다. (이런면가, 지나면

토론문

권애영¹⁾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한자와 한문교육을 실천하셨던 김연옥 선생님의 열정과 경험이 잘 녹아있는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에 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연옥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대학원에서 국어교육과 함께 한문 공부도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사가 이러한 소양을 쌓기란 개인의 의지와 가치관이 투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온갖 잡무와 다양한 과목의 수업, 해마다 바뀌는 학년과 업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 영역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학교 현장에 계셔본 분은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공교육 현장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자교육을 통해 어휘력을 신장할 수 있고 문해능력 및 학습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확립과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혹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자나 한문은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데다가 그 사상이 고루하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편견 아래 영어나 제2 외국어 교육에 밀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동을 비롯한 젊은 세대의 한자나 한문에 대한 소양은 개인 혹은 관심있는 가정이나 일부 교사나 학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자 혹은 한문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정선된 교육과정 자체가 부재하며 국가적 수준의 교육용 기초 한자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연옥 선생님의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에 관한 발표문에 관한 저의 의견을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의국어대학교

1. 학습 목표 설정의 타당성

김연옥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에서 설정한 학습목표는 첫째, 고전읽기로 인문학적 소양 기르기 둘째, 삶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셋째, 삶에 스미는 실천 넷째, 한 권 깊이 읽기 평생독서 지향의 넷입니다. 즉 한자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거나 문장을 암기하는 지식확장 측면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동들에게 책을 통해 무언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훈이나 깨달음이 아동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교훈을 강제하는 건 좋은 독서교육이 아님을 우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 선생님은 카톡과 패들렛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은 글을 필사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내 삶의 논어를 정리하는 활동은 선생님이 설정하신 학습목표에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글을 낭독하고, 적어보고, 약 2500년 전 성인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화의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3대 혹은 2대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카톡과 패들렛에 올림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뜻풀이 사전을 활용하여 자신이 잘 모르는 낱말을 찾아봄으로써 어휘력과 새로운 낱말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다양한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어교육과정과의 연계

2015년부터 학교교육과정에 도입된 ‘한 학기 한권 읽기’는 그동안 아침자습 시간이나 재량활동에 운영되던 독서활동을 교과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교과 시간에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읽고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연옥 선생님은 이 방면의 전문가로서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교

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의 강점과 전문성을 <논어> 읽기에도 반영하여 평생동안 간직할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유교가 가장 성행했던 조선시대가 배경인 두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유교 경전과 문인들의 삶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논어>의 바탕인 여러 덕목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선생님이 책을 선정하여 제시해도 좋겠지만,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각자 책을 추천한 다음 2-3권으로 압축하여 같이 선정하여 그 책들을 읽는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독서활동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이 더 보람있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고전읽기의 의미

최근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중화문화권에서는 ‘경전읽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전읽기는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학습의 형태였으나 과거제도의 폐지와 서구의 교육제도 수용,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교육형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중화문화권에서는 유구한 중화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교육 방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내세우며 다시 전통적인 고전학습 부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과급력이 큰 공영방송(CCTV)에서도 ‘고전’과 관련된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 역시 2011년 개정된 제8차 국가 교육과정에 중국적 특색의 강화를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며, 교육내용에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와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중국 기초교육의 우수함을 계승하고 드러낼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아래 지방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통문화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서란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를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삶에 불변하는 이치를 일깨워주는 책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인된 경서로는 서양의 ‘성경’, 인도의 ‘베다(Veda)’와 ‘불경’, 그리고 <논어>와 <맹자> 등을 비롯한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중국의 교재를 보면 <논어>가 고학년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 국가 교육행정원 초등학교 실험교재 목록>

구분	교재명	유형	부록 내용	활용 단계
기 초 교 육	1 《弟子規》	계몽 유가류	중국 전통역법, 명절	1학년
	2 《三字經》	계몽 유가류	중국의학, 아동보건	2학년
	3 《千字文》	글자 익히기	중화 민속 문화	3학년
	4 《聲律啟蒙》	성운격률	중국 전통음악 감상	4학년
	5 《論語》上	유가	중국 서법·예술 감상	5학년 상
	6 《論語》下	유가	중국 서법·예술 감상	5학년 하
	7 《孟子》上	유가	중국 회화·예술 감상	6학년 상
	8 《孟子》下	유가	중국 회화·예술 감상	6학년 하

<논어>를 중국 전통의 도서이며 이미 폐기되어야 할 전통 가치관을 담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와 인식을 지배하는 유가의 사상을 배제하는 근시안적 사고일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서로 경계를 나누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동양사상의 뿌리와 우리 전통문화에 깊이 녹아있는 ‘유가’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한자와 한문에 대한 소양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마치 아랍어나 러시아 글자를 보듯 한자와 한문을 이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는 잊혀진 만주어처럼 우리 조상들의 문화 전승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점도 활용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연옥 선생님이 주도하고 있는 <논어> 읽기는 ‘고전 학습’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제자규(弟子規)》나 《삼자경(三字經)》 등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중화문화권 기초 고전교재로 우리 한자독음과 중국어를 병행한 독서모임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계실 때부터 은퇴한 이후에도,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꾸준히 의미있는 독서모임을 꾸려가고 계시는 김연옥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과학고전 읽기

문영하¹⁾

[목 차]

- I. 여는말
- II. 코스모스 읽기 준비 과정
- III. 코스모스 읽기 6회 과정
- IV. 코스모스 읽기를 통한 변화
- V. 맺으며

1) 경북영광여자중학교

I. 여는 말

영주과학교사모임은 1999년 3월에 영주지역 과학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수업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교사 연구 조직이다. 청소년들에게 여름 방학에는 과학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겨울 방학에는 천문캠프를 통하여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립하여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외에도 영주과학축전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자 지금까지 쉬지 않고 활동을 하였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영주과학교사모임에서 주관하는 과학캠프, 천문캠프, 과학축전 행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년 동안 하지 못한 행사로 인하여 학생들과 떨어진 과학 활동을 좁혀보자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함께 과학 고전 읽기를 제안하였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했지만, 2021년은 용기를 내어서 줌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비대면 과학 캠프와 과학 고전 읽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학 고전 읽기를 기획하여 온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과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한 소통과 과학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과학 행사는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고,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또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한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비대면 상황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하였다.

		
발족식(1999. 4.27)	제1회 과학캠프	제2회 천문캠프

과학교사와 함께 과학 고전 읽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고전 읽기를 함께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독서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여유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다.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은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상호 교감의 시간을 통해 알아가는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3.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분야를 직접 PPT를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훈련을 하므로 정리 및 발표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책은 씨앗과 같다. 수 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은 채 동면하다가 어느 날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책인 것이다.(p560)’ 척박한 과학의 토양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영주과학교사모임이 하는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귀한 씨앗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Ⅱ. 과학고전 읽기 준비 과정

1. 학생 모집

22년간 영주과학교사모임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훌륭하다. 먼저 포스터를 제작하여 카톡방에 안내하였다. 공문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또 하나의 업무가 됨으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참가도 학생 본인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였다. 관내 중, 고등학교 12개교에 안내하였으며, 개인 SNS를 보고 신청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1) 과학교사와 함께 과학고전읽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생들 개인에게 안내하였다.



2) 구글 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코스모스 고전 읽기 참가신청서

*과학교사와 함께 하는 과학고전 읽기*2021년 도서: 코스모스(칼세이건)

@ 줌(ZOOM), 월1회 밤8시~9시30분
@ 신청기간: 5.1(토)~5.8(토)
@ 사전모임: 5.9(일) 밤8시
@ 모임: 5.23/6.13/7.25/8.15/9.12/10.23
@ 품어는 밤(전체관측회) 8.15 예정
@ 참가확장: 코스모스 책 제공, 6회 참가자 선물

1. 소속학교/학년 반 번호/성명(예: 영광여중/2110/문영하)

답답함 텍스트

2. 핸드폰 전화번호(예: 010-8770-7637)

답답함 텍스트

3. 집 주소(책받을 집주소 우편번호, 주소)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답답함 텍스트

4. 자신을 알려주세요(PR)

답답함 텍스트

5. 책 읽기에 참가하는 생각/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답답함 텍스트

신청 인원은 학생 46명과 교사 10명으로 56명이 신청하였다.

3) 참가 학생들을 위한 카톡방을 개설하여 사전모임을 안내하였다.

4) 참가 학생들에게 코스모스(칼 세이건) 책을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 주었다.

5) 비대면 모임을 위해 줌(ZOOM) 아이디와 비번을 안내하였다.

2. 코스모스 사전 모임

1) 일 시: 2021년 5월 9일(일) 20:00~21:00

2) 참가자: 53명

3) 내 용: 참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낯설어하는 분위기를 줄이기 위

해 먼저 교사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줌을 통한 인터넷 예절 및 함께 읽기를 위한 안내를 하였다. 인터넷 예절 교육에 당부한 것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으니 하지 않기를 당부했으며, 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유가 없으면 화면을 켜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 코스모스 (칼세이건) 2021. 5. 9(일) 영주과학교사모임	3. 과학이 있는 밤 '과학교사와 함께 하는 과학고전 읽기' 2021년 도서: 코스모스(칼세이건) 월1회[일 9시~10시30분(6회)] 5,6,7,8,9,10월 문화행사로 별관축제 1회 책 제공, 6회 참가자 선물	
사전모임 PPT	사전모임 PPT	참가자 사진

Ⅲ. 코스모스 읽기 6회 과정

코스모스 읽기 과정 6회를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일 시	발표, 나눔 단원	발표자	비고
1회	5.23 (일)	1. 코스모스 바닷가에서 2. 우주 생명의 푸가	문영하 교사	비대면(ZOOM)
2회	6.13 (일)	3.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4. 천국과 지옥	권석용 교사	비대면(ZOOM)
3회	7.25 (일)	5.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문영하 교사	비대면(ZOOM)
4회	8.13 (금)	7. 밤하늘의 등뼈 8.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9. 별들의 삶과 죽음	권도윤학생(중) 송시윤학생(초) 문정현학생(고)	대면 (영주발명센터) 비대면(ZOOM)
5회	9.12 (일)	10. 영원의 벼랑 끝 11. 미래로 띄운 편지	문영하 교사	비대면(ZOOM)
6회	10.24 (일)	12. 은하 대백과사전 13.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 해 줄까?	문영하 교사 김옥경 교사	비대면(ZOOM)

1. 1회 모임

1) 일 시: 5월 23일(일) 20:00~21:30

2) 참가 인원: 53명

3) 특 징: 첫 모임이라 참석 인원이 많았다. 패들렛에 많은 질문을 남겨 주었다. 문영하 교사가 40여분간 1, 2장을 PPT로 설명하고, 권석용 교사가 학생들이 올린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주었으며, 감명 깊은 문장도 정리해 주었다. 학생들이 줌 화면에 끄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사진	발표자:문영하 교사	발표 화면

2. 2회 모임

1) 일 시: 6월 13일(일) 20:00~21:30

2) 참가 인원: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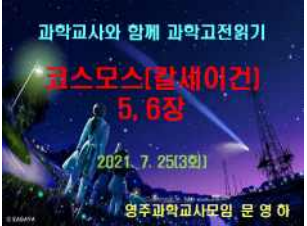
3) 내 용: 권석용 교사가 3, 4장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1회 모임보다 참석 인원은 적었지만 코스모스를 즐겨 읽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패들렛 질문은 문영하 교사가 안내해 주었다. 학생들의 질문 내용이 1회보다 많았다. 후기에 남김 글들을 보니 적극적인 책읽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 고등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마무리 시간에 문정현 학생이 신청곡을 받아서 줌으로 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권석용 교사	발표 화면

3. 3회 모임

- 1) 일 시: 7월 25일(일) 20:00~21:30
- 2) 참가 인원: 35명
- 3) 내 용: 여름 방학을 하고 하는 모임이라서 참석이 조금 적었다. 문영하 교사가 5, 6장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치고 전에 학생이 틀어주는 음악으로 마무리하였다.
-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문영하 교사	발표 화면

4. 4회 모임

- 1) 일 시: 8월 13일(금) 17:30~21:00
- 2) 참가 인원: 34명(대면 18명, 비대면 16명)
- 3) 내 용: 영주발명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인원이 적었다.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고 먼저 폴라네타리움에서 여름 별자리를 안내 하였다. 저녁 7시부터 대면, 비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7, 8, 9장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7장 송시윤 초등학생, 8장 권도윤 중학생, 9장 문정현 고등학생이 발표를 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발표하는 능력이 좋았다. 한 번씩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 4)활동 사진

		
대면 참가자 단체 사진	비대면 참가자 단체사진	폴라네타리움 관람

		
송시윤(초) 발표 학생	권도윤(중) 발표 학생	문정헌(고) 발표 학생

5. 5회 모임

- 1) 일 시: 9월 12일(일) 20:00~21:30
- 2) 참가 인원: 30여명
- 3) 내 용: 문영하 교사가 10, 11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감명 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의 참여가 많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나눔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보이저호에 탑재한 레코드판을 회상하며 문정헌 학생이 레코드판을 틀어주고 직접 음악을 송출하였다.
-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 문영하 교사	레코드판으로 음악 송출

6. 6회 모임

- 1) 일 시: 10월 25일(일) 20:00~21:30 예정
 - 2) 참가 인원: 미정
 - 3) 내 용: 발표자는 소소한 책방 참가 교사 1명, 문영하 교사가 담당하고, 고흥승수 교수님 제자 초청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흥 교수님의 천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제자를 통해서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다.
- 열심히 참석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시로 간식(바나나우유, 아이스크림, 편의점 사육권, 딸기 빵, 빙수 등)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선물은 비대면 환경

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하였다.

IV. 코스모스 읽기를 통한 변화

글을 읽고 감명 깊은 문장을 적게 하고 자신이 느낌 점을 나누어 보도록 패들렛을 만들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올려주면 교사가 답변하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고전 읽기를 마치고 난 후 소감을 적게 하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 우리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여 선물로 나누어 주려고 한다. 다음은 학생과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겨준 글들을 정리하였다.

1. 학생 글(과학 소감)

우리는 현재의 코스모스를 알기 위해 과거의 코스모스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코스모스라는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고 이 책에서 계속 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옥대초 송시윤)

처음에는 우주에만 관련된 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놀랐다. 그리고 원래 우주에는 관심이 없었고 과학을 좋아해도 가장 흥미롭지 않던 분야가 우주 관련 분야였는데 점점 호기심이 생겨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쯤이면 어떻게 되어있을지 궁금하다. (영광여중 김민정)

100세, 120세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운운한 이 시대에 나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120세는 정말 오래 사는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인류가 존재한 것은 시간상으로 아주 조금이다. 또한, 이 우주 앞에, 코스모스 앞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수많은 별과 행성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인간들은 사소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할까? 생각했다. 나는 힘든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우주에서 본 내 모습은 암흑 속에 숨겨져 안보이므로 나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주 앞에서 나는 작아진다. (옥대초 송시윤)

특히 4 챕터의 마지막장에서 지구와 인류 사이 속의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름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우리 인류가 아는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이고 인류에게 지구라는 존재는 낙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변화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또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거나 일상을 빼앗긴 이유도 우리가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지 않아서라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미상)

서문에서도 나왔듯이 한 사람이 코스모스 전체를 일생에 연구할 수 없다. 아니 일 세대, 이 세대, 삼 세대.....에 이르기까지도 코스모스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초마다 팽창해서 새로운 행성 항성 성단 은하 등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코스모스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케플러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신기한 것들을 발견해 냈다. 특히 중력과 만유인력의 개념을 예견한 것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뉴턴 이전에도 중력 비슷한 것을 언급했다니... 나는 케플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업적을 가진 위인이란 걸 오늘 알게 되었다. (미상)

3장에서 케플러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의 진리 앞에서의 겸허한 수용, 자신의 오류를 담대하게 받아들임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에 입각한 진리에 대한 탐구야 말고 오늘날 인류가 이룩해 놓은 과학의 가장 큰 결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혼자서 No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가 잘 알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Top이 아니었지 싶어요. 이번 기회에 케플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친숙한 인물이었는데, 케플러가 왜 그동안 자주 지구과학에 거론되었는 인물이었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저도 필사를 하며 좀 더 자세히 읽도록 해보고 싶어요. (옥대초 우성준)

화성에 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화성의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화성에 생물이 있다면 이 글처럼 화성은 지구처럼 건물이 있고 길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화성은 지구와 달리 변화가 없다. 그래도 칼 세이건은 희박한 가능성을 두고 세균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 난 그 점을 아주 흥미롭게 보았다. (영광여중 박예원)

맞다 인류의 대 항해는 시작되었다. 이제 보이저 1, 2호는 태양계를 거의 벗어났고 그동안 많은 정보를 보내왔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궁금증의 해결을 위해 인류의 도전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위헌스는 엄청난 위인이다. 지금까지 이런 위인을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내 생각엔 하위헌스는 뉴턴 못지 않은 몇 안 되는 천재인 것 같다. (옥대초 송시윤)

칼 세이건이 정말 살아 계셨다면 우리 지구가 훨씬 더 과학적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한다면 참여해 보고 싶다. (동산여중 권나영)

크고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지구. 또 그 속에 먼지만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인간의 뇌 속에 대략 2,000만권의 책 더미와 비교될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간다니 정말 경이롭다. (옥대초 우성준)

10장에서 코스모스의 시작과 끝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계속 궁금했던 주제라 흥미롭게 읽었지만 헛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플러 효과나 적색편이 현상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프리드만의 우주론 같이 또 부가 설명을 해주셔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칼 세이건 작가님이 11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외계의 지적생물과의 교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지구의 지적생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같이 교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완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끝까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여중 김채은)

2. 학생 글(함께 읽기 소감)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PPT를 준비해주신 문영하 선생님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재밌었던 생각 나누기 시간이었습니다. 2회를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여중 조민경)

책을 혼자 읽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제가 생각 못했던 점도 많이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고 다음 모임도 많이 기대돼요. (옥대초 우성준)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기 전에 생각보다 두꺼워서 읽기 전부터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지만 처음의 서문부터 2장까지를 읽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우주에 관한 영화까지 시청하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었다. 하지만 코스모스 줌 모임을 통해 어렵던 부분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메꿀 수 있었고, 게다가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코스모스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끝까지 읽고 나중에 더 자세한 부분까지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고, 우주에 흥미나 지구과학, 생명과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꼭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읽어야겠다. (영광여중 김채은)

다른 분의 궁금한 점이 나와 같을 때 반가웠다. 그리고 책을 읽은 후 생각을 말할 때 말을 모두 조리 있게 잘하셔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책을 완독 하지 못했지만 다음 모임까지는 책을 몇 번씩 읽고 질문도 많이 해야겠다. (동산여중 김혜원)

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꽤 있었는데 몇 가지는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아 해결했지만 몇몇 궁금한 점들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궁금한 점들이 다 해결이 되어 좋았고 3장을 읽을 때는 100%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읽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동산여중 권나영)

과학고전 읽기 모임을 하던 중에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인상 깊게 읽은 문장, 궁금한 점, 새롭게 알고 싶은 점 등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재밌었다. 읽을 때 생각보다 더 책의 내용이 어렵고 1.코스모스의 바닷가에서 2.우주 생명의 푸가만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꽤 많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씩 찬찬히 정리해 주시며 인상 깊은 문장 같은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실 줄 몰랐는데 과학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풀리고 감사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야겠다. 다음 내용은 어떨지 궁금하고 또, 다음 모임은 어떨지 기대된다. (동산여중 장민주)

처음 만났는데 잘 마무리한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잘하고 싶다. 너무나 재미있다. 다음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 아직은 너무나 어렵다. 발표 준비 제대로 해야겠다. (옥대초 송시윤)

책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 들지만 막상 글을 적으려고 기억을 떠올리면 잘 회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책을 읽으면 제가 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칼 세이건의 옆에서 같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동료연구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칼 세이건과 함께 우주를 탐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모험도 기대됩니다. (미상)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PT를 본인의 시간을 써 만들어 주신 문영하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매회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 읽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발표할 때 인상 깊은 문장을 잊어버린 것도 아쉬웠다. 이젠 더 노력해야겠다. (동산여중 김혜원)

죽으로만 하다가 직접 만나서 모임을 하니 반갑기도 하고 더 생생하고 더 재미있었고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직접 가길 잘한 것 같다. 같이 책을 읽고,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읽은 부분들이 이해도 더 잘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벌써 다음 시간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옥대초 우성준)

3. 교사 글(과학 소감)

보이저호의 기록처럼 문영하 선생님의 시도로 시작된 이 '코스모스 과학고전 읽기'를 통해 시작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미래에 훌륭한 과학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대영중 김해룡)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던 케플러와 뉴턴의 이론들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구자의 갈등과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만약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 (영주중 김지숙)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주의 광대함에 더욱 감탄하게 된다. 코스모스 책이 출간된 이후 우주탐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우주의 창조주의 능력 앞에 겸허해지는 시간이다. (운양고 강남희)

보이저 함장의 가상 항해 일지는 감동의 쓰나미이다. 개개인의 인생 중 가장 기억이 강렬한 부분만을 연결하여 기록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강천중 김옥경)

인간이 지구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당연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칭찬했고, 잘 적응하지 못한 종은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과거에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한 유기물에 후손이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이 인간과 같이 자연에 적응한 개체수보다 훨씬 많은 후손을 남기에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죽게 되므로 안타까웠다. 엄청난 종류의 모든 생물들이 주위에 적응을 하면 지구는 생물들로 꽉 차서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은 소수의 생물만 남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영주중 김지숙)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공기, 물, 온도가 이 책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고 접근해 오면서 나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책에서는

7장을 읽으면서 '아리스타르코스'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력적인 과학자를 이제야 알게 되다니~ 역시 코스모스의 힘!!!

8장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직 좀 어렵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듯 하면서도 또 아리송한 느낌, 쉽게 설명해 놓은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9장에서 엄청나게 큰 별들의 생성과 죽음이 우주속 미물인 우리네 삶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에 친근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의미있게 살고 때가 되었을 때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생긴다. (운양고 강남희)

오랜만에 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계와 별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고, 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다양한 별들의 이야기는 우리 교실 아이들 이야기와 겹쳤다. “그들은 코스모스에 사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고 싶었다. 나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또 다른 세계를 침범하고 파괴 할까봐, 식민지 역사처럼 호기심으로 시작해 잔인성과 이기심으로 끝날까 두렵다. (정아령)

보이저 1, 2호의 항해를 통하여 목성과 그 위성, 토성이 탐사된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기회를 가진 것에 감동이다.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로 떠나는 망망대해의 기분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다. 앞으로 2025년에는 에너지원의 고갈로 우주미아가 된다 하더라도 제3의 새로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탐사하는 인간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광여중 문영하)

10~11장도 배움의 지점이 많아 신선했다. 남작이 나라 비유를 통해 4차원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힌두교의 시간의식도 놀라웠고, 고래의 높은 지능과 사랑 노래도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속성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자애로운 모습도 있지만 화가 났을 때 화산처럼 포효하는 모습도 있음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보면서 우리 지구의 분노 게이지가 상당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지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 (운양고 강남희)

4. 교사 글(함께 읽기 소감)

함께 읽기는 역시 힘이 세군요. 코스모스를 혼자 읽으면서 느낀 생각의 단편들이 책 나눔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이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연령을 초월한 이런 신선한 만남이 참 좋습니다. (운양고 강남희)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 모임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지역을 뛰어넘어 책을 공통분모로 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코스모스 책모임이 참 좋습니다.(미상)

아쉬웠던 코스모스 독서를 이번에 완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즐겁고 고맙다. 칼 세이건의 지적 능력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뛰어난 역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생전에 만날 수도 있었음에 매우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이전에 만났었어도 나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영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강천중 김옥경)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가 되어서 여러 번을 도전하였지만 늘 두께와 낯선 용어 등에 좌절하여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모임을 하고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각자 다른 코스모스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코스모스가

되는 이 모임이 너무나 좋고 다음이 기대됩니다. (영주발명센터 권석용)

여러분들과 함께 칼 세이건을 읽는 기쁨을 표현한 것 같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주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한 인간의 시간 '찰나'. 우리가 함께한 것은 확률로 불가능한 만남임에도 여러분과 함께 코스모스를 읽는 것에 감사합니다. 칼 세이건이 첫 장에 적은 명문장이다. 나도 책을 쓰면 첫 문장에 무엇이라고 적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영광여중 문영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거나 기존에 알았던 내용을 위주로 ppt를 만들고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놓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책을 학창 시절에 읽을 때는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작가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점을 생각하며 읽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론적인 내용이 있으면 더 궁금하고 파고들게 되는 거 같아요. 참 매력 있는 책입니다. (영주발명센터 권석용)

5. 기타 활동

행사를 위해 토퍼를 직접 제작해 준 선생님도 계셨고, 행복줍살롱(행복가교)에 출연하여 과학 고전을 함께 읽는 즐거움을 안내하였다. 경상북도 과학교육연구회에 참가하여 과학 고전 읽기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코스모스 내용을 필사하여 선보인 선생님도 계셨다.

		
토퍼를 제작해 주신 선생님	과학고전 읽기 소개(행복줍살롱)	코스모스 내용 필사하기

코스모스 함께 읽기를 통하여 변화된 사실은 함께 코스모스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이다. 700여 쪽의 책을 혼자 읽기는 쉽지가 않다. 시간은 걸렸지만 함께 느리게 나누며 읽기를 한 것이다. 코스모스를 통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였고 다양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감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연령을 초월한 신선한 만남과 다음 모임이 벌써 기다려지는 학생들도 있었다. 분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V. 맺으며

영주과학교사모임은 22년간 과학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지역사회에서 과학 대중화에 이바지했다. 코로나 19로 막혀 있던 길을 뚫고자 비대면 과학 캠프, 비대면 고전 읽기 등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 중에 있다. 학생들을 향한 탐구 능력 향상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한 결과 과학 고전 함께 읽기를 계획 하였다.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고 지평을 넓히는 것은 국어 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처음 시도한 일이라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특히, 치밀하게 준비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좀 더 준비된 답을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비록 ‘칼 세이건’의 생각들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맛본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여력이 계속된다면 1년에 한 권씩 과학 고전 읽기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학 고전은 참으로 많다. 혼자서는 읽다가 덮어둔 책이 많다. 답은 함께 읽기다. 2022년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함께 나눌 예정이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독서 모임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과학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의 노력들을 경주한다면 더 좋은 모습의 독서 활동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열린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홍영일 박사님의 헌신으로 진행된 행복줍살롱(행복가교)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줌(ZOOM) 사용 기법과 다양한 분야에 나눔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과학 고전 함께 읽기라는 작품이 나온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초록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과학고전읽기

문영하

본 연구에서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과학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열린 독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영주과학교사모임이 주관한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 전 과정을 정리해보고 비대면 상황에서 줌(ZOOM)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할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고전읽기 모집과 준비과정, 진행된 상황들을 공유하고, 변화된 생각들을 통해 함께 읽는 즐거움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핵심어 : 칼 세이건, 과학고전읽기

ABSTRACT

Reading a Cosmos (Carl Sagan) science classic with a
science teacher

Moon Yung-Ha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open reading in non-face-to-face situations through the Cosmos (Carl Sagan) science classic reading program.

The entire process of reading a science classic with a science teacher hosted by the Yeongju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was summarized, and a plan to be with students through ZOOM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was suggested. We shared the recruitment, preparation process, and progress of science classic reading,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sharing and the joy of reading together through changed ideas.

Keywords : Carl Sagan, reading a science classic

참고문헌

칼세이건, 『코스모스』, 홍승수역, 사이언스북스 2006.

토론문

서회경¹⁾

이 논문은 영주과학교사 모임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여름과 겨울 방학마다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와 과학 상상력을 심어주기 위해 체험활동으로 해 왔던 과학 캠프가 코로나를 맞아 대면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그럼에도 과학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과학 고전 읽기로 활동을 변경해 월 1회 총 6차시 과정의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고전 읽기 과학 캠프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던 전 과정을 기록하며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포스터 SNS 홍보를 통한 학생 모집 단계 방법부터 각 회차별 내용과 진행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 읽기에 참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소감을 서술하여 읽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생생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영하 선생님을 비롯한 영주과학교사들의 코로나에도 식지 않은 과학 탐구 정신의 순수한 열정이 학생들에게 잇닿고 있어서 다음세대인 아이들의 성장시기에 과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어 탐구정신과 발명정신을 북돋아 가면서 미래에 한국의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교육의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강의는 코로나 이전에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에 그 효용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강독과 독서토론 활동으로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과학 고전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함께 읽고 질문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은 아주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을 전공했거나 전공하지 않았던 성인이 읽기에도 700페이지

1) 숭실대학교

에 이르는 분량의 글은 혼자서 시작하기에도 어려운 독서 활동입니다.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야 하는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두루 갖춘 마치 과학 철학서 같은 ‘코스모스’ 읽기를 10명의 교사와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읽어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이 읽기 강좌가 전국을 대상으로 열린다면 저도 참석하여 강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연구가 활동을 기록한 실증적 논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대신 하는 것으로 이제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과학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 고전 읽기 모임을 진행하는데 수많은 과학 고전 책이 있었을 텐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로 정한 까닭이 있으신가요?

둘째, ‘코스모스’ 읽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과 예상 밖으로 온라인이었기에 도움이 되었던 점을 언택트 시대의 독서의 열린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셋째, 4회차에 발명센터에서 대면 수업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이 중간을 넘어서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을 때와 다르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선생님들께 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 고전 읽기는 인문학 서적에 비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과학이라는 전공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도할 수 있는 과학 선생님이 필요하니까요. 과학 고전 읽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또 혼자 읽는 것보다 왜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어야 할까요? ‘코스모스’ 읽기를 통해 변화되고 성장한 아이들의 체험담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또 과학 고전 읽기를 진행할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웬지 탐구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계속 아이들에게 정답 대신 물음표(?)를 심어주며 과정을 느끼게 해 줘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 읽기 후 아이들이 바라보는 별하늘을 다룰 것입니다. 과학 고전 읽기 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다섯째, 대면 활동을 했었을 때처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제약에 동기가 흐트러질까 봐 SNS로 간식을 주었다는 교사들의 소소한 노력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다음 읽기는 다윈의 ‘종의 기원’ 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선정한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코스모스’를 읽은 후이기 때문에 강독과 토론의 방법이 조금 더 보완되었을 거라고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계

획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섯째, 과학을 전공한 친구들의 경우를 보니 과학 글쓰기 교육을 대학에서 진행하는데 과학 고전 읽기 후 과학 글쓰기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바야흐로 화성에 화성탐사 로버를 보내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 과학 시대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문장이 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 철학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력과 우주적 상상력을 키우라고 하면서도 사실 과학 교육은 청소년기가 아니면 성인에게는 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시민교육으로 확대해서 이루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교육자인 선생님께서 계획하시는 과학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이 느껴지는 깊은 글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영하 선생님과 영주과학교사 모임의 건강한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1. 학회소개

본 학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韓國 讀書 아카고라 學會)」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라 하며, 약칭은 「RAAK」라 한다.

(명칭 중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서,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공히 표방한 것임.)

본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계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학회임원 · (2021.01~2021.12)

소개

회 장: 오길주 (경민대학교 아동독서지도과 교수)

부회장: 김연홍 (전 경민대학교 교수)

김현경 (경민대학교 아동독서지도과 교수)

감 사: 조월레 (아동도서평론가)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기획이사 - 김장호 (경민대학교 창의교양독서교육원 책임교수)

총무이사 - 정명자 (중원대학교 교수)

사업이사 - 허 기 (봄봄출판사 대표)

학술이사 -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출판이사 - 김경희 (가천대학교)

대외협력이사 - 김용환 (주리딩게이트 대표)

국제이사 - 미국_윤재영 (피듀대학교),

중국_전금화 (길림대학교)

콘텐츠이사 - 윤수진 (송원대학교)

· 편집위원회(2021.01~2021.12)

위원장: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위 원: 황선미 (서울예술대학교), 김경희 (가천대학교),

오길주 (경민대학교), 박종진 (연세대학교),

오세정 (충북대학교), 정민경 (제주대학교),

이정선 (호서대학교), 윤수진 (송원대학교),

장정희 (서울대학교),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간 사: 김수연 (경희대학교)

-
- 3. 학술대회**
- 제1회: 2015.09.10. 「독서의 학구적 학술성과 열린 활동성」
- 연혁**
- 제2회: 2016.09.24. 「매체 융합 독서교육과 열린 활동성」
 - 제3회: 2017.10.13. 「독서문화콘텐츠의 열린 활동성」
 - 제4회: 2018.11.10. 「그릿 독서와 열린 활동성」
 - 제5회: 2019.10.26. 「멀티플 독서문화 공간과 열린 활동성」
 - 제6회: 2020.09.18. 「놀이와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
-

**4. 회비 및
입금 계좌
안내**

(1) 회비

- ① 입회비 : 10,000
- ② 학생회원 : 20,000
- ③ 정회원 : 40,000
- ④ 모바일 입회원서 :



(2) 입금계좌

- 은행명 : 하나은행
 - 예금주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 계좌번호 : 211-910013-91104
-

**5. 학회
연락처
안내**

- 학회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충의관 211호 오길주 교수 연구실
 - 학회 홈페이지 : <http://www.acagora.or.kr>
 - 학회 이메일 주소 : acagora@naver.com
 - 학회 전화번호 : 031) 828-7166
 - 간사 : 윤지아 (010-6893-1190)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입 회 원 서

NO.

(사진)

성 명 :

생년월일 : . . .

연 락 처 : - -

E-mail : @

현 주 소 : 우 - |

근 무 처 : 우 - |

○ 학력 및 사회 경력 :

•

•

○ 현재 소속 및 활동 상황 :

•

•

○ 저서 및 논문 :

•

본인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에 동의하며, 입회를 희망합니다.

2021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장 귀하



후 원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어린이
문화연대

리딩게이트 



석선생 영어

한인숙 학습심리연구소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